

《민들레》 31호 출판기념회 및 제26회 민들레문학상 시상식(2024. 5. 25.)

이흥렬 자서전 출판기념회 및 고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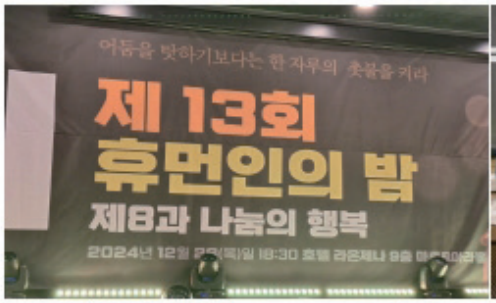






이흥렬 회장님의 70년 인생을 담은『앉은뱅이꽃 그 향기』자서전 출판기념회 및 고희연을 2024년 9월 28일 많은 지인을 모시고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지면으로나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에 담은 행사













2024년 12월 26일 라온제나호텔에서 김동석 사장님이 소속한 '휴먼인의 밤' 송년회에 회장님과 총무님이 초대 받았습니다. 협회 후원금 백만 원을 받고 회장님 자서전 『앉은뱅이꽃 그 향기』를 나눠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협회와 자매결연 단체인 동서클럽이 지난달 창립 23주년과 24~25대 회장단 이·취임식이 웨딩비엔나에서 성대하게 열려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우리 협회 대표로 이흥렬 회장님과 이순희 총무님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고 축하도 해드리고 왔다. 매년 회원들이 봉사활동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다.

민 들 레

2025 제 32 호

사회단체 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문학이란 무엇인가

최근 들어 문학에 대해 좀 더 깊은 작품을 써보기 위해 이런저런 책도 많이 보고 남다른 생각(상상)을 하면서 기사 하나를 보고 충격도 받았지만, 공상 세계에 잠시 빠져보았다.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우주 은하계가 점점 팽창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는 도대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을까? 우리가 알고 있기론 은하계는 서로 당겨주는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부딪치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찾아낸 은하계의 수만 수억 개가 넘어도 아직 찾아내지 못한 별들이 더 많고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수만 킬로는 가까운 거리고 빛의 속도로 수 광년이 걸려도 못 가는 인간의 머리로는 공상에 불과하지만 문학의 세계도 이러하지 않을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도 1초가 다른 은하계에서는 한 달, 또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1년이 다른 은하계에서는 하루밖에 안 되는 시간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생긴다.

최근에 나는 아이캔 대학에 6개월 과정의 자기성장, 자아성찰을 통하여 나다운 그 무엇을 만들어 기록학자 김익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같은 기수들의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각자 자기의 길을 열심히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다.



(사)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회장 이 흥 렬

어떤 이는 사업가로 자기다움을 만들어가고 또 다른 이는 복지사로 교사로 다양하고, 젊은이들의 꿈을 향하여 열정을 쏟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젊은이들의 깨어 있는 의식을 느끼면서 나는 그들 중에 가장 고령에 장애까지 가지고 있어도 문학가로 글을 많이 쓰는 것, 깊이가 있는 글을 쓰는 일,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것이 나다움이 아닌가 생각한다. 좀 안다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해도 듣는 이의 마음에 여운이 남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김 교수님 강의 중에는 글을 쓰는 요령과 방법, 글에 대한 기법 같은 것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새로운 것들이 있어 관심있게 듣고 메모하고 있다. 문학개론 같은 것은 이미 책을 통하여 알고 있지만 인문학은 워낙 방대하여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번 27회 민들레문학상을 공모하면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문학은 '내가 누구인가'가 시발점이다. 나의 존재와 내 안에 어떤 잠재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남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번쩍이는 시각을 가져야 창의적인 글을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코스모스' 하면 가을에 피어야 더 운치가 있고 처량하면서도 사람들 가슴에 여운을 주는데, 5월 6월에 피는 코스모스는 이쁘기는 해도 가을만큼 운치나 다가오는 것이 덜하다. 하지만 작가는 거기에 새로운 생명과 의미를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 창의적이다.

「6월의 코스모스」 – 이흥렬

길가 때 이른 코스모스/ 땅의 조산물/ 잎새 하나 하나마다/ 어린 티/ 가냘픔의 극치/ 아직 영글지 못한/ 들판 오곡을 재촉하는 모양/ 창기도 아닌 것이/ 뭇 사람들의/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짧은 시 한 편으로 여름날에 흔하게 피어 있는 여러 꽃들 속에 섞여 핀 꽃이지만 관찰하고 재해석하여 다른 생각으로 보니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시어가 되는 것이다. '땅의 조산물' 철 이르게 피었으니 산모가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낳은 아이처럼 비유한 것이고 아직 영글지 못한 오곡백과가 제철도 아닌데 영글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도 재촉하는 모양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다른 꽃들보다 가늘고 여리기에 더 아름다워 보였기에 사창가에 가면 화려한 여성들이 뭇 남정네를 유혹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을 상기시켜 코스모스의 아름답고 숭고함을 연출했다.

사진작가는 카메라 렌즈의 각도에 따라 사물이나 풍경이 이색적인 작품이 되고 미술가는 한 사물에도 여러 상상력과 색채의 감각과 다양한 시각으로 그려야 명작이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나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하고 폭 넓은 포용력을 가

져야 하고 불필요한 아집은 과감하게 제거하여 새로운 고유를 만들 줄 아는 힘(지식)을 갖출 때만이 보다 더 나다움이 실행될 수 있다.

인도에 버려진 휘어진 못 하나를 그 누구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지만, 작가는 버림받은 하찮은 못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때 누구도 생각지 못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

「휘어진 못 하나」 _ 송 진 환

휘어진 못 하나/ 길 잃고 낯선 곳에서 혼자/ 굴종의 아픔 참아내는 중입니다/ 보도블록 틈새 비집고 누워 멀거니 하늘 보며// 한때는 반짝이는 날 있었습니다/ 제 무게로 온전히 버틸 수 있는 곳 골라/ 탕탕/ 꿈꾸던 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던 삶 한순간 휘어지고 말아/ 아득히 잊혀진 채 변방으로 밀려 오늘은/ 서럽게 하늘이나 봅니다/ 이런 날 하늘은 더 차도록 눈이 시려/ 휘어진 못 하나/ 자주 돌아눕습니다// 돌아누워 곰곰 생각습니다/ 이만치 밀려오는 동안/ 굽이진 자리마다 늘 바람 거칠어 벌겋게/ 풍화되던 흉터로 남은 것을/ 세월 탓에 이제/ 굽은 등마저 끊어질 듯 위태로운 것을// 서러운 가을볕이/ 저무는 시간을 애써 떠받치고 있습니다.

나의 처지가 휘어진 못 같지만, 저무는 시간을 애써 떠받쳐 버티고 있는 것은 아직 주어진 소명이 있다.

27회 민들레문학상 공모전에는 이보다 더 주옥같은 작품이 응모되어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길…. .

차례

발간사 |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흥렬 6

제27회 민들레문학상


김영욱
이석재
김민호


한미숙
민경례
한승완
조요섭

■ 시 부문

심 사 평 | 안윤하 잠결에 날개를 밀어내려는 저녁의 난간 222
당선소감 | 김영욱 시 부문 대상 224
대 상 | 김영욱 유리창 나비 외 4편 227
당선소감 | 이석재 시 부문 가작 238
가 작 | 이석재 그 남자의 퇴원 외 4편 240
장 려 | 김민호 해물짬뽕 외 4편 248

■ 수필 · 수기 부문

심 사 평 | 박기옥 외침이 아닌 설득으로 감동을 이끄는 재주 253
당선소감 | 한미숙 수필·수기 부문 가작 255
가 작 | 한미숙 악어와 악어새처럼 256
장 려 | 민경례 거나한 낮잠..... 262

■ 소설 부문

심 사 평 | 이근자 독자에게 정확하게 아름답게 닿기를 266
당선소감 | 한승완 소설 부문 가작 270
소설 가작 | 한승완 이상하다 271
소설 장려 | 조요섭 루시드 드림 292

ㅅㅣ

강종수 장작 담 • 14
고봉국 홀로된 엄마 품속이 아프게 한다 • 15
고성연 모친별리 • 17
고영미 잃어버린 시간 • 19
김기순 모란꽃과 무화과의 만남 • 21
김동한 접시꽃 연정·3 • 22
김명희 지우개 • 23
김미선 9월의 기도 • 24
김미정 단짝 • 26
김성현 새싹을 보며 • 27
김순남 어머니 마음 • 28
김시내 삶은, 뛰어넘기 할 수 없다 • 29
김영민 오월이 오면 • 30
김영애 소원 • 32
김정선 그 길 • 33
김지후 오는 거지요? • 34
문쾌식 갈등의 꽃 • 35
박선영 심부름 • 37
박선우 창밖 풍경 • 39
박제백 길 • 40
박창숙 밝은 내 모습 • 41
박철한 벚꽃 길 • 42
배명식 양재할매집 • 44
배미경 봄이 꽃으로 피어나 • 45
변삼학 소년가장 • 46
석재희 들꽃 • 48
손성일 여공 누나 • 49
손정수 흰지팡이 예찬 • 51
송 영 간격 • 54
신시은 나는 새 • 55
신재도 엄니는 언제나 안 이병님 • 56
오다은 기다림 • 57
오정숙 인연 • 58
우정순 흔적 • 59
유동규 너의 이름은 • 61
윤현순 무대 • 62
이경흡 새로운 시작 • 63
이대우 꽃구경 간 우리 엄마 • 64
이민철 어머니 • 65
이병길 채움 • 67
이병옥 고추 농사 • 69
이상름 쏟아지는 장대비를 보며 • 72
이 석 복자 • 73
이순희 영원한 나의 동반자 • 75
이헌진 협연 • 77
이현수 세월 • 79
이흥렬 방 꾸미기 • 80
임성균 5분 남짓의 짧은 순간 • 81
장학이 자연의 신비 • 82
전연륙 사랑니 • 83
정아름 안녕 • 84
조계원 헌책방 • 85
조금례 날씨 • 87
조오복 본받아야지 • 88
주치명 봉숭아 • 89
채영숙 첫 손자와 만나던 날 • 90
천가람 사랑은 더디지만 깊이 흐른다 • 91
최영철 개똥참외꽃 • 92
최혜선 바다 • 93
하세가와마사꼬 사랑의 공동체 • 94
황남기 소녀와 파도의 협주곡 • 95
황은숙 들새 • 96

수필 · 수기

곽상훈 대학교 탐방하기 • 98
권택환 어머니와 지게 • 105
김미나 그들의 오누이로 산다는 건 • 110
김미정 소록도 잉꼬 노부부와의 만남 • 117
김영민 가로등 켜지는 밤 • 121
김영욱 우리들의 패드 야트라Pad Yatra • 126
김은주 옆에 계셔도 그리운 이름, 엄마 • 131
김정란 앙증맞은 손과 발을 가진 꼬꼬마 슈퍼 히어로 문언 씨 • 135
김주혜 외출 • 141
박철한 나 홀로 여행(2) • 147
신계원 장터 • 149
심순자 엄마의 마지막 집, 요양원 가시던 날 • 153
유상숙 추억의 내 고향 집 • 159
윤옥순 해우재解憂齋 • 162
윤장현 사진만 남기고 • 165
윤재송 운명을 발원한 은인 점자 • 172
윤정열 그 해 가을, 울릉도(2) • 176
이병옥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 184
이주한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 185
임미진 내 귀에 자연 • 188
장길숙 엄마의 빈자리 • 194
전정숙 아카시아가 피어나는 올봄이 기대된다 • 200
조경철 아내가 일궈준 행복 • 206
조항수 내가 변해야 세상이 바뀐다 • 211
황은숙 쓰레기통 • 216



○ 연혁 311
○ 주소록 317
○ 함께해 주세요 323
○ 문학 강의합니다 324
○ 후원 안내 325
○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326
○ 〈장애인예술마을공동체〉 건립계획서 327

시

강종수 고봉국 고성연 고영미 김기순 김동한 김명희
김미선 김미정 김성현 김순남 김시내 김영민 김영애
김정선 김지후 문쾌식 박선영 박선우 박제백 박창숙
박철한 배명식 배미경 변삼학 석재희 손성일 손정수
송　영 신시은 신재도 오다은 오정숙 우정순 유동규
윤현순 이경흡 이대우 이민철 이병길 이병옥 이상름
이　석 이순희 이헌진 이현수 이흥렬 임성균 장학이
전연륙 정아름 조계원 조금례 조오복 주치명 채영숙
천가람 최영철 최혜선
하세가와마사꼬
황남기 황은숙

장작 담

강 종 수

어느 시골 초가집 흙담벼락
허리 늙으신 우리 아버지 수고로
둘러 쌓여진 누런 장작더미

기나긴 겨울
우리 가족 따뜻하게 안아 줄
아버지의 훈훈한 사랑이지요

우리 가족 위해
차곡차곡 쌓아둔 사랑이 있기에
따뜻하게 오늘을 살아요

하나 둘 구락쟁이에 쌓여지는
구들장 사랑
태워도 태워도 줄지 않는
아버지의 묵묵한 사랑이지요

홀로된 엄마 품속이 아프게 한다

고 봉 국

홀로된 엄마가 아프게 한다.
지워버리고픈 고통이여,
잊어버리고픈 고통이여,
너와 나, 무엇이 나를 이리도 괴롭히는가
괴로운가, 그러면 잊어라. 지워버려라.
그러나 아픔을 잊지 말고, 슬픔을 잊어라
삶의 시작과 완성은 아픔이다.

망각의 동물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아픔을 잊는 것.
내 오늘 외운 한페이지의 아픔이
내 나중 주옥의 지혜가 된다면
그만한 기쁨이 어디 있으랴

내 어제 헤어진 그대와의 아픔이
내 나중 주옥의 지혜가 된다면
그만한 성장이 어디 있으랴

즐겨라 고통을, 하지만 지워라
슬픔을.

기억하라. 고통을 하지만 잊지 말라
고통을.
그대만의 아픔은 그대만의 영광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친별리

고 성 연

진달래 피었다 진다고
두견이 슬피 울던
어느 화창한 봄날 새벽

곤히 주무시는 듯 코골이가 격하더니
급하게 구급차 타시고 응급실 한켠에 자리 잡으니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득하다

응급실엔 알 수 없는 불빛들이 깜박거리고
여기저기 주렁주렁 산소 줄 늘어져
깊은 신음 소리가 스멀스멀 기어다닌다

생명 줄 부여잡고 차마 놓지 못하시니
눈먼 아들 발에 밟혀선가
쌓인 한에 짓눌려 살아오신 숱한 고난의 세월이던가

뒤늦은 후회와 연민이
거센 파도가 되어 연거푸 가슴을 훑고 지나간다

따사롭고 넉넉했던 어머니 품속

다시는 못 받을 어머니 사랑
저승길 쫓아가 불효를 씻을까

두견이 쫓아 먼 길 떠나신
어.
머.
니.

잃어버린 시간

고 영 미

꽃무늬 원피스가 잘 어울리는 곱고 얌전했던 그녀.
서른아홉에 청상과부가 되어 칠남매를 데리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방을 쌌다가 풀어 헤치기를 여러 번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면 길을 잃고 만다.

손을 아무리 저어봐도 잡히지는 않고 사방을 허우적거리다 일어나시고 낮잠이 들었다가 깨어 나시곤 하신다.

방문 앞에는 슬리퍼 한 짝이 나뒹굴고
한쪽 발에는 슬리퍼 한 짝이 잠이 덜 깬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늘따라 그녀는 기분이 좋다.
밥이 촉촉하다 하고 찌개가 맛있다고 연실 칭찬이다.
세탁기 빨래도 꺼내 널으라 하시고,
화장실 화장지도 걸어 놓으라 하신다.

그녀와 나란히 누워 옛날 이야기 나누며 추억을 더듬는다.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며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낮과 밤도,
계절도,
내 이름도, 아들 손자 이름도 잃어 가신다.
멋쟁이 그녀는 그렇게 모든 것을 망각한다.

그녀의, 분 내음.

모란꽃과 무화과의 만남

김 기 순

긴 겨울 좁은 화단 안
키다리 무화과나무 밑

흙 속 어두운 기다림에 지쳐
녹색 잎 손바닥 밑에 숨어 있던
꼬마 양배추 모양으로 결구 된
둥근 얼굴을 빼꼼 내밀다

살랑이는 바람결에
하늘 향해 11폭 치마 활짝 열더니
급기야, 입맞춤하여

창공에
연분홍빛으로 물듦

접시꽃 연정·3

김 동 한

상큼이 할머니 집 기다란 담 밑에
새하얀 접시꽃이 함초롬히 피던 날
낮달이
내려다보고
생긋생긋 웃었다

내 고향 새터 동네 승연이네 할머니
접시꽃 닮았다고 택호가 접실댁
접시꽃
좋아하셨던
접실, 접실, 접실어른

우리 집 담장 아래 피어난 접시꽃
배시시 웃고 있는 그 모습이 고와서
세월도
비켜서 간다
공정公正이 무너진다

지우개

김 명 희

먼저 가는 연필이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
말없이 깨끗이 닦아 준다.
몸이 닳도록 닳아서 가루가 되도록
다시 하라고 응원한다.
자신은 아무래도 상관 없는 듯

나는 남의 잘못을 눈감아 주지 않았고
별것 아닌 걸로 수군거렸고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소문을 냈고
지적질 하며 무안을 주었고
돌아보니 잘한 것보다
잘못한 적 훨씬 많다.

지우개는 몸을 던져 헌신한다.
나는 지우개처럼 나를 희생하여
수고한 적 있었던가?

9월의 기도

김 미 선

행복하지 않아도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의 연속이어도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로 서 있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는
가장 겸손한 자로 서 있게 하옵소서

내 인생 앞에서는
성실과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내 자신 앞에서는
가장 강한 자로 남아 있게 하시고

사랑 앞에서는
가장 약한 자로 남아 있게 하소서

지나간 날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아직 남은 날들을
소중히 아껴 쓰게 하소서

내가 태어난 날을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단짝

김 미 정

땅바닥을 두드리면서
조심조심
길을 가던 흰지팡이

잠시 방향을 잃고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헤매는데

발 아래로 바짝 엎드린
울퉁불퉁
노란색 점자보도블록의

친절한 길 안내를 받고서
토닥토닥
감사 인사를 건넨다

새싹을 보며

김 성 현

길을 가다 한 번쯤
자잘한 돌들 틈에서 다소곳이
생의 광장에 참여한 어린 잎을
본 적이 있는가

그 하나의 목숨이 돋아나기까지
얼마큼의 우주의 섭리와
얼마큼의 대지의 양분과
하늘로부터의 수분과 시간을
필요로 했을까

생명이라 말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와 같은 혼신의 과정
절대자의 계획 안에서 태어난 것을

아무것도 하찮다 하지 말라
아무것도 업신여기지 말라
생의 광장에 참여한 그 하나하나를

저 작지만 장엄한
삶을 보며!

어머니 마음

김 순 남

동구 밖 언덕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린다

참나무 이파리 주름살 감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따라
아스라이 멀어지면
어머니의 돌아서는 눈시울

어머니만큼 세월을 먹어
꿈속이라도 그리운 시간

물가의 어린아이로 서서
저무는 도심의 거리 서성이면
참나무 푸르게 부르던
어머니의 소리 뒤따르면
가는 길목마다 젖은 모습 남기고
얼룩진 삼베적삼 냄새로 돌아서 간다

이 밤 나는
찬란한 도심 속 어디쯤에서
어머니 모습 그리며
잠 못 이룬다

삶은, 뛰어넘기 할 수 없다

김 시 내

책을 한 쪽씩 정성스럽게 넘겨야
혹, 숨겨져 있는 절정을 놓치지 않고
앞뒤 문맥을 잘 이을 수 있다

삶의 시간도 점프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빚어야
혹, 남몰래 숨겨져 있는 보물 놓치지 않고
발견해 품을 수 있다

책은 정성스럽게 한 쪽씩 잘 넘어가는데
삶은 가끔씩 점프하고 싶은 일들
왜 이리 많은지

훌쩍 크고 깊어질 수 있는 비밀이
찬란하게 가득한 일 안에서
또박또박 걷기다

오월이 오면

김 영 민

세상은 온통 푸르름에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들은 마치 파릇파릇 새순을 틔우고
길가의 풀들은 싱그러운 잎을 펼쳐 보이고
겨울의 차가운 기운은 온데간데없어지고

따스한 햇살과 산들바람은 만물을 깨우는 듯
마치 잠자던 거인이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뻗어 나가는 듯한 역동적인 기운이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맑고 밝게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의 뛰어노는 모습이
그들의 웃음소리는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들며
어른들도 마음속에 잠시 잊고 있었던 순수한
동심을 깨우며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싶은

오월은 어린 시절의 꿈과 희망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떠나며
푸른 들판을 걸으며 싱그러운 자연을 만끽하고
꽃향기를 맡으며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스한 햇살 아래
손을 맞잡고 걷는 길은 세상에 아름다운 풍경
오월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절로 변할 수 있다.

소원

김 영 애

어둔 밤 하늘
아래
금빛 달맞이꽃
달빛 받아 선명하게 빛나는 여름날
달 아래
두 손 모으고
합장하는
달바라기
가장 간절한
바램으로 숨죽이며
겁없이 되뇌는 반복되는 읊조림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집념을 보여준다
언젠가 맞이할 미래를 꿈꾸며
긴 시간 기도로 오늘을 버틴다
다가올
먼 훗날 기다림이
오래도록 이어진다

그 길

김 정 선

멀리 있어도
결코 멀리 있지 않은 그 길
당신을 향해
나도 걷고 싶습니다.

작은 씨앗
큰 열매가 되어
기쁨이 되는 것처럼
난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

멀리 있어도
결코 멀리 있지 않은 그 길
당신이 나에게 주신
재능, 사명감으로
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오는 거지요?

김 지 후

봄바람 불어오고
겨울은 어디에 있나요

지나고 간 자리 비워두고
흔적 속 그 기척
홀로 그리워하다 눈을 감았다

아침 햇살 눈부시게
가슴을 안아
언 땅 위에 돋아난 잎 하나

흘러가는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눈바람은 사라지고
바람이 분다

그리움이여
찬 바람이 불어온다

봄은 오는 거지요
겨울은 있는 거지요

갈등의 꽃

문 쾌 식

하고많은 꽃 중에
괜스레 미움받는 꽃이 있다
앙증맞은 붉은 꽃, 단아한 색시라
너무 예쁜데
서슬 퍼런 가시가 눈에 거슬린다

너의 뜻과는 상관없어도
고약한 시어머니 손에 들려
설움의 눈물 뒷간에서 삼키는
저 가련한 며느리 보드라운 엉덩이
핏물 들게 했다면
어찌 좋게 보겠느냐

가만, 내가 누굴 질책하는가
너는 며느리만 가시로 찔렀다 치자
난 성질머리 더러운 가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찔렀던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햇볕 따가운 아침

며느리밑씻개의 붉은 눈물이
내 가슴에 가시로 박혀
아프다

심부름

박 선 영

나는 여섯 살, 동생은 네 살.

엄마는 오늘도
심부름을 시켜요

정말정말 가기 싫다는
말은 두더지 머리처럼
쏙 들어가요

"두부 깨지면 혼난다!" 하는
무서운 엄마 목소리가
귀에서 쨍쨍대요

왼손은 동생 손잡고
오른손은 두부 비닐 들고
조심조심 걸어요

가슴은 작은 북처럼
쿵쾅거려, 곧 터질 것 같아요

내 눈은 외눈박이 물고기
해님이 사라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어두워져 걸음은
다짐과 다르게 허둥대요
매일 걷는 길인데도,
불룩배처럼 솟아오른 큰 돌 앞에서
두부는 내동댕이쳐지고,
동생 손은 놓쳐서 울고…

까진 무릎보다
혼내실 엄마가
생각나 눈물이 더 나요

창밖 풍경

박 선 우

창문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화면의 절반은 우거진 나무들
절반은 뭉게구름을 머금은 파란 하늘

창문 밖 세상은 내 마음 비추는 곳
바람이 살랑살랑 은행잎을 흘리고
내 마음 휑한 공간을 포근하게 안아주네

창밖을 보면서 아픈 기억을 떠올린다
기억들은 나뭇잎에 매달려 흔들린다
파아란 하늘을 보며 시선을 돌려본다

기억은 유화가 아니라 나뭇잎
아픔은 덧칠해서 지우는 것 아니라
고통이 붉게 물들어 자연스레 떨어지는 것

깊숙하게 호흡을 한두 번 들이켜면
생각의 램프 하나가 깜박깜박 켜지고
내 맘은 푸른 빛 따라 부풀어 오르네

길

박 제 백

아침에 눈을 뜨니 이불 자락 위에
버티고 앉아 쪼그리고 있는 나를 봤다
창 안으로 부연 빛이 들락거리니 머리를 어지럽힌다
빛이 들어올 땐 환해지더니 빛이 나가버리자 다시 암흑이 찾아왔다
대낮에는 빛이 밝을 때는 온 세상이 소금 뿌리듯 하얗게만 보이더니 그나마 구름이 크게 인심 써서 빛을 가려주면 터덜거리며 걷는 인간 두 다리가 빛에 물결 따라 보일 듯하기도 하고
등판대기에 뭔가 뜨겁게 올라온 것이 어떤 분노 같은데
이것은 누구를 향한 분노가 아니고 저 반란하는 빛에 대한 나의 분노인가
오로지 모자라는 나를 향한 것인가
겨울이 왔다 가는 길목에서 햇빛이 오고 가는 길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

밝은 내 모습

박 창 숙

세월의 다리를 건너고 보니
늙음이 머물고
올 한 해도 반이 지나네
뚜벅뚜벅 걸어온 세월
참 많이도 걸어왔네
인연도 만나고
기분 좋은 아침도 맞이하고
우리네 인생사
어디서 멈춰질지
안부를 묻는 이가 있으니
일상의 작은 행복이네

벚꽃 길

박 철 한

3·1절을 맞아
홍주의사총 참배하듯 고래 한 마리의
꼬리 부분이 교각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려 있네

몸통의 크기가 장대하여
광경교 앞에 머리를 두고
한 달여 하늘을 향해 몸부림을 치는데

더욱이
홍성천의 깊이가 얕아
배 부위만 수면에 닿아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질 위기에 접할 때

구강 내 산소부족 증세이던가
크게 벌려 하품하는 입 속 뾰족 치아의 부심에
나비 떼는 외면하고

다만,
햇살을 가위질하듯
머리 위 꿀벌의 부산한 날갯짓 소리가

마음을 긴장케 하고

하롱하롱 날리는 꽃잎을 맞으며
긴 터널 속을 걷는 발걸음이
낙엽으로 자박자박 쌓이네.

양재할매집

배 명 식

소싯적 저녁상 일찍 물리고
할매 등에 업혀 마실 다니던 양재할매집
온 동네 할매들과 아낙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담배연기 가득한 방 안엔
쾌쾌한 골방 냄새와 남루하고 삶에 찌든 노인 냄새가 난다.
호롱불 심지 불꽃이 아롱대는 두 칸짜리 골방의 초가집
마루 밑 뜰팡엔 흙 묻은 흑백의 고무신들
동내 할매들의 오랜 때 묻은 마실터
작은 골방에 모여 앉아 십 원짜리 동전을 앞에 두고
구수한 농담과 깔깔 웃으며 치는 민화투가 정겹다.
한 쪽 골방에선 돋보기안경을 낀 할매들이
다 해어진 옷가지와 구멍 난 양말을 기운다.
허리가 굽은 늙은 할매들과 나이 먹은 아낙들이
낮의 논밭 일로 지친 고달픈 피로를 덜어낸다.
언제나 메주를 띄우는 쾌쾌한 냄새가 나는 양재할매집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아직도 어두운 그 방 안의 그 냄새와 누런 벽지가
아른대는 사무침으로 그리워진다.

봄이 꽃으로 피어나

배 미 경

잔뜩 움츠렸던 대지 위로
봄이 하늘 향해 기지개 켜면
응달에 따사로움이 조금씩 번지고
한낮으로 비치는 햇살이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으로 다가온다

기나긴 추위를 이겨낸
말랑개비 나뭇가지들
따뜻한 봄볕이 물려 주는
젖 줄기를 물고 하나둘 깨어난다

지루했던 시간의 터널을 지나
숨결처럼 다가오는 따스한 바람결에
생명의 기운이 움 돋기 시작하고
땅속 깊숙이 숨어 키웠던 초록빛 새싹
봄이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난다.

소년가장

변 삼 학

아직 내 손에서 캄캄한 진흙 냄새가 짙다
연근 캐는 아르바이트를 한 날
연꽃의 일생을 보며 내 좌우명이 정해진다
어둠을 가른 불빛 아래
책 속에 밀린 문제의 단어와 친히 사귀려
손등 정맥을 당겨 한 줄 두 줄 긋는 밑줄들

낮에 진흙 속에서 연뿌리 뽑을 때의 배경처럼
솟는 낱말들 노트 위에 심는다
들녘의 고요가 5쪽을 익히기도 전, 눈가에
달라붙어 자장자장 글자들의 유혹이
얼굴을 스르륵 당겨 책 속에 아예 묻어버린다
독학에 밀리는 잠의 홍수에
길이 끊겨 표류의 시간이 장기로 이어진다

때로는 혼탁한 표류의 수면 위로 떠오른
쪽배 한 척 빛을 발한 때도 있다
창이 환히 열린 방 안으로 내가 있고, 흩어진
두 동생이 돌아와 있고
벽에 걸린 옷가지들 부모님 미소처럼 들어온

아침햇살에 서로 몸 비비는
액자 하나, 눈앞에 연잎처럼 파랗게 떠다닌다

들꽃

석 재 희

뭇사람이 밟고 지나는 오솔길 옆에
자리한 들꽃
밟히고 밟히고 끈질기게 참아내더니
오늘 웃는 얼굴로
나를 반긴다
미안한 듯 조심조심
웃는 꽃 반갑게 스친다

여공 누나

손 성 일

키 작고 통통하지만
누구보다 아름다운 가슴을 가진 누나
나를 관객 삼아 노래 부르자
시골 초가집 젊은 엄마의
오리, 고양이, 강아지
사랑의 가르침
쪽쪽! 받아먹는
어린 동생과 누나가 나타났다.

철없는 내 가슴에
애틋함이 올라오자
누나에게
-행복한 시절 떠올리라고
위로했다.

누나는 떠올렸다.
사랑하던 강아지 몽구
아버지 약으로 잡던 날
그러지 말라고 악을 써보았지만
아버지 병 고치려면 어쩔 수 없다며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던 거친 엄마의 손
그럼에도 아버지 돌아가시자
고개 떨어뜨리고는 하염없이 울었다.

당시는 알 수 없었으나
어른이 된 지금
부모님이 그립다는
뜻이었음을 사무치게 느꼈다.

흰지팡이 예찬

손 정 수

내가 자네를 알게 된 건 서른 살쯤
전쟁 같은 사회생활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맹학교에 입학할 때
모든 입학생들에게 자네가 쥐어졌지
그때만 해도 나는 약시라
자네의 소중함을 몰랐지

어떤 약시 친구는
자네를 장롱에 고정시켜
빨래를 널고 있더군

난 그냥 장롱 안에
자네를 박아두었지

자네를 다시 꺼내게 된 건
10년이란 시간이 흘러
내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였지

그때 꺼내 만져 본 자네는 볼품없더군
고무줄은 찍찍 늘어나 있어서

또 다른 자네를 맞이해야 했지

거리를 걸을 때 내 손에 들린
자네가 부끄러웠어
그때는 내 맘에 굳은살이 덜 박혀 있을 때지

내 마음에 굳은살이 단단해질수록
부끄러움이 사라졌어
자네와 같이 길을 걸으면
자네의 존재감을 새삼 느꼈지
자네를 보면 차들은 속도를 줄이고
사람들은 길을 안내해 주려 했지
자네는 내 안전을 위해
1미터 앞의 날아드는 총알 같은 위험과
지뢰밭 같은 위험을 막아 주었지

가끔 지뢰밭을 안내하다가
자네는 나를 위해 희생을 할 때도 있지
꺾이고 휘어져 버린 자네를 버리고
또 다른 자네를 맞이했지

‘흰지팡이의 날’이란
자네의 기념일도 있더군

지금 자네는 기념일이 있어
축하받고도 남음이 있는 존재란 걸 알았어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몰라도
자네 같은 동반자가 있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잘 지내 보세
친구!

간격

송 영

들깨 한 움큼 화분에 쏟아놓아
몇 날 며칠이 지나 껍질 모자를 뒤집어쓰고
아옹다옹 몸부림치며 솟아올라 오다.

서로서로 부대끼며 아귀다툼으로
실 같은 소리 애절한 모습으로 하여
갈증에 여린 모습 속살이 애처롭게 보인다

얽히고설킨 사연들 숨통을 조이며
아우성이 절로 나와 서로의 온기를 나눠
밀착의 간격으로 서로 보듬어 주고 있다

뒤엉킴이 사랑의 손길로 피어나 정겹게
여유로움으로 싱그러운 속삭임을 듣는다.

나는 새

신 시 은

새가 될래요
거친 파도가 휩쓸면 바로 날갯짓을 하여
파도를 피할 수 있는 새가 될래요

자유롭게 세상 위에서 화려함을 내려다보는
그런 새가 될래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을 찾고
나보다 어린 아기새들을 품으며
각기 다른 종 사이에서 빛날 수 있는

그런 새가 될래요

가끔 거대한 나무도 만나겠지만
때론 엄청난 강풍도 오고 가겠지만
괜찮아요

그저 새가 될래요

엄니는 언제나 안 이병님

신 재 도

얼마 동안은 엄마에게 계급장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하네
어느 날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이마에는 주름 같은 작대기 한 놈이 드러났어
기껏해야 병장까지이며 더 높은 것은 없다는데
그 선이 더하더니 여인에게만 6개의 줄이 그어졌다고 해

종신토록 그 군대에서는 탈출구가 있을 수 없다고 한다네
매일 6·25 같은 지옥훈련과 천국마저 혹들 때문에 쓰디쓰다는,
아무개야!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기는 한가
그런 여자라서 어쩌면 세상에서 저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인
몸 한 개로 여럿을 만든다는 복제술을 지녔을 거라고 믿었지

"내리사랑"이란 말을 써야 하겠구나!
어떤 시인이 의미 있는 이런 말을 한 것을 알고 있다네
속담 같은 것이 시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시라서 그렇다고 그러하더군
수많은 역사와 경험, 그리고 앎에서 나온 지혜일 거야

엄니는 안씨 성을 타고난 모델의 사신이었단다
두 사람의 졸병 중 한 명의 여군이 곧 죽고
하나의 자식인 그 부대의 아이가 또 세상을 떠났을 적에
스스로 안 부하는 나머지 네 명의 상관을 위해서만

기다림

오 다 은

친구와의 약속이 잡혔다.
약속의 설레임보다 걱정부터 앞섰다.
'교통약자 콜택시를 타야 하는데 대기자는 몇 명일까?'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될까?'
약속 당일 3시간 전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차를 불렀다.
3시간… 2시간… 응답 없는 전화
답답한 마음에 다시 건 전화
그러나
차가 없다와 기다리라는 앵무새 같은 답만 들려온다.
다시 1시간… 30분…
드디어 차가 왔지만
이미 늦어버린 시간
뚜… 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도 나는 잘못 없는 사과를 한다.

인연

오 정 숙

전생에 몇 번이나 옷깃을 스치고 간 인연이기에
그대와 내가 만났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날들을
봄바람에 옷깃을 스치며
꽃길을 걸었나봐요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닌
그대의 옷깃을 스쳤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서
짝꿍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 옷깃이 닳고 닳도록
그때 그 꽃길을 함께 걸어 주어서요.

흔적

우 정 순

못다 한 말들 다 안고서
바람처럼 사라져간 사람
먹먹한 안타까운 마음
한 두레박씩 담고 담다가 쏟아버리네.
잘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도 다 쏟아버리네.

한없는 허망함의 통곡은
어느새
깊은 우물 되어 있네
애증 대신 더한 그리움은
희뿌연 물안개로 피어오른다.
그 물안개 사이로
갈바람 소리 나는 여인네 하나
수묵화처럼 서 있네.
눈으로 흘러내려야 꼭 눈물인가
살 녹고 뼈 녹아 나온
표정과 숨소리가 통곡인 것을

바람처럼 가버린 사람아,
당신과의 인연이 있어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
이젠 진정 자유로운 영혼 되소서.
고마운 사람,
눈물보다 더 아픈 미소로 당신을 보냅니다.

너의 이름은

유 동 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는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다.
한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고,
그 뜻이 잘 어우러지도록 고른다.

그때의 기쁨,
부모의 두 마음이 합쳐져
하나의 이름이 태어난다.

비록 장애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이름 속 뜻대로
성장하고 있는 너.
우리의 기도와 바람을 안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너.

그 이름이 가르쳐주는
기쁨과 반짝임을 믿으며,
우리는 너와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

무대

윤 현 순

장날만 가는
시장인 줄 알았는데
장이 서지 않는 날
사람은 많지 않고
외로이 홀로
자리를 지키는 무대
너무도 쓸쓸해 보이고
관중석에 누군가의
고추가 자리를 하고 있네

새로운 시작

이 경 흡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모든 것이 끝난 듯 느껴질 때,
나는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그 빛은 내 마음을 비추며 말한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세상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과거의 상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미래의 희망은 나를 앞으로 이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나는 더 높이 날고 싶다.

꽃구경 간 우리 엄마

이 대 우

세상에 피는 꽃도
이렇게 예쁜데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하늘 꽃이 더 보고파
아픈 날 울리고
한없이 울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꽃구경하러 가셨어요

어머니

이 민 철

어렸을 때 만져 보니 매우
보드랍던 손

나이 먹어 만지니
다른 촉감

따스한 그 느낌 어디 갔을까
안아보니
따스한 느낌 어디 갔을까

불쌍해서 어쩌나
망신창이 되어서 못 알아봤나

기도하다
선명한 손금마저 없어졌나

걱정에 눈시울 붉어진다

잠든 퀭한 눈 더욱더 검어진 눈매
숨이 껄떡껄떡 하면 어쩔꼬

확인하고는 나도 잠든다

기도로 시작하는 아침
계단 너머 밝은 문이 보인다

맞잡은 마음으로 열어 사랑이 꽃씨 뿌린다.

채움

이 병 길

"자네가 와주어 정말 고맙네."
어느 날, 어르신의 손을 잡았을 때
거친 손끝이 전해주던 말
그 손에는 얼마나 많은 밤들이 서려 있었을까

"고맙네, 덕분에 오늘도 살아갈 힘이 생겼어."
추운 겨울, 텅 빈 냉장고 앞에서
홀로 외로움에 지친 어르신께
한 줌의 쌀과 함께 다정한 안부를 건넬 때

마른 손끝이 전하는 온기
그것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켜지는 작은 등불이었다

어린 날, 높은 계단 앞에서
주저앉아 울던 기억이 떠오른다

나도 과연 어른이 될 수 있을까?
행복이라는 것을 만날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시리고 어두운 밤들을 지나
이제 나는 세상 속을 달리며
휠체어 바퀴 위에 실린 작은 소망을 전한다

사랑을 싣고, 행복을 싣고
길 위에서 세상을 채우며
그렇게, 오늘도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희망을 건넨다

고추 농사

이 병 옥

고추 일년 농사
정월 달에
고추 품종 선택을 한다.
고추씨를 구입해서
작은 그릇에 고추씨를
물 속에 1주일 정도 담가 준다.
고추씨를 작은 천에
따뜻한 온도에서 3~5일 정도
보관한다.

며칠 후에
고추씨에 새싹이 보인다
상토와 넓은 상자를 준비한다
상자에 상토를 넣고서
고추씨를 뿌린다.

7일 후에
예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한다.
정성들여 물주기를 자주 한다.
25~30일 후에

잎이 두 개 이상 나와서
10~15cm 자랐을 때
온상 하우스에 가식을 한다.

따뜻한 봄날 4월에
고추를 심을 밭에
비료와 퇴비를 뿌리고
로타리를 2번 이상 쳐서 흙을 곱게 한 후에
두둑고랑을 만들고,
멀칭비닐을 친다

고추정식을 한 40~50일 후에
고추가 어느덧 무럭 자라서
예쁜 꽃봉오리가 생기고 하얀 꽃이 핀다.

밭에 정식 후에
고추 포기 3~5개마다 지지대를 꽂아주고,
고추끈을 이용하여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묶어준다

어느덧 벌써
고추가 달리기 시작한다
한여름에 고추가 빨갛게 익어간다.
고추 먹고 맴맴 한다

빨강고추를 수확하여, 세척후에 건조
판매 시작
오늘도 대박
파이팅

쏟아지는 장대비를 보며

이 상 름

지나가는 세월을 멈추고 싶은데
소리 없이 계절이 변하는구나
장대비야 쏟아져라
때묻은 세상을 깨끗하게 해다오
비 갠 후에 찬란하게 무지개가 떠올라 모든 이에게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 있게
자연의 오묘함, 찬미를 느낌이 아름답다
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비추기를 바람이어라

복자

이 석

우리 엄니 찬장에는
백자 항아리가 살았다

제석 오가리마냥
구석에 꼭꼭 숨어서
들숨 날숨 꼴딱거리며 살았다

할머니 삼 주기 제삿날
낡은 뒤주와 함께
가을볕 쏘이더니

앞집 대나무 울타리 숲에
거적때기도 덮지 못한 채
묻히고 말았다

눈 내리던 달밤에
볼 빨간 홍시 담아내던 일도
된장독에 된장 담아내던 일도
그는 손을 놓았다

고왔을 울 엄니 볼살 같던
복자로 비로소 안식을 찾았다

담아내는 일도
비워내는 일도
덧없던 삶을 내려놓고
비로소 흙 속에서 순명했다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이 순 희

하늘만큼 푸르고 청명한 그대
바다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품을 줄 아는 인성을 가진
그래서 존중받는 인품으로
다른 이들에게는 자상한 친구로
때로는 아버지로, 삼촌으로 불려지는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너무 힘겹고 무거웠음에도
어찌 그리 밝고 환한 모습으로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살아가나요

당신을 만남으로
내 속에 있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할 수 있게 용기를 준
그래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이끌어 준 나의 사랑하는 그대

가끔씩 짜증 섞인 말투로 대하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웃어주는 당신
가진 것이 없어도 풍족한 삶이라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래서 이 작은 행복에 기뻐하며
작지만 그 행복을 나눌 줄 아는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

협연

이 헌 진

우리가 채록한 땅의 악보 어디쯤인가
쟁기로 그린 오선이 모퉁이를 돌고 들을 지나
귀에 딱지 앉은 너름새는 시간의 마디에 늘임표를 찍는다.
이랴
두툼한 길을 갈 때마다 너의 육중한 발걸음 소리
땅 밑까지 울리는 저음에 귀를 기울이면
되돌아오는 악절 어느 후렴에서는 함께 자갈을 넘는
내 작은 발걸음은 조금 느리게 두 박자다

소 울음 같다는 짐작 너머
농자는 근본이라는 당연을 넘어

음 고르지 못한 악장을 지날 때면
보다 나은 악상을 위하여 찢어낸 몇 페이지에
기억나는 선명한 멜로디가 가슴 아리다
땅에선 언제나 묵은 저음이 자란다
꾸밈을 넣지 않아도 채보 가능한 음역이 골짜기와 들을 건너
미지를 가른다.
수레는 낡고 덜거덕거리지만 어느 줄 하나 당겨도
질기면서 부드러운 겹음 낭낭하다 서로 조이고 늦추면서

이랴
바퀴에서조차 둥글게 풀려 나오는 악절
시김새 곤한 아다지오 돌체 눕던 풀도 몸 일으켜 듣는다.

세월

이 현 수

깊은 밤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가을이 온다고 말해주고
다가오는 철 따라 나이를 먹고
즐거운 인생 화려한 인생
청춘은 가고
하염없이 늙어가는 노파도 나
잘 익어가는 인생의 주인공도 나

방 꾸미기

이 흥 렬

몇 해 묵혀 두었던
벽과 천장
몸서리치는 고뇌 다 받아
묵은 때 잠든 모노륨 장판까지
모두 뜯어내고 나니
마른 벼만 앙상하다
너덜너덜해진 삶의 흔적들
쓸모없어 버리고 돌아서는
그림자 위로 진한 지난날의 체취
내가 걸어온 얼룩진 세월
허상만 남은 삶의 진실
힘겹게 품어 온 시간만큼
켜켜이 쌓인 사연
돌아보는 맛은 소금처럼 짜다
다시 또다시
새 벽지에 희망을 발라준다
애착증 본드로 장판도 깔았다
옛 정취는 사라지고
어디를 둘러봐도 낯선 분위기는
두드러기가 날 정도인데
또 등 부비며 정 붙이고
땀 냄새 배이며 살리라

5분 남짓의 짧은 순간

임 성 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려오는 길
다리가 후들후들 다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걷는 듯하다.

다른 놀이기구 탈 엄두도 못 내고 벤치에 앉는다.

자연의 신비

– 장화나루

장 학 이

유람선 뱃머리
호수를 가르며 달리다 보면
한 폭의 산수화가 내 눈을 붙잡네
깎아지른 장엄한 기암괴석 거북바위
대나무가 우후죽순 솟아오른 옥순봉
날개 활짝 펴고 나는 형상 독수리 바위
한눈에 담기엔 너무 웅장한 자연의 신비

사랑니

전 연 륙

한 달 후면 50인데

입속 구석진 곳에 사랑니가

어린 새싹처럼 뾰족이 올라왔다

나의 몸이 회춘하는가 보다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을 무시하고

사랑을 해볼까요…?

가끔은 나에게 통증을 주기도 하는 사랑니

오늘은 나에게 꽁닥꽁닥 설레임을

안기는 너를 미워할 수가 없구나

안녕

정 아 름

안녕.
처음 너를 만난 날,
건넨 첫인사.

안녕.

너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건넨 인사.

그 후론,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건넨 말.
평범하고 너무 평범해서
기억나지 않는 말.

안녕.

마지막 날
너에게 끝까지 건네지 못한 인사.
네게 닿을 방도가 없는 인사.
후회 가득한 말.

안녕.
혼자 되뇌어 보는 짜고 씁쓸한 맛.

안녕, 안녕.

헌책방

조 계 원

정해진 자리가 없어 책장 아래에 쌓인 누런 종이책들
오랜 기억들을 간직한 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비좁은 복도에 뒹굴며 사람의 손길이 닿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시간들.

손대면 부스러진 페이지마다 남겨진 추억들이
이제 옛 시대의 유물이 되어
지나간 인생들에 대해 말해준다.
활자에 찍힌 글들은 비석이 되고
바랜 흑백사진은 영정이 된 황색 유배지들.

종잇장 사이에 낀 낙엽은
시들어진 감정을 되살리게 하고,
누군가가 남기고 갔는지 모를 쪽지는
호기심을 자극해
소소한 추리를 하게 만든다.
쪽 번호 자리에 펼쳐진 작은 극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배우들이 춤을 춘다.

주인의 곁에 떠난 책들을 관리하는
헌책방 주인은 명상에 잠겨
두껍고 낡은 고서를 읽으며 수도의 길을 걷는다.

날씨

조 금 례

온몸이 쑤시고 아파온다
마음의 날씨도 흐리다
비가 오려나 보다
하염없이 비가 내린다
내 안의 찌꺼기를 모두 씻어준다

본받아야지

조 오 복

할머니가 점심때
장애인복지관 구내식당에 갔는데
식사 끝내고 나오는
박 선생님 만났다

할머니 보자마자
얼른 다시 들어가
식판에 밥, 김치, 고등어조림, 숙주나물
시래깃국과 야쿠르트 담아
식탁자리 잡아주고
- 맛있게 드세요.
입맛까지 푸짐하게 챙겨줬다는 선생님

몸 불편한 우리 할머니
점심에 미안함, 고마움, 배려까지
잘 버무려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 듣고
나도 이 다음에….

봉숭아

주 치 명

새침한 봉숭아야
배꽃 적꽃 자주꽃으로
숭얼숭얼 피어라
아름다운 꽃물 들인 우리 누이동생
예쁜 손톱에도 톡톡
익은 꽃씨에도 톡톡
토로록 말리는 껍질마다
토도독 튀는 꽃씨야

첫 손자와 만나던 날

채 영 숙

너는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두 주먹을 꼭 쥐고
눈빛은 반짝반짝 (똘망똘망)
까만 머리숱은 이마를 가린
예쁜 사내였단다
예쁜 내 보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사랑 내 손자

사랑은 더디지만 깊이 흐른다

천 가 람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지만
우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갑니다.

아이가 손을 내밀 때
한없이 따뜻한 손길을 주고 싶지만
때론 더딘 움직임에 답답해질 때도 있지요.

그래도 아이는 웃습니다.
“엄마, 아빠, 천천히 해도 괜찮아.”

그 말에 다시 힘을 냅니다.
작은 손에 기대어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걸으며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조금 느릴 뿐, 부족한 건 아닙니다.

사랑은 빠르지 않아도,
깊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곁에 머무를 테니까요.

개똥참외꽃

최 영 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라 했던가
시멘트 사막 마당
틈새 뚫은 목숨 하나

간밤 도둑고양이 발에 밟혔나
꽃샘시샘 바람에 꺾인 모가지

손주놈 호들갑에
반창고 감아 비손하는
장독대 정화수 할매
청맹과니 뜬 눈에
맹인 안내견 맑은 눈에

개밥바라기별 새벽빛 스러지고
놀놀한 아침놀이
개똥참외 빛입니다.

바다

최 혜 선

맑은 바다는
맑은 옹달샘도
지저분 하수도
내 것이라고

바람 심한 날
화가 난 것 아니고
윗물과 아랫물
섞는 중이라고

흐린 날
바다는 하늘과 붙고
우리 안에 깊은 곳도
맑은 것인지 흐린 것인지

비 내리는 바다는
하늘의 물이 바다로 내려가는지
바다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지
아리송 아리송

사랑의 공동체

하세가와마사꼬

가족은 무슨 일이 있으면 의지가 되고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다.
밖에서는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 직장에 소속되어 있다.
그것도 가족의 연장선이다.
마음을 나누고 어려운 일을 함께하다 보면
어느새 가족같이 가깝게 느껴진다.
집 밖에도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아픔을 주지만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
나도 사회도 더 든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녀와 파도의 협주곡

황 남 기

시간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지만
파도의 꺾임은 반복되는 거친 저항의 연속이다
수평선은 지평선이 되고
바다는 물결이 되고
물결은 출렁임이 된다
출렁임은 파도가 되고
파도는 죽은 아비의 두꺼비집을 덮친다
기울기와 척도는 수치를 가늠할 수 없다
쉼 없는 물결의 대패질에도
거친 흰거품은 부드러운 협주곡을 흘러낸다
밤이 지나 새벽이 다가올수록
발을 동동 굴리는 뱃고동소리
어느 순간
비상하지 않는 갈매기의 흰 부리와
멈추어버린 협주곡의 음율소리
새벽을 지나 아침의 방향 따라
그곳의 바람이 불어오고
저녁을 지나 또다시 밤이 찾아온다
정신착란증의 술잔이 비워질 때
성대 없는 갈매기의 외침과
흰거품 속 사라진 소녀의 연주가
뿌연 회색빛 허공을 메운다

들새

황 은 숙

날개가 달렸건만
산을 떠나지 못해
높은 빌딩 날 수 있건만
나직한 산 주변만 빙빙

따뜻하고 안전한 건물 아닌
위태로워 보이는 작은 둥지
화려한 불빛이 유혹해도
총총총 작은 별빛이 좋아

짙은 향내 풍기는 도시를 떠나
이름 모를 들꽃 옆 서성이네
맛난 음식 마다하고
젖은 볏짚에 앉네

나도 나의 발걸음
붙잡는 그 곳에
살포시 머물고 싶어라

수필 수기

곽상훈 권택환 김미나 김미정 김영민 김영욱
김은주 김정란 김주혜 박철한 신계원 심순자
유상숙 윤옥순 윤장현 윤재송 윤정열
이병옥 이주한 임미진 장길숙
전정숙 조경철 조항수 황은숙

대학교 탐방하기

곽 상 훈

제가 돌보는 청년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살면서 청평면 소재의 호산나대학교에 다닙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일종의 대안학교입니다. 청년은 아침에 집에서 설악 버스터미널까지 15분 정도 걸어와서 마을버스를 타고 청평 버스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청평 버스터미널에서 내린 후 청년은 역시 걸어서 20분 정도 걸어서 9시 30분경 학교에 도착합니다. 청년은 이 학교에 오랫동안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이런 등·하교를 오랫동안 해온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도 하고 비누 포장하는 단순작업도 한답니다.

청년은 대학생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학교 가는 걸 어찌 좋아하는지 정말 놀랄 지경입니다. 제가 확인하기 위해 가끔 "날씨 좋은 날에는 학교 가지 말고 놀러 가고 그래!"라고 말하면 단호한 표정으로 " 안 돼요. 학교 가야 돼요!!!"라며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힌답니다. 청년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제가 뭐라고 해도 안 들을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말을 던지는 겁니다. 원래 대학생은 강의도 빼먹고 하는 재미가 있는 건데요. 이 청년의 사전에 결석이란 단어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꼬박꼬박 학교에 나가는 대학생은 듣도 보도 못한 천연기념물급입니다.

지난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토요일에 청년과 함께 서울의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동대문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서울역과 강남버스터미널, 한강 둔치, 명동과 명동성당, 상봉역의 코스트코 등…. 그러다가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키워줄 겸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을 가보면 어떨까 하고 청년에게 제안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드디어 서울 소재 대학교 탐방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 진행하면서 짠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마을버스로 청평 버스터미널에 내린 청년을 차에 태우고 청평역으로 이동합니다. 청년은 토요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답니다. 10시 23분 경춘선을 타고 50분가량 달려 청량리역에 도착해 1호선으로 갈아타고 동대문역에 닿습니다. 저는 전철로 이동하면서 매번 경춘선 전철과 지하철 1호선 노선을 청년에게 설명해줍니다.

동대문역 지하철 계단을 오르면 대로변에 꽤 큰 중국식당이 있는데요. 이름이 중국식이고 메뉴도 다 중식이지만 일반 중국집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식당이고 메뉴가 중식일 따름입니다. 짜장면이 4,000원입니다. 의자가 한 백 개쯤 되는데 점심 무렵에는 50개 정도의 의자에 손님들이 앉더군요. 청년은 거의 1년간 탕복(탕수육 반 볶음밥 반, 8,000원)만 먹고 저는 잡채밥(7,000원)을 주로 먹되 거기 있는 메뉴대로 돌아가면서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 오후에 많이 걷다 보니 면을 먹으면 오후 서너 시쯤에 허기가 지더군요. 그래서 가능하면 밥 종류로 먹게 되었죠. 그 식당은 소문이 났는지 남녀노소가 몰려들더군요. 일가족이 오는 경우, 부부가 오는 경우, 친구들끼리 오는 경우

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혼밥을 드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짜장면, 식사 후 거기에 있는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로 호강을 한 다음 떠나는데요, 제 가방에는 100원짜리 동전이 준비돼 있습니다. 청년만 커피를 음미합니다, 정말 맛있게요. 저는 커피를 그다지 즐기지 않습니다.

1년 가까이 토요일마다 서울 나들이를 가면서 제가 청년에게서 알아낸 게 있어요. 토요일 아침에 만나면 우선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어디 갈까?"

"서울요."

"서울 어디?"

"대학교요."

"대학교는 왜 가려고 해?"

"공부하러요."

이런 대화를 재방송하듯이 토요일마다 반복해요. 그러면서 저는 청년이 탕수육에 깊이 맛들인 걸 알게 됐답니다. 내내 탕수육만 먹었거든요. 제가 가끔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또 물어봐요.

"오늘 뭐 먹을 거야?"

"탕수육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될까? 짜장면이나 짬뽕 이런 거."

답이 없어요. 다른 건 안 먹겠다는 거죠. 오로지 탕볶입니다. 그래요. 청년이 서울의 대학교 탐방에 나서기는 하지만 탕수육을 먹고 싶은 욕구도 강하다는 걸 알고 나서 저는 청년의 서울 탐방 목표를 '탕수육 먹방'(먹기 위한 방문)으로도 생각하게 됐답니다.

대학교 탐방을 마치고 상봉역으로 돌아와 경춘선을 타고 청평으로

돌아오면 오후 네 시가량 됩니다. 청년은 겨울에는 붕어빵이나 국화빵을 선호하지만 여름에는 그게 없으니까 마트에 있는 빵집으로 가서 크림빵을 사줘요. 만 보 이상을 걸었으니 도서관에 와서 좀 쉬면서 청년이 좋아하는 백지영 가수와 다비치 노래를 흐뭇한 표정으로 듣게 하다가 시간이 되면 버스 타고서 집으로 가게 한답니다.

첫날 간 대학교는 남산 동쪽 기슭의 동국대학교입니다. 동대문에서 점심 먹고 간단히 갈 수 있는 곳이라 택했어요. 동대문역에서 4호선을 타고 충무로역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죠. 무척 더운 여름이었지만 비가 조금씩 내려서 다행이었어요. 방학 중이라서 학생들은 별로 없었구요. 학교가 남산 기슭에 올라앉아 있어서 계속 비탈길을 올라야만 했습니다. 청년은 비탈길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했습니다. 쉬엄쉬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캠퍼스 한가운데 대형불상 앞에 연꽃이 멋들어지게 피어 있더군요. 그렇게 학교를 관통해서 동대입구역 쪽으로 내려왔어요.

매 토요일마다 실행되는 캠퍼스 탐방에서 우리는 처음에는 2호선 지하철 역 근방의 대학을 둘러보았어요.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다음에는 신촌으로 방향을 틀었죠.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까지…. 그 다음에는 청량리 부근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Kaist 서울 캠퍼스… 혜화동으로 옮겨가서는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한성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뭉쳐있는 대학들을 섭렵한 후 흩어져있는 대학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서울 서쪽의 명지대학교, 서경대학교, 국민대학교, 한신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중앙에 경기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드라마센터), 동쪽에 광운대학교, 세종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남 쪽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교육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삼육대학교까지 가봤습니다.

상명대학교는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멀어서 못 갔구요. 서울대학교는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구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여자대학교는 사실 외부인에게 개방을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좀 망설였어요.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는 개방을 하되 제한구역이 있더군요. 그래서 정문에서 한 삼사백 미터까지 들어갔어요. 성신여자대학교는 정문에서 눈치를 보는데 남자들이 거침없이 들어가는 걸 보고 자연스레 들어가 봤답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몇 년 전에 불미스런 일이 있어 외부인에게 개방을 안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덕성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정문에 갔더니 내부 시위가 있어서 개방을 안 한다고 했구요. 남산 북쪽 기슭의 숭의여자대학교는 정문에서 거부를 당했어요. 숙명여자대학교는 정문에 가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원칙적으로는 개방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수위가 자리에 없으니 조금 올라가서 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냉큼 올라가서 보고 내려왔답니다. 한양여자대학교는 한양대학교 안에 들어있어서 전혀 제한이 없이 가봤어요. 서울여자대학교는 외진 곳에 있기도 하고 아마도 개방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아예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서울 소재 대학교 중에는 상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체육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여자대학교 중에 몇 곳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의 10개월에 걸쳐 서울 소재 대학교를 두루 다녀봤습니다. 대학생 청년 덕분입니다. 청년이 싫다고 했으면 안 갔을 겁니다. 여름과 겨울에 날씨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학교를 비롯해서 초중고 등이 대부분 크거나 작은 산을 등지고 세워졌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나 봅니다. 서울 소재의 대학교들도 대부분 산을 등지고 있더군요. 가장 큰 산이 북한산이죠. 그리고 관악산이며 남산, 안산, 낙산, 개운산, 노고산, 천장산, 와우산, 불암산, 영축산, 배봉산, 초안산, 백련산, 서달산, 매봉재산, 망우산 등을 기대고 대학교들이 들어앉아 있으며, 그밖에도 동산 주위에는 초중고교가 여지없이 자리하고 있는 걸 보며 학교와 산의 관계는 뗄 수가 없나 봐요. 물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심지어 예전에 다녔던 초중고교 중에는 주변에 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가에 버젓이 '○○산 정기~'로 되어 있던 게 생각납니다. 역시 산은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키우기에 좋은 데로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청년과 함께 서울 소재의 대학교를 대략이라도 다녀보고 나니 나름 보람이 있더군요. 학교 방문을 마치고 떠나면서 학교 방문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좋아요!"라고 답합니다. "뭐가 좋았어?"라고 물으면 답을 못하지만 청년의 얼굴에서 기분 좋은 기색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매번 만 보 이상을 걸으니 피곤하긴 하지만 하체 단련되는 것은 우선 틀림없구요. 매주 다른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전철을 타고 걷고 하는 사이에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며 광경이 늘 단순한 생활을 반복하는 청년의 내면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니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건만 그건 좀 어려울 듯하군요. 거리가 너무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춘천 소재의 강원대학교는 춘천 가는 기회에 가봤답니다.

전에 겨울 방학에는 도서관의 어린이관에 가서 동화책을 집중적으로 읽어본 적이 있답니다. 청년이 책을 제법 잘 읽거든요. 문단이 길면 가운데서 건너뛰고 읽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 읽습니다.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니 대답은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한 50여 권 넘게 책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년은 한글에 관심이 많더라구요. 제가 농담하듯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 대학교 가고 싶어?"

"네!"

"대학교 가서 뭘 공부할 거야?"

"국문학과요."

저는 이 대답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이 한글에 그 정도로 관심이 클 줄은 몰랐거든요. 전에 우리글을 배우는 곳이 국문학과라고 일러주었더니 용케 잊지 않고 있다가 대답을 하더군요. 대학교 탐방을 하면서 청년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청년이 정말 우리말과 우리글을 배울 날이 올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해 봅니다.

어머니와 지게

권 택 환

아버지 산소 앞에 가시밭을 피눈물로 일구신 우리 어머니, 배가 고파 우는 자식들 고구마 하나씩 던져 주고 밭에 가시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하며 농사일에 허덕이시던 어머니, 12살 어린 나이에 가난한 맏며느리로 시집와 농사일, 집안일에 숨 쉴 틈도 없는 시간에 손, 발,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죽도록 일만 하셨네.

지게를 보니 평생 짐을 진 어머니의 삶에 고단한 인생이 그려져 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7남매가 남았다. 많은 식솔들이 먹고살려면 산골짜기 비탈이라도 개간해야 했다. 할아버지, 아버지 산소 앞에 가시밭을 일구다보니 200평이 될까 말까 한 밭이 두 개가 되었다. 말이 좋아 밭이지 자갈과 가시나무 뿌리투성이다.

어머니와 7남매들에게 목숨 줄과 같기에 어머니는 기름진 땅으로 여기며 농사를 지었다. 봄이 오기도 전에 땅을 파헤치고 씨앗 뿌릴 준비를 한다. 그 자갈밭을 만드시고 밭으로 가는 날이 잦아졌다. 집에 있는 날보다는 산골짜기가 편한지, 어머니는 매일 지게를 짊어 지시고 밭에 가셨다.

어머니의 지게는 유난스레 높았다. 아버지가 짐을 많이 싣기 위해, 지

겟가지 중간을 가로지르는 양쪽으로 다른 막대를 덧대 묶어 높이를 더해 만들어 쓰시던 것이다.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으면 베어놓은 보리와 밀이 비에 젖을세라 꼭두새벽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집과 밭을 오갔다. 멀리서 보면,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보리이삭이 공중에 뜬 채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산을 두 개나 넘고 개울을 세 개나 건너야 밭에 닿을 수 있었다. 밭에 가는 길은 오르막이라서 숨이 턱에 닿아 입에서 단내가 났고, 집으로 오는 길은 내리막이라서 산짐승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후르르 뛰어 내려왔다. 빈 몸으로 다니기에도 힘든 길이었다. 그런 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후들후들 다리를 떨던 어머니가 잠시 쉴 때는 지게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겟작대기로 받쳐 놓고 쉬기도 했다.

어머니는 비가 오는 날이면 창고 앞에서 지게를 고치곤 했다. 어머니의 손재주는 지극히 못났다. 나도 어머니를 닮아 만들고 고치는 데는 손재주가 영 빵점이다.

지게처럼 오직 우직하게 살아온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묵묵하게 삶을 지탱하는 내 어머니, 어머니는 농사일밖에 몰랐다. 땀에 젖은 삼베적삼에 밭을 일구고, 동이 트면 아침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오듯, 자고새고 하는 일이 지겹지도 않은지 땡볕에서 죽어라 일만 하셨다. 밤이면 끙끙 앓아도 날이 밝으면 밭에 나가는 일벌레가 따로 없었다. 오직 땅만 아는 농사꾼처럼 땅 한 뙈기 늘이는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다. 그런 어머니는 일을 놓으면 밥숟가락을 놓는 것과 같다고 여기셨는지도 모른다.

누가 양반집에서 여자의 몸으로 지게질을 한단 말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날 때 지겟작대기는 요긴했다. 지겟작대기 끝이 땅에 쏙 들어

가라고 어머니는 작대기에 힘주어 꽂았다. 그런 다음 한 손으로 지겟작대기를 짚고 한 손으로는 지게 목발을 잡고 무릎을 천천히 세웠다. 비탈진 길에서는 지겟작대기로 지탱하며 한 발 두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발이 부르트고, 다리가 아파도 묵묵히 버틴 어머니에게 지게와 작대기는 한 몸이었다.

어머니는 새벽이슬을 맞으며 길도 아닌 비탈 섶을 넘나들었다. 지겟작대기 끝으로 땅을 짚으며 산속을 발걸음으로 사각사각 깨워가던 길. 어머니의 발바닥에 굳은살을 덧대게 한 그 길엔 이제 울창 숲이 우거져 있으리라. 산골짜기 하나를 길게 차지했던 밭은 어머니의 부재를 알까. 여름이면 어김없이 보리꽃을 피우는지 궁금하다.

가끔 지겟작대기가 마당에 있으면, 우리 남매들은 그것으로 마당에 금을 그었다. 땅따먹기를 할 때 몸을 구부리지 않고 금을 그을 수 있었다. 지겟작대기로 그은 금은 밟아도 여간해서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었다. 뒷밭에 독사라도 나오면, 화들짝 놀란 어머니는 김을 매다가도 지겟작대기를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창처럼 뾰족한 지겟작대기에게 죽임을 당한 독사는 개울가에 있는 가시나무에 연 꼬리처럼 걸리기도 했다.

'삶을 배우는 데 평생이 걸리고, 죽음을 배우는 데도 그만큼 걸린다'고 한다. 사람은 늙어야 많은 것이 보인다는 선인들의 말씀이 있듯, 머리에 서리가 하얗게 내리고 나서야 어머니를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었다. 어리석은 이 아들은 어머니 마음을 그때는 몰랐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 이제 알겠다.

어머니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장녀이었으며, 한 남자의 부인이었고, 여러 식솔을 거느린 가장 노릇을 했다. 마을에서는 척박한 땅을

억척같이 일궈 옥토로 바꾼 농사꾼이었다.

어머니도 어머니이기 전에 평범한 여자였다. 누구에게나 청춘은 소낙비 지나가듯 가버리는 것이고 보면, 아무리 바동거려도 살림에 주름이 펴지지 않으면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겠는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었을 것이며, 봄이면 꽃구경, 가을이면 단풍 구경 가고 싶어 했을 것이다. 적당히 일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삼불주의三不主義를 지켰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그러고 보면 어머니는 자식들 위해서 어떠한 일도 뿌리쳤을 것이다.

철부지 때는 지게를 지고 다니는 어머니를 보고도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내 삶에 있어 이러한 기억의 비밀의 유산이 아니었을까 싶다. 살면서 힘든 일에 부닥쳐도 옛 그림을 떠올리며 거뜬히 견뎌낼 수 있었다.

지게를 가만히 바라본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게를 보면서 기억을 다시 쓴다. 아득한 풍경이 연막처럼 퍼지다가 복통처럼 가슴을 내리누른다. 어머니의 삶이 납덩이같이 머릿속에 남아 무거운 공기를 타고 서서히 퍼진다. 평평한 일상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벼랑에서 피운 삶. 비탈길을 오르고 아찔한 낭떠러지 옆을 조심스레 걸어온 어머니의 삶이 묵묵하게 오직 자식 위해 한평생을 바친 눈물로 세월을 보낸 우리 어머니 어느 누가 아낙네가 지게질을 한단 말인가. 그렇게 죽어라 일만 하셔도 7남매 자식들 배불리 먹이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옷 하나도 사 주지 못하였다.

무거운 짐을 지게에 지고 비탈길을 내려오시다 넘어져 골반을 다쳐 3년을 누워 계시다 욕창이 여러 곳에 생겨 고통과 신음 속에 살다 가신 불쌍한 우리 어머니. 못난 자식이 어머니만큼 나이를 먹어 이제 어머니

마음을 알겠으니….

어머니 무덤 앞에서 엎드려 통곡해도 소용없고 눈물로 용서를 빕니다.

"어머니! 그곳에서 이 못난 자식 흰지팡이 짚고 다니는 것 보시고 가슴 아파 우시나요" "어머니! 이 못난 자식도 이젠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고 있잖아요. '모정의 세월' 노래는 그만 부르세요."

오늘 어머니의 삶을 다시 돌아본다. 어린 시절의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보는데, 어머니 산소 앞에서 어머니의 거친 신음이 들려온다. 꾸다 만 꿈처럼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는…. 꿈을 꾸며 어머니를 잡아보려 해도 잡히지 않는 고통과 눈물로 살다 가신 우리 어머니 마실 가셨나요? 여행 가셨나요? 돌아오지 않는 우리 어머니 이젠 내가 어머니 찾으러 갈 때가 되었나 봐요.

그들의 오누이로 산다는 건

김 미 나

활동보조사 교육을 받기 위해 장애인 활동센터를 방문하였다. 지나가던 복도에 붙은 파란색 포스터들 사이로 노란색 작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띄었다. 봄바람에 작게 흔들리는 민들레처럼 포스터 끝이 살짝 흔들렸다. 그 수줍은 흔들림을 누가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그렇게 문학상 공모전을 보게 되었고 자연스레 난 노트북 앞에 앉아 나의 옛날이야기를 꺼내어 쓰기 시작하였다.

장애인들과 제일 가까우면서도 그들의 부모와는 또 다른 그들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장애인들의 형제자매들이라…. 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도 어쩌면 생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다. 그들은 부모라는 장애인 보호자들의 슬픔과 고통,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과 차별을 바라보면서 한 명의 사회인으로 자라나야 되는 자들이다.

그들이 한 명의 사회인으로 크는 과정은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지만 속은 아니다. 계속된 가치관과 사상, 인식들 간의 충돌과 이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고 그 속에서 나름의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마치 휘몰아치는 폭풍우와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잡으며 떠있어야 되는 작은 배와 같다.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 자리에서 안 뒤집어지는 것만으로 다

행인 것이다. 물론 이 혼돈 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폭풍우와 파도를 안 만나려면 배를 타지 않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가족인 그들을 마음속에서 배척하면 된다. 허나 이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가장 소중한 존재들을 외면한다는 건 말만 쉬울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필자 또한 가족과 함께 고통을 공유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 자녀를 기르는 건 사람의 힘으로 견뎌내기 너무 힘든 일이다. 그래서 실제로 내 동생과 같은 아이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 천형天刑. 하늘이 준 벌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그만큼 고통스럽고 인간으로 버티기 힘든, 결국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는 말을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 싶다.

내 동생의 경우 어머니의 헌신을 넘어선 노력으로 아직 장애인돌봄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일상생활을 함께하고 있다. 의사선생님들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성공사례라면서 좋아하신다. 좋은 일이긴 하다. 하지만 그 기적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다. 저울처럼 세상은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위해 정신적으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었고, 신체적으로는 질병을 주었다. 보통의 사람들도 살아가기 힘든 이 험난한 세상에 천사같이 순수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만으로는 안 된다. 가족 내에서도 사회에서도 각각 2~3명이 함께하여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한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도 한 명의 사람이며, 한 명의 남자이고 여자이다. 하지만 우린 그 사실을 자주 잊고 산다. 초인이 되길 원한다.

장애인들의 오누이인 나 또한 내 동생이 어느 정도 안정을 가지고 성인이 되기까지 내 자신이란 존재가 없이 살았었다.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랑은 받을 수가 없다.

장애를 가진 오누이들에게 보다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기에 양보를 해야 되었다. 내가 받았던 사랑이 필요하면 주어야 되었다. 아쉽지도 화가 나지도 않는다. 나보다 힘들 오누이를 생각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나누어 갖는 것이 미안해질 때도 있었다. 나한테는 남들과 똑같은 사랑스런 형제자매들인데….

사회는 그들을 장애인이라 비웃었다. 손가락질하며 바보라고 놀렸다. 조금이라도 상태가 나아지기 위해 내 오누이들이 하는 여러 치료들 중에는 치료자들의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약에,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하는 사람도 보았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충분하였다. 물론 자신을 헌신하면서까지 내 동생 치료에 온 정성을 쏟으시는 분들도 뵈었다. 하지만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이 많았기에 그 어린 마음에도 가족들을 괴롭게 한 타인과 사회에 분노가 차오르는 건 이상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부정적인 존재인 타인과 그들과 생활해야 되는 시궁창 같은 사회 속에서 그들에 대한 분노를 숨기면서 평범한 척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건 앞서 말한 것처럼 선한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존경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극소수였기에 기도문의 한 구절처럼 계속 그분들을 되뇌며 잊지 않고 살아야 하였다.

그때보다 나이가 들었고 그 나이 속에서 겪었던 사회생활이 어느 순간 어릴 때 겪었던 예전 사회모습과 겹치게 되면서 나라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구도는 자연스럽게 허물어졌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었다. 지금에 오기까지 마음을 터놓은 몇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인 사고나 행동과는 많이 달라서 처음에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하였다.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은 하지 말라고 그런 습관도 고

쳐야 된다고 말해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런 성향인지는 그들에게서 듣기 전까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헌신(?)행동들에 대해 옆에서 틈틈이 지적해주기도 하였다.

어머니께서는 상담해주시는 의사선생님께서 '발달장애인의 형재자매들은 사회화과정이 10년 정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사회에 섞여 사는 것이 조금 늦어지지만 그만큼 다른 강점이 생겨 잘 살게 된다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많이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인생사 대부분이 그렇지만 정말 '시간이 약'이었다. 어릴 적 항상 울고 있는 나를 만난다면, 나와 같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말해줄 거다. '지금은 괴롭고 이 괴로움이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에 절망이 가득하겠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지금의 괴로움을 버티다 보면 언젠간 울음보다는 웃음과 미소를 띄우며 살게 될 날이 다가올 거야'라고.

그리고 발달장애를 가진 오누이들에 대해 나와 다름을 인정하라고 꼭 말하고 싶다. 나 또한 이를 인정하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인정하지 않고 나와 같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아이들한테 비일상적인 것에 대해 일상적이길 바라는 것이기에 발달장애 아이들을 힘들게 할 뿐인 것이며, 이를 지켜보는 당사자들은 더 고통스러워하다가 힘들어 지치게 된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체계가 다르니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때는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

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하고 그들에게 상담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예전에 내 동생이 매우 슬퍼하면서 뛰어가다가 전혀 모르는 여성분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울먹이며 한참을 그 여성분을 쳐다보았었다. 일반적인 입장으로 보면 성추행 같은 매우 불편한 상황이고, 내 동생이 잘못한 상황이다(물론 그 당시에는 여성분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동생의 행동에 대해 매우 혼냈었다). 하지만 정신의학과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내 동생과 같은 발달장애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매우 슬퍼서 가슴이 아파, 너도 나의 슬픔이 느껴지지, 난 너무 슬퍼.'라고 말한 것뿐이다. 내가 내 동생이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았었다면 동생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슬프다는 것은 인지하지도 못한 내, 그저 동생의 이상행동에 대해서만 다그치며 혼만 냈을 것이다. 안 그래도 스스로를 고립하는 발달장애인데, 자신의 슬픈 감정을 표현한 것이 혼날 일이라면 다음에도 감정을 표현하려고 할까? 그리고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표현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질문에 답은 모두 알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진 내 오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나와 그들이 다르며, 그 다름을 인식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게 아니라면 그건 당신들의 욕심일 뿐이다.

그리고 이와 달리 혹여 장애인 오누이들을 짐처럼 느끼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장애를 가진 오누이들이 당신들의 인생과 인성의 스승님이니 잘 모시고 다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내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쓰러워하시고 많이 힘들겠다고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 동생이 내 스승님이라 제가 많이 배우고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는 사실이기에 꼭 전하고 싶다.

장애아이들의 부모님이자 나의 부모님 같은 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보살핀다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순간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지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지치고 힘들어서 병을 얻고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돌발적인 사고로 아이들이 일찍 하늘나라로 가게 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마지막도 돌봐줄 수 있음에 당신들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집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의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두고 그 슬픔에 술을 드시고 극심한 우울증과 죄책감에 사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녹아내려 넝마가 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손쓸 수 없는 현실에 맞닿게 된 그 마음을 다독여줄 사회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것…. 그저 종교 속 신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많이 슬펐습니다. 부모님들… 천사 같은 아이들도 소중하지만 그 전에 부모님들께서도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이기에 스스로를 더 위해주시고 틈틈이 상처나고 해어진 마음을 스스로 잘 꿰매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예전 동생의 통학 때문에 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자주 갔었고, 소문이 나서 장애아이와 일반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께서 찾아오신 적이 있었다.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분의 표정이 기억날 정도로 너무 간절하고 애절한 얼굴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혹시 대답해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레 말씀하셨었다. "장애를 가진 아이의 동생

이 있는데 그 아이는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면서 잡으셨던 손은 마치 낭떠러지 절벽에서 잡은 하나의 동아줄 같았다. 제가 걸었던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잠시 생각을 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 생애 있어서 제일 입술이 무겁게 느껴진 순간이었다.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그 아이는 저처럼 잘 클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20년이 지났지만 전 이 말을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오누이들을 기르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다시 이야기드리고 싶다.

소록도 잉꼬 노부부와의 만남

김 미 정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과 함께 지난주 동남아로 단기선교 여행을 다녀왔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담당하는 교회였다. 그곳에서 주민 및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니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훌쩍 떠났던 뜻깊은 추억 여행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쳤다.

남편을 옆자리에 태우고 한걸음에 달려간 곳은 전남 고흥군의 최남단 녹동선착장이었다. 그곳에서 손에 잡힐 듯 바다 건너편으로 빤히 바라다보이는 섬이 소록도라는 사실에 남편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남편이 흥분하면서까지 소록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러했다.

고등학교 졸업식 당시, 지인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는데 '성다미엔' 신부님의 전기문이었다. 그 전기문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읽는 동안 남편은 중도에서 도저히 책장을 덮을 수가 없었다. 신부님의 숭고한 신앙적 가치관에 큰 감동을 받은 남편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미국 몰로카이 섬에서 한센병 환자들과 부대끼며 한평생을 살아가는 신부님의 삶을 접하면서 같은 크리스천인 남편은 너무나도 부

끄러웠단다. 감동의 여운이 좀처럼 가시지 않아 이모저모로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에도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라는 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남편은 언젠가는 그 소록도를 직접 방문하여 그분들의 삶을 직접 엿보고 싶었다. 나아가 만약 소록도에다 직장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그분들과 정 나누며 살고 싶었다.

그러나 지체 1급의 중증 장애인의 몸으로는 결코 녹록지 않다는 현실을 깨달았고 비록 소록도가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곳이라면 그곳으로 찾아가서 성 다미엔 신부님의 가치관을 조금이라도 흉내 내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경상북도 고향집 부모 형제를 떠나 한걸음에 달려간 곳이 사고무친한 전라남도의 항구도시인 목포였다. 처음에는 목포 근교의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중증 장애 아이들과 부대끼며 몇 년간 청춘을 바치다가 이어서 서남해안 끄트머리에 위치한 외딴 섬마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명찰을 달고서 섬 주민들에게 공복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남편의 뇌리 속에는 소록도가 잊히지 않았다.

한 해가 끝나가던 그해 겨울, 마음속으로만 줄곧 품고 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작정하고서 나에게 소록도행을 제안했다. 느닷없는 남편의 제안에 나는 한센병 환자가 거주하는 곳이라는 선입감에 별로 달갑지 않았다. 하지만 끈질긴 남편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나도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요즘은 소록대교가 완공되어서 승용차로 출입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철부선을 이용해야만 출입이 가능했다. 녹동선착장에서 출발하는 철부선에 승용차와 함께 올랐고 소록도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남편은 마치 인류가 달에 첫발을 내딛는 것처럼 감격했다. 청소년기부터 줄곧

벼르고 갈망하던 소록도를 방문한 것이 꿈만 같은 모양이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소록도 중앙으로 이어진 도로를 따라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니 도로변으로 띄엄띄엄 눈에 띄는 한센병 환자들의 살림집들이 눈에 띄었다. 중앙도로의 맨 끝자락에 위치한 바닷가에 도착하여 먼발치로 펼쳐진 그림 같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 옛날 일제 강점기 시절, 인권이 박탈되고 자유가 억압받을 때 한센병 환자들이 하염없이 바라보았을 풍경이라고 생각하니 나 자신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다시 승용차를 되돌려 마을길로 접어드는데 차창 앞으로 보행기를 앞세운 채 산책하는 어르신을 만났다. 남편은 승용차에 내려서 처음으로 소록도에 들른 방문객이라고 소개하며 통성명을 하게 되었다. 당신은 소록도 교회의 장로로서 경남 밀양 출신이고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이곳에서 줄곧 거주하고 계신다고 소개했다. 당신이 장로님이라는 말에 남편은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마주 보며 찬송가를 합창했다. 이어서 어르신께서는 당신 댁으로 초대했고 뒤따라갔더니 어르신 댁에는 부인(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셨다. 먼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의 안내로 안방과 주방까지 둘러보았다.

육지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작정 찾아온 철딱서니가 없는 우리 부부에게 할머니는 조금의 경계심도 없이 살갑게 대해주셨다. 그리고 어르신과 할머니께서는 현관 앞 소파에 나란히 앉아 우리 부부가 보란 듯이 살가운 애정표현을 스스럼없이 감행하셨다. 이와 같은 노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별것도 아닌 일로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티격태격 싸움을 일삼는 우리 부부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

노부부의 아름다운 부부금슬에 매료되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머뭇거리다가 육지행 막배 시간이 촉박함을 인식하고 허둥지둥 작별 인사를 고하려고 했다. 그때 인정 많은 할머니께서는 빈손으로 보내기가 서운했던지 마당 텃밭에서 재배하고 있던 상추들을 비닐봉지에다 바리바리 챙겨주셨다. 마치 친정을 찾은 딸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친정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찾아뵙겠다는 기약 없는 작별인사를 남기고 대문간을 나서는데 노부부는 아쉬운 표정으로 오랫동안 손을 흔들고 계셨다.

남편의 직장인 섬마을로 되돌아와서도 소록도에서 만난 잉꼬 노부부와의 추억은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명찰을 단 남편은 성치 않은 몸으로 갯마을 곳곳을 뒤뚱뒤뚱 누비면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복지대상자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더욱 열심히 공복의 노릇을 감당했다.

돌이켜 보면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또 남편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버린 '성 다미엔 신부님'과 소록도에서 만난 '잉꼬 노부부'야 말로 남편에게는 물론 내 삶의 롤 모델이고 길잡이로 영원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로등 켜지는 밤

김 영 민

어두운 저녁, 해가 지고 나면 세상은 서서히 고요해진다. 붉었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 순간, 거리의 가로등들이 차례로 켜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하나의 불빛이 깜박이며 어둠을 뚫고 나오고, 그다음에는 연이어 가로등들이 불을 밝히며 길을 비춘다. 마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한 모습이다.

새벽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은 희미한 노란빛을 뿜어내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그 존재는 마치 나의 하루를 암시하는 듯 오늘은 그 희미한 빛처럼 불안정하고, 때로는 희망에 찬 빛을 뿜어낼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잠에서 깨어나 커튼을 젖히자, 가로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어둠을 밝히는 그 묵묵한 존재는, 나에게 작은 위로를 주는 듯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시간. 낮의 소란함이 잦아들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가로등이 조용히 불을 밝힌다.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골목길도 한산해진다. 이제 남은 것은 가로등뿐. 낮에는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던 그 빛이, 밤이 되자 가장 선명하게 다가온다.

가로등이 켜지는 순간, 나는 그 빛이 주는 따뜻함을 느낀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그 따스함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포근하다. 어둠 속에서 길을 걷는 이들에게 가로등은 단순한 조명이 아닌, 안전과 안도의 상징으로 다가온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골목길의 끝자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가로등의 불빛은 나를 한층 더 안심하게 만든다.

오늘 하루도, 가로등처럼 묵묵히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하루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까 봐 두려웠다.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창밖의 가로등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는 햇살에 빛이 희미해져 거의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던 가로등은, 밝은 햇살 아래서는 그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마치 나의 불안감처럼. 햇살이 밝게 비추는 세상 속에서, 나의 불안감은 점점 작아지는 듯했다.

가로등과 마주한 하루의 끝은 유난히 쓸쓸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하다. 온종일 쉼 없이 흘러갔던 시간이 이제야 잠시 멈춘 듯한 느낌. 고요한 길 위에서, 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본다. 아침에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 낮에는 무엇을 고민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나는 여러 생각에 잠긴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상상해 본다. 각자의 이야기와 고민을 안고 이 길을 걷는 그들. 가로등의 빛은 그들에게도 잠시의 위안이 되고,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다. 그 불빛이 비치는 곳마다 수많은 사연이 얽혀 있을 것이고, 그 모든 이야기

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 가로등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는 듯했다. 마치 내 삶의 이정표처럼. 가로등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존재였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가로등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의 햇살 아래서 가로등은 더욱 희미해 보였다. 하지만 그 희미한 빛조차도, 나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다. 오늘 하루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어린 시절, 나는 이 가로등 아래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곤 했다. 그때의 기억은 언제나 생생하다. 뛰어놀고, 소리 지르며 웃던 나와 친구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가로등은 마치 우리의 행복을 지켜보는 듯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었지만, 가로등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가로등이 없었다면, 내 어린 시절의 그 밝은 기억들도 아마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가로등이 켜지는 밤, 나는 나의 이야기를 되새기곤 한다. 수많은 순간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대화, 이별의 아픔,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 그 모든 순간이 가로등의 빛 아래에서 펼쳐졌고, 그 빛은 나를 지켜주었다. 가로등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함께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로등은 그저 빛을 제공하는 존재만은 아니다. 때로는 그 빛이 내 마음의 어둠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힘든 하루를 마

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의 불빛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나는 마음속에 쌓인 고민과 걱정을 털어낼 수 있었다. 그 불빛이 나에게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듯했다.

나는 그 불빛을 따라 걸으며 내 삶의 방향을 찾아간다.

이제는 가로등이 켜지는 밤을 단순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불빛 아래에서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가로등이 비추는 길은 나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길임을 깨닫게 된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느끼며, 그 불빛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길가에 선 가로등은 말없이 나를 비춘다. 그 빛 아래 서면, 나도 가만히 숨을 고르게 된다. 낮 동안 바삐 걸었던 발걸음도,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생각들도 잠시 내려놓는다. 누군가는 집으로 서둘러 가고, 누군가는 멀리서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에 앉아 쉬고 있다. 나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들이 저 불빛 아래에 함께 있는 것이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은 여전히 희미한 노란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오늘 하루도, 가로등처럼 묵묵히 살아왔고, 내일도 가로등처럼 묵묵히 살아갈까? 삶의 이정표였다. 가로등과 마주한 하루는,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삶의 의미, 희망,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도, 가로등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가로등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가로등이 내뿜는 빛은 강렬하지 않다. 그러나 그 은은함 속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낀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고, 이 시간이 완전한

고독이 아니라는 듯 조용히 곁을 지킨다. 지나가는 이들에게는 그냥 흔한 불빛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친 하루 끝에 가로등을 마주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작은 위로가 된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한다.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 기쁜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있었을 것이다. 때로는 기대만큼 되지 않아 속상하기도 했고, 때로는 뜻밖의 작은 행복이 찾아와 미소 짓기도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지금, 나는 가로등과 마주한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조용한 밤거리에서 가로등 아래 멈춰 선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저 빛이 나를 비춰주듯, 나도 나 자신을 다독여 본다.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내일도 또 이 길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가로등과 마주한 하루의 끝은 그렇게 차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마무리된다.

우리들의 패드 야트라Pad Yatra

김 영 욱

엄마의 발바닥을 꾹꾹 누른다. 어디가 정확한 지압점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엄지발가락은 머리, 옴폭 팬 곳은 위장을 비롯한 각종 장기에 연결된 반사구라는 인터넷 그림을 믿고서 발 마사지를 해드린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뒤뚱거리는 엄마는 젊은 시절에도 심한 오다리였다. 그런 분이 연세까지 들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니 바깥쪽으로 휜 다리 각도는 점점 더 벌어졌다. 팔순 가까운 연세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려고 몇 해 전엔 수술 날짜까지 받아두었지만, 결국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셨고….

수술 이후 재활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친 어르신들이 산책을 즐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난다. 수술 전날에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심장에 스텐트를 박아 넣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던 엄마답지 않게 목소리가 떨렸다. 주위에서 수술 후유증으로 되레 고생하게 된 지인분들 사례를 들어가며, 그런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라고 수술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를 해명했다. 난 잠자코 듣고 있다가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했다.

언젠가부터 맨발로 숲길을 걷는 분들이 왕왕 눈에 들어왔다. 마사이족이 신는다는 신발을 흉내 낸 워킹화가 유행하던 시절도 그리 오래되

지 않았건만, 100세 장수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들은 이제 신발도 양말도 다 벗어 던지고 맨발로 흙길을 걸어 다닌다. 한동안 난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자잘한 나뭇가지나 뾰족한 돌부리, 혹은 유리 조각 등에 베여 파상풍이라도 앓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되었다. 하기는 이족보행을 하는 우리 호모 에렉투스들이 제 발을 보호할 목적으로 신발을 신고 다닌 역사도 고작해야 반만년쯤이나 될까? 요즈음도 밀림이나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맨발로 나무를 타거나 사냥감을 찾으러 나선다는데, 각종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접한 그들에겐 오히려 그러는 편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땅에 닿는 발바닥 면이 크면 클수록 각 부위에 상응하는 우리 몸의 여러 신경과 혈관을 많이 자극해 전신으로 흐르는 혈류까지 원활하게 해준다는 것이 최근 자연 치료법으로 등장한 '어싱earthing'이다. 매일 꾸준하게 맨발로 걸었더니, 혈압과 당뇨에서 해방되었다는 임상 성공자들의 사례들이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너도 나도 맨발의 청춘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하긴 한여름 뜨거운 모래사장에서 맨발을 지지면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을 죽여 없앨 수 있다는 민간요법은 오래전부터 내려왔었다. 하물며 살얼음이 낀 겨울철 흙길을 발가락이 얼얼해질 정도로 걷노라면 시나브로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온몸이 후끈해지더라는 경험담까지 무시로 들려온다. 하지만 일군의 의학자들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어싱 열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각별히 허리 통증이 심각한 분이라면 몸의 하중을 전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발바닥의 입장에서 신발을 신는 것과 벗는 것 중 어느 쪽이 스트레스가 심할지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유난스레 내 기억에 남아 있는 발들이 있다. 발레리나 강수진 님의

토슈즈 안에서 물집이 잡히고 뒤틀어진 발이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족을 한 여인이 마침내 드러내 보인 도무지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던 기형적인 발이다. 우리말에도 '발이 묶였다'는 표현이 있듯이, 여인의 발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작은 신발 속에 욱여넣는 행위는 그녀에게 주어진 제 삶의 운명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던 전근대 가부장제의 소산이다. 그렇다면 발 닿는 곳마다 새로운 것투성인 세상에서 하이힐에 길들여진 근대 여성들의 발은 또한 어떠한가? 기실 아이가 태어날 때 오므려 있던 발은 쪼글쪼글하다. 엄마들은 그 작은 발에 열 개의 발가락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제 가슴을 조이면서 살핀다. 내 엄마도 그랬을 것이다.

이제 팔순을 훌쩍 넘긴 내 엄마의 발바닥을 주무르고 있다 보면, 엄마가 지금까지 다녔을 길들이 몇 십조분의 일로 압축되어 담겨 있는 지형도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다. '패드 야트라Pad Yatra!' 이는 발의 여정이란 뜻이다. 티베트 불교의 한 종파인 두룩파 승려들이 설산을 넘던 순례 여행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고맙게도, 몇 해 전 국내 모 공영방송에서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사는 열여섯 살 소녀 왕모의 실제 출가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보여 주었다. 어린 그녀의 패드 야트라는 인도 최북단 라다크 지역과 히말라야산맥을 보름이 조금 넘는 기간에 200km를 걸으며 관통하는 혹독한 순례였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얼음판 위를 오체투지로 지나는 순례길에 어떤 수행자는 기절을 했지만, 왕모는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기어서라도 가고 있었다. 마음이 아렸다.

제작팀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순례의 길이고 우리 모두 그 길을 걷는 순례자"라는 메시지를 시청자에게 전달해 주려고 프로그램

을 제작했다지만, 겨울 설산을 넘어 마지막 초모리리 호수에 도착한 장면에서 나는 바리공주의 현신現身을 보는 것만 같았다. 더없이 궁핍한 살림살이에서 제 한 몸이라도 승려가 되어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려던 왕모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 오구대왕을 살릴 약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저승 여행을 떠났던 우리 신화 속 여주인공 바리데기였다.

지금도 눈을 감고 있으면, 라다크의 황량한 벌판을 순례하는 한 무리의 앳된 출가자들이 오체투지를 하는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치열하게 차가운 살얼음판을 끝까지 버텨내야 하는 순례길에서 왕모와 같은 어린 출가자들의 손과 발엔 하나같이 엉성하게 만들어진 흙바닥 디딤판이 매달려 있었다. 겨우 그런 나무 판대기에 의지해, 우선 먼저 얼어붙은 땅에 이마를 닿을락 말락 갖다 대고, 두 손바닥을 쫙 펼치며 온몸을 자빠뜨려 가면서 맨바닥을 기어가는 고행이라니! 나는 무거운 무쇠 신발을 신은 바리의 혹독한 여정처럼 왕모의 앞에 남아 있는 순례길 역시도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생중사生中死의 좁고 험한 길의 연속이리라 함부로 예측해 봤다.

엄마의 발을 주무르고 있으면, 발에서도 나름의 표정이 보인다. 오른발과 왼발의 온도와 느낌부터 사뭇 다르다. 오래전 새댁이었던 엄마는 맏딸인 나를 배고 한복과 고무신 차림을 한 채, 시골 산길 30리를 걸어 증조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갔다 했다. 너무나도 무더운 여름인데, 옥죄어오는 외씨버선 탓에 발등까지 땀이 차올랐다고, 그때를 혀를 끌끌 차며 회상했다. 그 바람에 무좀이 생겼다는 엄마의 오른쪽 발에는 기억보다 질긴 흔적이 남아 있다.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여전히 발꿈치는 갈라져 있고 발바닥에는 언제나 마른 살갗이 일어나 있었다. 솔직히 그런 발을 처음 만져야 했을 때, 내 손가락에 무좀이 옮는 건 아닐

지 의심하며, 주무르기 싫다는 말 대신에 온갖 핑계를 갖다 댔다.

엄마의 오른발 갈라진 뒤꿈치에 멘소래담 로션을 바르다 말고 또 다른 우리 신화 속의 여신을 떠올린다. 이번엔 제주 출신 자청비다. 그녀는 절세의 미인이지만, 그의 배필이 된 게으른 문도령의 어머니는 자청비가 맨발로 작두칼에 올라 걷게 한다. 유감스럽게도 시험을 무사히 마칠 줄 알았던 자청비는 작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오던 순간 뒤꿈치를 베이고 마는데, 그 순간이 연상되면서 홧홧해진 엄마 발을 만지다 말고 내 입에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지금까지 엄마의 순례길에 될수록 자주 동행했지만, 마지막엔 결국 부축해 드리던 내 손마저 놓아야 할 걸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저릿하다.

돌이켜 보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 걷기 전의 기억이 별로 없다. 아기는 누워 있다가 우연히 앉게 되고, 혼자 앉을 줄 알게 된 뒤에는 기다가 일어서고, 그러다 마침내 걷고 뛰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그 곁에 엄마가 있었음을 기억해 낼 수는 없다. 발바닥을 간질일 때마다 꺄르르 웃던 어린 나는 요즘 들어 부쩍 웃음을 잃어버린 엄마의 발바닥을 간질여 보곤 한다. 하지만 엄마의 반응은 느릿하다. 이제라도 엄마 발의 표정까지 기억해 두려 애쓰고는 있지만, 가능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먼 훗날 엄마가 지상에서의 순례를 마치고 홀로 서천꽃밭을 걸어가야 할 날이 오게 되면, 부디 지금처럼 뒤뚱거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기어이 눈에서 한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멘소래담 로션 탓을 댔지만, 아무리 주물러도 엄마의 발바닥과 발가락에서 전에 없던 차가운 기운이 느껴진 까닭이다.

옆에 계셔도 그리운 이름, 엄마

김 은 주

우리 세 자매는 졸업한 학교가 전부 다르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엄마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 다행히도 초등학교는 동네에 하나밖에 없기에 제일 높은 학년인 나한테만 전달하시면 해결되었다. 문제는 중·고등학교였다. 같은 은평구지만 비 오는 날은 더 멀게만 느껴진다. 배달하시는 엄마나 기다리는 딸들이나 매한가지다.

중2였던 때로 기억한다. 장마철이었는지 5교시가 끝나기도 전에 빗줄기가 창문을 성급하게 두들긴다. 6교시였던 날인지라 5교시 마침종이 울리자 이미 내 마음은 옥상 매점 옆 공중전화에 가 있다. 선생님과의 인사가 끝나고 공중전화로 달음박질. 손에는 동전 두 개를 쥐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만원이다. 우산을 안 챙긴 학생이 나 하나가 아닌 이유이다. 전화를 안 해도 시간표 보시고 마중 나오시겠지만 동생과 겹치면 곤란해지실 테니까 나름의 배려였다. 엄마는 늦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현관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아졌다. 비가 오면 신발이 젖고 마음의 여유도 없으셨겠지만 그런 것을 감수해낼 만큼 엄마의 사랑은 크고 따뜻했다.

그날은 낡은 운동화 대신 반짝반짝 빛나는 새 운동화를 사러 가는 날이었다. 또각또각 청명한 소리의 뾰족구두가 어울릴 스무 살이지만 해 줄 수 없으셨던 엄마는 낡은 운동화를 알아차리는 것에는 재빠르셨

다. 백화점의 신발코너로 내 손을 이끄신 엄마는 예쁜 여자운동화 점포를 지나 투박하고 어두운 기운이 감도는 남자운동화의 큰 사이즈에서 머뭇거리신다. 점원은 이상한 듯이 엄마와 엄마 눈길의 신발을 번갈아 보기 시작한다. 마침내 운동화 한 켤레를 집어 드시고는 "265 보여주세요." 하신다. 그 점원은 신발을 가져왔고 엄마는 나를 의자에 앉히시고는 신겨 볼 태세를 갖추신다. 신고 있던 신발이 벗겨지자 보조기가 드러나고 새 신발을 거침없이 신기신다. 그러나 새 신발은 거부하듯 내 발을-아니, 내 보조기를-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새 신발의 뒤축이 조금, 아주 조금 구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점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입을 열려 한다. 나는 적잖이 놀랐다. 아마도 아르바이트한 지 얼마 안 되는 점원이었던 모양이다. '분명 엄마께 한마디 할 텐데. 아픈 딸, 신발도 제대로 못 사주는구나.' 그 아픈 마음이 전해져 왔다. 나는 그 점원에게 눈짓을 하느라 눈에서 쥐가 날 정도였다. 결국 그 학생은 한마디 한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눈치 없기는. 그날 신발은 보란 듯이 그 옆 매장에서 구입했다. 소심한 복수로 마무리하자니 속상하긴 했다.

"엄마, 불이 안 켜져. 형광등이 나갔나?"

"할아버지가 두꺼비집을 내리셨나 보다. 아버지도, 참."

외할아버지는 지독하게 아끼셨다. 시골이라 어둠이 일찍 침범하여 습관처럼 스위치를 눌렀던 것인데 생각처럼 환한 빛은 나오지 않았다. '죽어서도 가져가지 못할 돈, 쓰지 못하고 어떻게 죽으려고' 하며 걱정 아닌 걱정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은 내가 입원하고 나서 쏙 들어가 버렸다.

난 중2 겨울방학 때 겁을 상실한 두통이란 놈에게 무참하게 당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뇌출혈의 전조증상이었다. 부모님

께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다 뒤졌지만 손을 잡아주는 곳은 없었다. 아버지의 눈물겨운 호소로 겨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검사와 입원을 할 수 있었다. 만 열다섯이면 소아에 속했다. 결국 어린이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하고 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외할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지리도 잘 모르시는 서울 초행길을 감행하셨다고 한다. 손에는 아픈 손녀의 병원비에 보태려는 돈 몇 푼을 쥐시고. 결국 아끼고 아끼신 돈을 입원한 손녀를 위해 모두 올인 하신 것이다.

엄마의 사랑은 그러한 외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표현은 안 하시지만 속사랑이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다. 내리사랑을 그렇게 깨닫는다. 그 사랑, 나도 조금이나마 닮았기를 바라본다.

어느 날 엄마의 집에서 기다리란 말을 무시하고 길을 나섰다. 나름대로 엄마의 수고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안정을 포기했다. 결국 언덕에서 중심이 흩어진 나는 화단 쪽으로 머리를 파묻는다. 이마에선 피가 나고 안경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통 사람들은 넘어지는 등 실수를 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벌떡 일어난다. 그러나 나는 마음은 간절하나 그렇지 못한다. 오히려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처음에는 부끄러웠고 어색했으며 많이 망설였다. 도움을 청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내가 내밀기를 망설일 뿐 손을 잡아줄 이는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한 적도 없지는 않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추행을 하는 이상한 아저씨도 있었으니까 말이다.

"내가 집에 있으라 했지?"

날 발견하신 엄마는 괜찮으냐는 말 대신 다짜고짜 화부터 내신다.

그 앙칼진 목소리는 미안함의 정도를 말해준다.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서 표현이 서툴러진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다른 엄마들은 넘어져 다치면 걱정스런 표정으로 달래주는데 엄마는 화만 내신다.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삶의 고개를 하나 둘 넘어오면서 그것이 미안하다는 말이었고 가슴속에는 내 이마의 생채기보다 더 깊은 상처가 구덩이처럼 패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식이 아픈 것보다 더 속상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마음을 조금 깨달았을 뿐인데 부끄럽게도 눈물이 난다.

요즈음 슬픈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엄마가 부쩍 '웰다잉'에 대해 말씀을 자주 하시기 때문이다. 고희를 넘어서시면서 인생무상이라는 생각이 드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엄마 같은 인연이 나타날지 모르겠다. 내 엄마가 옆집 영희엄마가 아니고 뒷집 철수엄마가 아닌 바로 나의 엄마라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이다. 눈물겹도록 감사하다. 그 모습을 닮고 싶다.

앙증맞은 손과 발을 가진 꼬꼬마 슈퍼 히어로 문언 씨

김 정 란

앙증맞은 손과 발을 가진 꼬꼬마 슈퍼 히어로 문언 씨를 처음 만난 건 싸리눈이 내리는 2월 초 어느 날이었다. 본인의 체구보다 커 보이는 커다란 가방을 메고,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씩씩한 발걸음으로 들어온다. 연말 시상식에서 레드 카펫위를 걷는 연예인 느낌이 물씬 풍길 만큼 입장이 대범했다. 시설 이용인들의 반겨줌에 문언 씨는 어깨에 뽕이 세워진 듯 의기양양한 자세를 취하고 양손에는 V자 모양을 하고 미소를 지으며 입장하는 모습은 모든 이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 만든다.

자그마한 체구에 볼록한 배가 인상적이고 지적장애로 연령 만 58세이지만 3~4세 영유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첫 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모든 질문에 "네!~" 하이톤으로 대답을 곧잘 하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하고 시설 이곳저곳을 탐색하기 바쁘다. 어리둥절 어색함도 잠시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창밖을 보며 안절부절 기다리는 모습을 반복한다. 기다림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문언 씨 뭐 해요? 선생님 기다려요?" 라고 묻자 "네~"라고 큰 소리 대답한다. 쑥스러움에 눈을 피하듯 고개를 돌려 외면을 하고, 다시 고개를 돌려 사회재활교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행동을 보이고 교사가 "문언 씨 저 찾아요?"라고

묻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외면한다. 어린아이가 눈을 감으면 자신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문언 씨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같은 모습을 보였고, 입소 3일 차에 문언 씨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창밖을 바라보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안절부절못하며 불안한 듯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현저히 사라졌다. 문언 씨의 입소 후 패턴은 늘 정확하게도 동일했다. 입소 후 반갑게 인사를 하고 가방과 외투를 벗어 자리에 둔다. 본인만의 루틴이 있는 듯 가장 먼저 발 마사지를 위해 의자에 앉아 마사지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 마사지기를 어깨에 걸치고 마사지를 이어 한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있는다.

외부강사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언 씨가 건강체조 프로그램에서 흥이 넘치는 모습을 보인다. 음악에 따라 율동을 따라하는 모습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마냥 즐거워보이고 행복해 보인다. 옆자리에 앉아 드드렁~ 코를 고는 현규 씨를 손짓으로 가리킨다. "으으~ 자! 자!" 교사에게 말 안 듣고 잠을 자는 친구를 고자질이라도 하듯 해맑은 표정으로 말을 건넨다. 문언 씨가 미소를 지을 때면 눈가와 양쪽 볼에 고양이 수염처럼 주름이 생기며 함박 미소를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요가프로그램에서 남다른 유연성을 뽐낸다. 짧은 팔과 다리를 위아래 좌우로 올리고 움직임을 따라하며 동작 하나하나를 마스터 하기 위해 눈빛이 초롱초롱했다. 엎드린 자세를 하고 코브라 동작을 따라하다가 손짓하며 "봐 봐!~" 외치며 자랑을 한다.

난타프로그램이 시작되자 난타채를 양손에 쥐고 지휘자처럼 체를 했

는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다. 그리고 교사를 보고 이야기한다. 자신의 이마에 땀이 났다고 "으~으~ 땀! 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교사가 리액션을 취하며 "열심히 해서 땀 났네요~ 멋져요!" 외치며 "엄지척! " 해주자 씨익~ 미소를 지으며 웃는다.

적응기간이라 하기 무색할 정도로 시설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적응해 가는 모습이 대견스러울 따름이었다. 문언 씨에게 V를 하며, "엄지척~"이라고 손짓하며 칭찬을 해줄 때면 '난쟁이 허리춤 춤추듯'"이란 속담이 떠오른다. 난쟁이가 항상 바지 허리춤을 추켜올려 입듯 바지가 축~ 늘어져 내려가 있는 문언 씨는 칭찬을 해주면 습관처럼 바지의 허리춤을 올리며 으쓱한 표정을 짓고, 자신감이 충만해지며 흐뭇해한다.

내가 근무하는 시설은 고령의 시각장애인이 과반수 이상이다. 새로운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나 예민함 등 시각장애인의 특성으로 외부활동을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문언 씨가 칭찬을 받을 행동을 해주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교사들이 퇴소하는 이용인들의 손을 잡고 귀가를 돕는 모습을 관찰하고는 문언 씨는 그런 모습을 흉내라도 내듯 배웅을 돕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모자를 두고 가는 이용인의 곁에 다가가서 "모자! 모자!"라고 외치며 모자를 손에 쥐여준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칭찬이라도 하듯 자축 세리머니를 즐기는 모습을 보인다. 양손을 들어 박수를 빠르게 치며 "내가 했어!"라고 자랑을 한다. 또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노력하는 문언 씨의 행동이 대견스럽고 기특하게 느끼셨는지 이용인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으셨다. 너무 많은 관심과 극찬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는지 고개를 돌리고 상기된 표정으로 "아니

~!"라고 귀찮다는 듯 고개를 갸웃갸웃하기도 했다.

전날보다 더 밝고 씩씩한 발걸음으로 입소한 문언 씨가 들어오며 평소처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창밖을 바라본다. 입소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어 창밖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문언 씨는 교사를 보고 손짓해 이야기를 한다. "눈 와! 눈 많이 와!"라고 외치고 "우와~! 우와~!"라고 환호한다. 문언 씨의 모습을 지켜보고 교사가 호응을 해주자 박수를 치며 환호한다.

긴 문장을 구사해 말을 하지는 않지만 단답형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해주는 문언 씨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지만 문언 씨는 다툼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며 욕설을 퍼붓는 현규 씨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한 문언 씨는 양팔을 벌리고 우와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 강자보단 약자를 돕기 위해 상황을 제지하려고 몸으로 막는 모습을 보이는데 문언 씨의 등 쪽에서 눈부시게 밝은 빛이 솟구치는 거 같았다. 때로는, 다툼의 순간을 목격하거나 언성이 높아지는 장면을 보면 두려움로 본인의 신체를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인간의 내면에는 본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여러 감정이 공존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표출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보호소에서 자란 문언 씨에게서 커다란 상처로 힘겨웠을 시간을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밝은 심성을 지니고 정적인 면이 더 많은 문언 씨가 주변에 좋은 분들이 "그동안 많았구나!"라는 생각에 안도했다.

"문언 씨~ 여기여!"라고 이용자들이 부르면 "네!"라고 대답하고 발보다 큰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저는 이곳에서 근무하기 전에 10년가량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해왔던 역량을 기반으로 40대 중반이 되어 새롭게 도전을 시작한 사회재활교사라는 새로운 직업으로 도전이라는 두려움과 장애인들에 대해 알아가고 나의 역할의 막중함이 크게 느껴졌었다. 장애인에 대해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에 자책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도전 정신과 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의 그리고 자신감은 동일하게 충만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 하고자 함 없이 무의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새롭게 도전을 하고 비장애인 못지않은 열정과 패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 고령의 시각장애인이라는 삶을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내게는 큰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직접 시설 이용자들의 고충이나 마음을 느껴보기 위해 눈을 감고 프로그램 참여를 해보았다. 눈으로 볼 때와는 다르게 설명만 듣고 보지 않고 동작을 따라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용인들이 동작을 하나하나 스스로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사님들의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이 뒷받침을 잘 해주어야 한다는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에 대한 두려움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크다.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 정신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 없기에 소리에 민감하고 인자함과 아량은 더 크신 거 같다. 본인들이 느꼈던 고충과 연륜 덕분인지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 배려심과 이해심이 그 누구보다 크심과 공감을 잘해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문언 씨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도 스스럼없이 해

주며 손주를 챙기듯 따스한 한마디씩을 건네는 모습에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문언 씨!"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슈퍼 히어로 문언 씨는 오늘도 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발걸음을 빠르게 움직이며 달려간다. 나 역시 문언 씨의 발걸음 쫓기라도 하듯 오늘도 힘찬 발걸음으로 이용인들을 위해 달린다.

외출

김 주 혜

"으흠"

못마땅한 택시 기사의 짧고 진한 표현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중증 장애 여성 3명이 택시를 타는데 비장애인보다 느리게 타고 또 기본요금 정도 되는 곳 지하철역까지 가자고 했더니 기사의 심기가 매우 못마땅했다. 사실 요즘 불경기라 택시를 타지 않아 빈 택시로 다니는 것을 많이 보았다. 우리가 탄 택시도 병원 앞에서 한참이나 기다렸다가 손님을 받았는데 기사들이 싫어하는 기본요금 거리에다 동작이 느린 우리다. 우리는 기사의 불편한 심기를 눈치채고 묵언수행 하는 양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목적지인 지하철 입구에 도착해서 요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할까? 하다가 그 기사의 못마땅한 것이 다른 것으로 표현될까 봐 현금으로 주고 거스름돈은 받지 않았다. 당연히 기사는 거스름돈을 줄 생각은 없었다. 얼마 전 신문에 택시 승객이 거스름돈 100원을 안 준다고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저 태워준 것이 황송해서 "고맙습니다." 인사까지 하면서 문을 닫았는데 끝내 아무 말도 없이 휑하니 가버렸다.

일행 중 나이가 든 한 사람이 "젊은 사람도 아니고 흰머리가 가득하

고 세상 살 만큼 살아본 사람 같았는데 돈 이외에는 그 가슴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며 넋두리하였다.

세상을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일행은 중증 장애를 가졌다. 하모니카로 나눔을 하자는 취지로 장애 여성들이 모임을 만들어 연습도 하고 자원봉사 공연을 하고 있는데 회원 중 한 사람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병문안하러 가는 길이다. 병원이 고지대에 있다 보니 전동휠체어로는 무리라서 지하철역에 휠체어를 두고 택시로 이동하기로 했다.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가겠다고 하니 기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내내 택시 안 분위기는 좋았다. 그 거리 역시 기본요금 거리이다. 같은 상황인데 상반된 기사의 모습을 보면서 각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표출되는 것 같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류머티즘으로 온몸 관절이 굳어져 고통 중에 살고 있는데 40여 년 전 류머티즘이 발병되고 다리가 아파 절룩거리면서 회사에 다녔다. 아침에 출근하려면 버스를 타는데 저쪽에서 내가 타는 버스가 오면 걸음이 느려서 제일 먼저 움직인다. 그렇게 해도 맨 마지막에 타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날도 맨 나중에 타려는데 버스 문이 닫히는 것이었다. 동작이 느리니 기사는 귀찮은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 모두 태우고 버스는 떠나고 나 혼자 남아 떠난 버스를 쳐다보니 눈물이 났다. 세상에 나 혼자 남은 느낌이었고 내 남은 삶이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어쩌나 등등. 주마등같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다가 집으로 가면 부모님의 상심이 클 것 같아서 울면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다가 타고 갔다. 여기서 진리를 깨달았다. 다음 버스는 꼭 온다는 것을.

또 다른 어느 날 퇴근길인데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어 다리를 절룩거리며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건너편 차선에선 집으로 가는 버스가 신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다. 저 버스는 탈 수가 없었다. 정류소가 저 밑에 있기 때문에 나는 속으로 다음 버스를 기다리려면 한참 걸리는데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아파 매우 힘들 것이라 생각하니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걱정이 가득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버스는 출발하지 않고 내가 그 앞을 지나가려니까 버스 앞문이 열리더니 나보고 타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마 그 기사는 그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알고 어디서 내리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퇴근 시간이라 버스 안은 꽉 찼다. 내가 버스에 올라서니 기사는 마이크로 자리 양보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맨 앞자리 승객이 자리 양보를 해주어서 힘들지 않게 집으로 왔다. 오는 내내 마음이 울컥울컥했다. 그런데 내리면서 감사하단 말을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했을 것 같다. 내 성향상.

몰랐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자리를 양보받으며 도움을 받고 배려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앞날에 펼쳐져 있는 것을.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타인에게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배려한 적이 있던가. 없었다.

그 두 기사님의 배척과 배려는 40년이 넘도록 잊히지 않는다.

우리 셋은 지하철을 타고 복지관으로 갔다. 매주 목요일 복지관에서 하모니카 연습을 하고 있다. 모두 중증 장애 여성이 주축이 되어 악보도 음악도 악기도 문외한이었는데 어언 1년 정도 지나니 멜로디가 나

온다. 소걸음처럼 느리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 호흡 때문에 하모니카 음이 약하지만 자꾸 불다 보니 조금씩 호흡이 좋아지고 있고 하모니카를 불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 삶이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장애라는 이유로 수없이 받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 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 우리가 괴물로 변해가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하모니카를 통해 우리도 나눔이라는 것을 해 보자고 했다. 비록 부족하지만 실버 홈 어르신들 생일 잔치에 가서 즐겁게 공연하고 어울리고 왔을 때 힐링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슴에 들어왔다.

연습을 마치고 헤어져서 지하철을 탔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지하철이 좋다. 퇴근 시간 복잡한 시간만 빼면 이동하기가 편리하니까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닌다. 지하철 안에서 가끔 울컥 눈물이 난다. 감사한 마음에 온몸이 전율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중얼거리기도 한다. "아! 내가 이런 때도 있구나."라고. 처음에는 자주 그랬는데 요샌 좀 뜸하다. 그동안 세상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40여 년간 고통 중에 있었다. 그중 20여 년간은 온몸 관절이 굳어져 걷지를 못하여 집 안에서만 살았다.

건강하게 잘 살다가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내 인생과 몸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팔, 다리가 굳어질 때마다 내 인생이 한 귀퉁이씩 떨어져 나갔다. 온몸 관절이 굳어져 움직이지 못할 때는 내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갔고 내가 누워 있는 침대만 남았다. 그저 아프다가 말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이건 아니었다.

움직이지 않는 팔다리를 보면서 다시 걸을 수 없음에 충격을 받아 인

생을 포기하였다. 인생을 포기하기 쉬웠다. 움직일 수 없으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 보고 TV 보고 밥 먹고.. 삶의 의욕이 없었다. 이 몸으로 무얼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않았다. 이미 포기한 인생이기에 마음이 편했다.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갔고 사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오지만, 나는 나의 추억을 지우개로 지워 갔다.

엄마의 심장은 녹아져 갔다. 멀쩡하던 딸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모두 당신의 죗값이라고 했다. 자식이 잘못되면 모두 부모님의 탓으로 돌리는 우리나라의 정서이지만 이것이 어찌 부모님 탓인가, 그리고 내 탓도 아니다. 내 운명 때문이라고 나는 운명론자가 되었다.

아주 가끔은 밖에 나가 뛰고 걷고 싶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나에게는 소원이 되고 기적이 되었다. 참 모진 삶이었다. 그리고 외로움에 내 심장은 바싹 타들어 갔다.

삶은 아이러니했다. 세상을 관조하며 그렇게 20여 년을 살았다. 어느 날 류머티즘이 나에게 왔듯이 어느 날 희망이 날아들어 6곳을 수술하고 재활훈련 받고 자력으로 땅을 밟을 때 주위에서는 기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엄마가 매일 새벽기도 가서 울부짖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직 많은 장애가 남아 있는 1급 장애인이었다. 세상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갈 때마다 나는 건강할 때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해야 했다.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60 중반에 중증장애라는 힘든 삶이지만 고난이라는 귀한 경험을 했기에 지금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다. 편리한 이동을 하기 위해 운전면허도 취득하고, 하모니카도 배워 자원봉사도 하고, 그동안 녹슨 내 머리에 녹을 벗겨내기 위해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기도 했다. 이렇게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한 큰 고

난이 있었기에 지하철을 탈 때면 감사해서 가끔 울컥한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다가 다시 열리고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는다. 왜 그런가 싶어 앞에 거울을 보니 저만치에서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헐떡거리면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오는 것을 젊은 사람이 기다려 주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는 한참이나 계속되었다. 사람이 오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닫는 것을 자주 보았기에 그 젊은이의 배려에 나의 가슴이 따뜻해져온다.

그렇게 거리를 나서면 많은 사람의 따듯함을 경험한다. 오늘도 무사히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엄마가 반갑게 맞이해 준다. 엄마는 오늘 하루 종일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 홀로 여행 (2)

박 철 한

나는 여건이 되면 강연이나 강좌 등 교육에 참여하기를 좋아한다. 그동안 다섯 개 법인체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을 확인하고 있었다.

교통장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교통사고 안전지도사 양성 교육을 실시함을 확인하였다. 즉시 자격과 절차에 대하여 문의 후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약 보름이 지났을까?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 장소가 서울의 영등포이다. 사고 이후 혼자 여행은 지난 5월 대구 여행이었다. 즉, 이제 두 번째 나 홀로 여행이다. 혹, 젊었을 시절 영등포의 경험이 있었던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보아도 지리감이 없다. 따라서 출발 전 꼼꼼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 장소이자 숙소인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방문 방법을 제일 먼저 검색하였다. 6번 출구가 편리함을 확인하였다. 그 후 열차 승차권 예매와 함께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위한 등록까지 마쳤다.

예매한 승차권을 이용하여 영등포역에 도착하였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차하면서 윗옷이 다 젖고 말았다. 축축하게 젖은 상태로 긴 플랫폼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상가로

밀집한 넓은 역내의 6번 출구를 찾는 것이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안내문조차 찾지 못하였다. 또한, 이곳을 지나는 역무원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앞의 C 편의점에 들어갔다. 젊은 남성 직원이 있기에 그에게 6번 출구 방향을 문의하였다. 곧바로 남성 직원이 "나는 경기도 사람이라 몰라요."라는 무심한 답변을 하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 대중들의 현실을 느끼며, 내가 바쁜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었던가? 자문해본다. 아직 밖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보행 장애가 심각한 나에게는 외부의 짧은 이동 거리의 출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집결 시간이 한 시간 남았다. 이정표를 찾기 위하여 역내 중심가로 되돌아갔다.

주위를 둘러보니 바로 앞에 1번 출구가 보였다. 출구가 나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듯하다. 무엇인가에 홀려 끌리듯 걷자, 저 멀리 출구에서 스며드는 빛이 보였다. 계단 따라 내려가 보니 출구와 좁은 이면도로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계단의 끝 선에 서서 지붕에 의존하여 비를 피하며 택시를 기다릴 수 있어 좋았다.

차량을 호출한 지 약 5분이 지나자, 장애인 콜택시가 도착하였다. 승차한 택시가 약 10여 분 달리자, 교육 장소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이후 등록과 동시에 교육에 참여하였다.

장터

신 계 원

오늘따라 장터가 유난히 소란스럽다.

뇌병변장애를 가진 스무 살 낭만소녀와 맞춤법이 뛰어난 이모님, 군복무 중 사고로 지체장애가 된 청년과 천사 같은 이모님, 난치성 질병으로 지체장애가 된 왕언니와 박 언니, 교통사고로 척수장애가 된 나와 고상한 권사님, 보라 꿈만 꾸는 지체장애 옥이와 착한 미자 씨, 과로사로 편마비가 된 민정이, 그리고 전철 속에서 삶이 다른 풍경을 두 시간이나 체험하고 정시에 도착하는 교수님, 모두 개성과 취향이 다른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님이 수필 방에 모여 글쓰기 치유를 한다.

"아픈 몸은 창피함을 몰라." "기우는 몸짓 때문에." "어눌한 발음 때문에." "이미 슬퍼했으니 아픈 사람은 울지 않아." "사라진 내 하이힐은 어디에…." 하며 각자의 사연을 하나 둘 풀어놓는다. 그런데 갑자기 창가에 앉은 청년이 "전진! 전진!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 하며 뜬금없이 갑부타령을 한다. 사고 탓인지 자기만의 처세술로 억만장자의 쩐 강론이 시작되고, 한 마디 한 마디 던지는 엉뚱함에 우리는 웃지 않아야 할 웃음보를 터트리고 만다.

청춘과 맞바꾼 세상에서 편하게 살자는 그의 낙관적 태도가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자, 옆에 있는 낭만 소녀는 “아직도 내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왜 휠체어를 타는지?” 이유도 원망도 않는다고 한다. 또 느닷없는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나는 “심리적 충격과 더딘 재활로 우울증과 싸웠고, 달팽이 삶을 극복하느라 밤마다 속 타는 소리로 된바람 마른바람 온갖 바람을 맥없이 일으킨다.”며 땀방울 하나 내놓지 않는 세포조직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여름이 무섭다고 하소연을 하고.

어쩌다 고발자가 된 왕언니는 “장애인과 장애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사회의 문제를 냉철히 잡아내 지적하고, 온정과 냉정 사이에서 겪은 경험을 글로 토로했다.”며 겸손 따위는 필요치 않았다고 울분을 토한다. 그리고 베스트작가를 꿈꾸는 민정이는 “떨어지는 별과 발아래 깔린 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을 마음의 풍경으로 그려내 시로 스케치한다.”며 삶의 무게를 가벼운 웃음으로 덜어낸다 하고. 보라 꿈만 꾸는 공주는 “빛바랜 가족사진을 보면서 시설은 물론 중증장애인의 사회복지 문제점과 선천적 질환으로 받은 상처가 되살아나고, 헤어졌던 가족들과 재회는 했지만 원망으로 꽉 찬 기억은 지금도 가슴속 앙금으로 남아있다.”며 상처고름을 짜내느라 아우성이다.

그러자 교수님은 흥분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목청을 높이며 앙탈부리는 공주에게 “에이~ 성질부리지 말고~” 하시며 시비 아닌 시비로 웃음을 자아낸다. 그러다 또다시 난처한 질문을 던질 때면 수업 담당선생님께 “오늘도 사진은 남겨야죠?” 하며 큰 덩치로 손짓 발짓 몸 개그로 너스레를 떨면 우리는 다시 배꼽을 잡고 한바탕 웃음을 쏟아낸다.

함박웃음 속에 강의실 분위기는 고조되고, 우리는 마치 한풀이라도 하듯 속 안에 메인 응어리를 조목조목 나열한다. 하고 싶어도 혼자 할 수 없고, 가고 싶어도 쉽게 가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을 거침없이 풀어놓는다. 럭비공처럼 주재를 이탈하고 화가 어디에 튀어도 교수님은 교회오빠처럼, 활동지원사는 햇살처럼, 미소로 대변인으로 길잡이가 되어준다. 직접 아픔을 겪지 않았음에도 우리들의 필요를 척척 맞춰주는 그들의 통쾌 유쾌 상쾌함은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단비가 된다.

그렇게 호박꽃처럼 해바라기처럼 하하 호호 할 즈음, 장터에 깜짝 선물이 도착했다. 선물은 교수님의 제자 버금작가의 등장이었다. 장터는 순식간에 시끌벅적 소란해졌다. 찰랑대는 긴 생머리와 단아한 외모는 휠체어에 앉은 우리에겐 부러움의 대상이자 로망이 되었다.

특강이 시작되고, 작가의 첫 서두는 글에서 나오는 힘과 사랑하게 된 동기였다. 생활 속 사소한 일상까지 퍼즐 맞추듯 문장으로 하루를 짓는다고 했다. 또 에세이집 〈당신의; 사전〉을 소개하며 이기적인 글을 썼기에 단 한 번의 투고에 작가로 등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는 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니 질병과 사고로 불편하지만 용기를 내고 꿈을 가지라고 했다. 사회와 환경과 사람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돌파하라고, 자신의 연약함은 또 다른 시작의 힘이기에 주어진 문장으로 문학의 숲을 무성하게 만들어 보라고, 수필의 향기를 마음껏 내보라고 겸손한 조언을 했다.

그래서 늘 글쓰기에 갈증을 느끼는 나는 작가의 조언처럼, 나만의 '마음사전'을 만들어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다시 다짐했다. 비

온 뒤 생명이 더 활기차듯 장터 곳곳마다 희망가가 쩡 쩡 울리도록 한 줄 한 줄, 한 문장 한 문장, 진심을 담아 써내려갈 것이라고 야심차게 선포했다.

작가와의 짧은 만남과 우리들의 만남을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름부터 시작한 우리들의 강의실을 기억해 본다. 손가락 하나 까닥 못 해 보조기를 끼고. 남보다 몇 배의 시간과 공을 들여, 한 자 한 자 찍어낸 글 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겹친다. 그리고 한 편 한 편 담아낸 소중한 문집을 읽으며 다시 떠올린다. 2시간 강의를 위해 전철 속에서 왕복 4시간을 소요하는 교수님, 묵묵히 곁에서 따스한 그림자가 되어준 활동지원사님, 구멍 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터장님, 수업 시작부터 종 칠 때까지 세심하게 보살펴준 담당 선생님, 장애인콜택시를 잡지 못해 전동휠체어 속도를 올리고, 창문 없는 택시처럼 비바람과 맞서며 도로의 무법자가 되어 강의실 문을 활짝 열었던 휠체어 여섯.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 그 아름다움을 마음의 액자에 담는다.

그리고 매일매일 꿈을 꾼다. 펌프와 마중물 같은 세상이 되기를.

* 장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줄임말.

엄마의 마지막 집, 요양원 가시던 날

심 순 자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슬픈 날이며 잊지 못할 날은 2010년 시월의 마지막 날, 엄마가 요양원 가시던 날이다. 십오 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고 또렷하게 떠오르며 가슴 깊게 스며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나 보다. 구구팔팔 백세인생 사실 줄만 알았던 내 엄마가 요양원 신세를 질 줄이야…. 깔끔하고 부지런하고 정정하신 엄마가 넘어져서 고관절 수술하는 바람에 걷는 것이 불편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랑 같이 사시며 구십이 훌쩍 넘으셨어도 청소도 하고 당신의 속옷을 빨아 입으셨다.

나 역시 작은 키에 몸은 약하긴 했지만 크게 아픈 곳은 없었다. 내가 항상 젊을 줄만 알고 엄마는 내가 모시고 산다고 큰소리 뻥뻥 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급성 녹내장이 왔다. 아파트가 덩어리만 보이지 몇 동인지 숫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해 운이 안 좋았는지 눈, 허리 대수술을 두 군데나 받았다. 일상생활이 힘겨운 난 엄마 걱정이 태산 같았다.

육남매이긴 하지만 조용하고 편한 집안이 없어 마땅히 가실 만한 곳이 없었다. 한 달씩 돌려가며 모셔보기도 하고 주간보호센터도 가보기도 했지만 자식들의 눈치를 보시고 번거로움에 힘들어하셨다.

가족들의 생각을 모으고 짜낸 것이 요양원에 모시자는 것이었다. 죽음의 길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요양원에 가시는 일은 어느 자식 한 명이라도 반반하게 살면 되는데 집집마다 실타래가 엉켜 있었다.

아침에 보고 점심에 안 보면 저녁에 보고 싶은 것이 자식인데 자식과 생이별하고 주는 밥만 잡수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 못 할 짓을 하는가 싶고 앞이 캄캄했다. 슬프고 괴로운 심정을 비빌 때가 없었다.

엄마는 평소에 다 산 늙은이 밥이나 얻어먹으면 되지, 자식들 힘들고 고생된다고 요양원에 보내달라는 말을 입에 달고 계셨다. 그렇게 요양원 요양원 하시던 엄마가 막상 요양원 가신다니 긴 한숨을 내쉬고 안색이 변하고 서글픈 눈빛이었다.

주섬주섬 옷 보따리를 싸고 약봉다리와 소지품을 챙기셨다. 소지품이래야 대나무 얼개빗, 칫솔, 손거울이 전부였다. 본인의 삶은 없고 오직 남편,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신 엄마의 인생살이가 애잔하게 떠오른다.

이걸 봐도 저걸 봐도 눈물이 나오고 가슴 한복판을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그 와중에도 애미야 부르신다. 그간 고생 많았다고 손을 꼭 잡으신다. 속고쟁이 주머니에서 누리끼리한 돌돌 말린 가재 손수건을 풀어 네 번 접은 만 원짜리 두 장을 주시면서 애들 입던 쉐타만 입지 말고 고운 도코리 하나 사입으라고 하셨다. 모시지 못하고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이 딸이 밉지도 않으신지 엄마의 깊은 사랑에 눈물이 더없이 흘렀다. 부모의 가슴엔 보석이 숨어 있고 자식의 가슴엔 욕심이 있다는 말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한 끼라도 따뜻한 식사 하시게 하려고 질축하게 밥을 짓고 잘 드시는 반찬을 만들었다. 식사 중 물만 자주 드시고 밥도 잘 못 드셨다. 수

저에 반찬을 올려드리니 간신히 서너 수저 뜨셨다.

엄마는 왼쪽 차창문을 난 오른쪽 차창문을 보고 누릇누릇하게 익은 벼, 곱게 물든 단풍길을 달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길이건만 쓸쓸함과 허전함이 밀려오고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엄마 허벅지 위에 서 손을 떼지 못했다.

산속 외진 곳에 요양원이 보였다. 한적하고 공기는 좋았다. 남편은 가방을 들고 엄마와 난 팔짱을 끼고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절룩절룩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직원분들이 친절히 대해주시고 복지사 선생님의 정갈함이 한눈에 보였다.

입회 원서를 쓰는데 손이 바르르 떨렸다. 삐뚤빼뚤 칸을 채워 넣고 주의사항을 듣고 방을 찾아갔다. 한 방에 두 명씩 사용했다. 처음 보는 사람끼리 만나 어색하겠지만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했다.

엄마는 애써 웃음 지으며 깨끗하고 좋구나 하신다. 난 괜찮으니 어두워지기 전에 어여 가라고… 끝까지 자식 걱정만 하신다. 돌아서는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었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얼마큼 오다 뒤돌아보니 아직도 손을 흔들고 계셨다. 눈물 콧물 흘리며 남편과 지난날 고생하신 엄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집에 도착했다.

아이쿠, 이걸 어쩌나! 혈압약을 신발장 위에 놓고 갔다. 하루도 안 드시면 안 되는 약이기에 그 밤길에 되돌아갔다. 어두운 시골 밤길 낮에 갔다 온 길이지만 헤맸다. 돌고 돌다가 간신히 찾았다. 엄마가 계신 방에 들어가니 옆으로 누워서 화장지로 눈물을 닦고 계셨다. 자식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엄마! 내 집같이 편하게 생각하셔요. 엄마 이러시면 속상해요. 엄마의 등을 쓰다듬으며 달래드렸다. 그저 복지사 선생님 말 잘 듣고 끼니

거르지 말고 약도 잘 챙겨 드시라고 신신당부했다.

원장님이 적응해야 하니 당분간은 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이 말을 들으니 걱정 두려움이 밀려오고 도로 모셔 오고 싶고 이별이 힘들었다. 창살 없는 감옥이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거지. 아무런 낙이 없는 걸 알면서도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찾는 것이다.

엄마가 떠난 빈 방, 이불 밑에서 나온 파스 한 장, 탕기만 한 탁상시계, 벽에는 엄마의 흑백사진이 방을 지키고 찬바람이 불고 썰렁했다. 돌아가셨을 때보다 눈물을 많이 흘린 날이었다.

첫 번째 인연인 엄마와의 헤어짐,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다. 편지도 쓸 줄 몰라요, 전화도 걸 줄 몰라요. 자식이 소식 안 주면 무소식. 그래서 더욱 불쌍한 엄마이시다. 소리내어 엉엉 울며 주먹으로 내 가슴을 때렸다. 모시지 못한 내가 너무 미웠다.

사진을 보니 엄마의 숱한 일들이 떠올랐다. 젊어선 보름달같이 예쁜 새댁으로 불리었고 음식 솜씨 좋아 큰일 집 뽑혀 다니셨다. 부지런함과 정직함으로 살아오신 엄마, 농촌에서 흙과 호흡을 같이하며 허드렛일, 농사일 몸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셨다. 그뿐인가? 어려서부터 청각장애를 앓고 잔병치레 잦은 난 엄마 품에서만 잤다고 한다. 병이 나면 사십 리 병원을 등에 업고 빠른 길 찾아 꼬불꼬불 산 등을 넘어가시다가 숨소리를 확인하고 손발을 만져 봤단다.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 밤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지극 정성과 사랑으로 키운 딸이건만 근심걱정만 안겨드렸다. 세월의 갈피에 묻혔던 숱한 사연들이 떠오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자식들 키우느라 고된 일 가리지 않은 엄마의 거친 손과 삐다듬하게

닳은 손톱, 모든 마디마디가 휘고 툭툭 불거져 있었다. 고단함도 잊고 험한 일 하시다 넘어져서 깨지고 그렇게 상한 몸을 극복하느라 안간힘을 쓴 자국으로 몸에 남은 옹두리는 내 가슴을 저리게 했다.

엄마의 살아온 흔적을 이력서에 쓰라면 몇 장을 써도 모자랄 것이다. 사각형 교실 책상 앞에서 공부를 배워본 적도 없고 자격증도 없다. 그렇지만 삶 자체가 고귀한 명품이며 자신의 바른 마음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신다.

돌아보건대 먹거리가 흔치 않던 시절, 남긴 밥 긁어 드시고 과일 꼭지 발라드시고 반듯한 김 한 장, 계란 한 개 입에 넣지 못하신 울 엄마. 자식이 달가닥 달가닥 밥 그릇 비워주면 엉덩이 투덕이고 내 배 부른 듯 흐뭇해하셨다. 그 흔한 관광버스 한 번 타보지 못하시고 날깃날깃한 속옷, 닳고 닳은 신발짝이 멋의 전부였다. 허기와 싸우고 힘들게 사셨다.

시간은 쪼들리고 생활은 고달프고 가난의 쳇바퀴에 갇혀 있는 삶. 서산 넘어가는 해 붙들고 밭고랑에서 가을걷이, 그것도 모자라 남포등불 밑에 콩싸래기 키질하고 헛간에서 마늘 엮어달던 바쁜 손길, 평생을 일만 하고 자식만 위하신 엄마이기에 그 기억을 잊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자신의 삶을 제쳐놓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한평생 헌신하면서 사셨다. 그렇게 사셨건만 남은 건 병과 통증뿐, 어느 자식 하나 모실 사람이 없어 요양원에 가신 엄마.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길러도 열 자식은 부모 한 분을 모시지 못한다더니 현실인 것 같다.

엄마는 요양원에 가신 지 이 년 만인 구십팔세에 세상을 마감하셨다. 같이 살았으면 이렇게 큰 슬픔 속에 엄마를 보내지 않았을 텐데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고 내 발등을 찧어도 되돌릴 수 없으니 짙은 안타까움만 남아있다.

소풍 왔다 가는 인생, 아옹다옹 싸우며 살 일도 아니고 괜한 욕심에 세월을 허송할 일도 아닌데…. 넉넉지 못한 살림에 시장바구니에만 신경 쓰고 성냥갑만 한 내 집이라도 사려고 안간힘 쓰다 보니 잘해 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이젠 "엄마~" 하고 불러도 대답도 들을 수 없고 속사정을 터놓고 나눌 사람도 없다. 비로소 철들어 내 모양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떠지나 보다.

불효자는 운다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고 엄마의 까무잡잡한 손, 파란 힘줄이 보이는 손등으로 연실 눈물 닦고 요양원 가시던 날 아픔이 다가오고 있다.

오래 사는 내가 죄라면서 성치 못한 몸으로 애미 때문에 고생한다 하신다는 말씀이 가슴속 깊이 절절히 파고들었다. 늙고 병들면 자식 눈치도 봐지나 보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엄마가 나의 엄마로 다시 와준다면 그때는 꼭 엄마 눈 감는 날까지 바로 옆에서 가장 좋은 딸, 가장 가까운 친구로 함께할게요. 엄마 딸이라 행복했던 내가 엄마 행복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이 부자로, 알뜰함으로 살아오셨고 모든 순간 빛이 되어준 엄마의 삶, 요양원에서도 선생님들이 칭찬하고 반듯한 할머니로 통했던 내 자랑스런 엄마.

자식과 떨어져 그리움을 안고는 사셨지만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신 엄마, 당신의 끝없는 사랑과 배려에 오늘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함을 담는다.

엄마의 마지막 집, 요양원 가시던 날!

엄마!

추억의 내 고향 집

유 상 숙

어렵게 생활하던 그 시절 그래도 사랑이 있었기에 살아갈 수 있었다.

허기를 채울 수 없는 배고픔에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봄이면 진달래꽃, 찔레꽃 한 움큼씩 따서 먹고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겨울철이면 군불 땐 아랫목이 쉬 식지 않도록 깔아놓은 솜이불 밑으로 서로 먼저 따뜻한 곳을 차지하려고 남매들이 다투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해 보면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유년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그립고 눈물 나는 고향의 추억은 늘 행복하고 아름답다.

그래서일까, 고향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찡하고 마음이 뭉클해진다.

생각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내가 살던 고향 집은 지금은 사라진 초가집이었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보면 내 고향 집은 어찌나 못생겼는지 참 이렇게 못생긴 집도 있나 싶다.

지붕을 받치고 있는 서까래며 기둥 하나하나가 올바로 된 것이 없고 보기 싫게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다. 나무가 없어서 그랬을까? 할아버지께서 집을 지으시며 예술 작품을 만들려 그랬을까?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본다.

그리고 방은 윗방 아랫방 두 칸에 마루는 쪽마루인데 우리 5남매가

옹기종기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면 넓지도 않은 마루가 더욱 좁아 보인다.

마루 밑에 신발 벗어놓는 댓돌 위에는 5남매의 신발이 크기별로 나란히 놓여있다. 그 밑에는 귀염둥이 우리 강아지 바둑이가 입맛을 다시면서 우리 밥 먹는 모습을 쳐다보고 뭐 하나라도 안 주나 싶은 얼굴로 혀를 날름거리고 앉아있다. 나는 꽁보리밥 한 숟가락을 던져 주었다. 강아지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다.

그 앞에 외양간에는 누런 황소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여물을 맛있게 질근질근 씹어먹고 있다. 아버지와 나는 여물을 끓일 때 소가 기운 나라고 콩을 듬뿍 넣고 끓인다. 소여물 냄새가 어찌나 구수한지 나도 먹고 싶어질 정도다. 우리는 그 옆에서 소가 여물 먹는 모습을 보며 "맛있니, 소야?" 그러기도 한다. 황소는 큰 눈을 껌벅이며 고맙다고 하는 것 같다.

소가 여물을 먹고 나면 쥐들도 바빠진다. 여물통 주변에 떨어진 콩을 주워 먹으려고 생쥐 몇 마리가 왔다 갔다 들락날락 야단이다.

우리 집 마당 한구석에는 고목이 된 커다란 호두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래도 봄이 되면 싹을 틔우기도 하고 호두가 몇 알 열리기도 했지만 먹을 수는 없었다. 그 고목이 된 호두나무에 올빼미가 살았다. 올빼미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우리 집 호두나무를 자기 보금자리 삼아 호두나무 속 구멍으로 쏙 들어가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나온다. 그 모습이 신기해 올빼미를 좀 더 가까이 보려고 다가가면 올빼미는 나무 구멍 속으로 쏙 숨어버린다. 밤이 되면 올빼미는 어미를 찾는지 슬프게 울어 댄다.

그리고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 참으로 멋진 담장이다. 돌로

담장을 쌓았는데 어찌나 잘 쌓았는지 예술적이다. 돌담은 할아버지께서 쌓으셨다는데 정말 누가 봐도 탐나는 돌담이다. 우리는 그 돌담 밑에서 풀을 뜯어 소꿉놀이도 했다.

가을이 되면 옆집 할머니는 늙은 호박 몇 덩이를 얄팍하게 썰어 우리 집 돌담 위에 수를 놓기 시작한다. 돌담 위에 호박고지를 널어놓으면 어찌나 잘 마르는지 옆집 할머니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잊지 않고 호박고지로 떡을 만들어 우리에게 가져다주신다. 그 떡은 호박고지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정말로 맛이 있었다.

우리는 친구들하고 우리 집 마당에서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사방치기….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데 우리 집 극성쟁이 남동생이 하나 있다. 엄마는 밭에 일을 나가시면서 "동생 잘 봐라."라는 말을 잊지 않는다. 우리는 "네." 대답은 했는데 노는 게 바빠 동생은 어디로 갔는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놀기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동생이 우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동생이 그만 뒤꼍에 있는 장독대에서 고추장 항아리를 넘어뜨려 고추장 범벅이 되어서 울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얼른 동생을 데려다 물에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다.

얼마 후에 엄마가 오셔서 나는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 고추장 항아리는 깨져서 고추장은 못 먹고, 동생은 맵다고 울고…. 우리는 놀기만 했으니 야단맞아도 싸지! 동생을 제대로 못 본 탓이야.

이렇게 추억이 가득한 고향 집에서 우리 5남매와 엄마 아빠 일곱 식구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맛있는 밥을 먹고 사랑을 나누며 잘 지내왔다. 고향의 봄노래를 부르며 노랫말처럼 어른이 된 지금도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다'.

해우재解憂齋

윤 옥 순

손주가 놀러 왔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주는 먹성이 참 좋다. 우리 집에 오면 늘 주방으로 가서는 “할머니 나 뭐 먹어야 하는데.” 한다. 편식하지 않고 이것저것 잘 먹어 너무 예쁘다. 맛있게 먹고 나서는 방귀를 뽕뽕~~ 끼면서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할머니 나 응가할래요.” 하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그래 먹었으니까 응가해야지. 대소변 가리기를 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더 귀엽고 기특하다.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고 배설하는 생리 현상이다. 이 기본이 잘 지켜져야 다음 단계의 욕구도 실현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신체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자고로 뒷간은 멀어야 한다’고 했다. 배설의 중요성보다는 그저 불결하다는 생각으로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화장실을 두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어둡고 험한 길을 멀리 가기보다는 이동식 변기인 요강을 방에 들여 사용했다.

어린 시절 기억 하나가 떠오른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다. 학교에 있던 뒷간은 나무를 몇 개 걸쳐 놓고 여러 명이 들어가서 볼일을 보았었다. 그곳은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분리된 공간이 하나로 되어있어 여자아이들은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볼일을 봐야 했다. 1, 2학년만 다니는 분교라 하나의 공간을 이용하려니 그랬던 것 같다.

너무 불편했고 무서웠던 기억이다. 보통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 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복권을 사기도 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재래식에서 점진적으로 수세식으로 바뀌는 가히 혁명적인 문화로 바뀌게 된다. 뒷간이나 변소에서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화장실 문화는 언제 바뀌었을까?

수원에 살고 있을 때다. 친구가 광교산에 다녀와서 하는 말이다.

"산 입구의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너무 깨끗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먹어도 되겠어."

"무슨 소리야 화장실에서 도시락을 어떻게 먹어. 불결하잖아."

그러나 거짓말이 아니었다. 직접 방문해 보니 너무 청결하게 만들어 놓아서 커피 정도는 한잔해도 될 것 같았다. 이름도 예쁜 '반딧불 화장실'에 걸맞게 향기로운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창문까지 만들어 놓아 밖의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었다. 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공공 요원을 배치해서 그곳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었다.

수원시는 명실공히 화장실 문화의 중심지다. 지저분한 공간으로만 여겨지던 곳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 화장실 관련 기획단을 만들었다. 불결한 공중 화장실을 개선해 외국 손님들을 맞이하겠다는 생각이 성공한 것이다. 그 당시 수원 시장님이신 故 심○○ 의원이 이 사업을 성공시킨 인물이다.

그는 그가 살던 집터에 변기 모양을 본뜬 '해우재解憂齋'를 지었고, 사후에는 유족들이 수원시에 기증하였고 지금의 '해우재 박물관'이다. 내가 살던 곳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다. '해우재'는 절에서 사용된 '해우소解憂所'에서 따온 말이다. '해우소解憂所'는 근심을 덜어내는 곳이라는

뜻이다. 시원하게 해결하고 나면 상쾌한 일상이 시작되는 곳이다.

요즘은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러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져 내 몸을 괴롭히게 된다. 그동안 삶에 지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 협심증과 암과의 사투로 고생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멘다. 그때는 쌓아 두기만 하였지 풀어내는 방법을 몰랐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비우며 살다 보니 지금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 나에게 맞는 해우재를 만든 것이다.

사찰에서는 해우소 문을 열기 전에 입측진언入厠眞言을 세 번 외우게 한다고 한다. 그 뜻은 '버리고 또 버리니 큰 기쁨일세, 탐진치 어둔 마음 이같이 버려, 한 조각 구름마저 없어졌을 때, 서쪽에 둥근 달빛 미소 지은다'이다.

누구든 몸에 변을 담고 있으면 유독가스를 뿜어내 몸을 괴롭힌다. 근심도 담고 있으면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어린이집에서는 변을 보지 않는 손주는 할머니 집에만 오면 꼭 응가를 하고 간다. 그만큼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일 거다. 누구나 여행을 하거나 집이 아닌 곳에서는 참게 된다. 가장 편안한 곳에서 볼일을 보고 싶어 한다. 그때그때 각자의 해우소에서 시원하게 풀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 것이다.

사진만 남기고

윤 장 현

오래전부터 꼭 한번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될 곳이 있었다. 그 사연들은 막내가 다섯 살 무렵 불장난으로 큰불을 낼 뻔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4년 5월 15일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 큰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병원생활로 75일이라는 비록 짧은 날들이었지만 가족들과 함께하시다가 편안히 눈을 감으실 수가 있었다.

2006년 1월 4일로 기억된다. 무릎을 덮을 만큼 눈이 많이 내렸던 이른 아침이었다. 당뇨합병증으로 종합병동에 가까웠던 어머니께서 혈당관리가 되지 않아 쓰러지셨다. 폭설로 사람이 잘 다니지 못함은 물론 교통이 마비된 상태였다.

이전에도 어머니께서 위급하셨을 때마다 달려와 주셨듯, 나에겐 슈퍼맨과도 같았던 119대원님들은 그때에도 어김없이 달려와 주셨다. 악조건 속에서 십오 리 남짓 되는 병원까지 한 시간이 다 지나서야 겨우 도착할 수가 있었다. 그로부터 어머니의 병원생활은 14여 년간 계속되었다.

코로나19 시국에 어머니의 임종은 지켜보질 못했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그늘이 될 수 있게 해 주셨다. 이처럼 위

험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달려와 주셨던 슈퍼맨들이 계시는 곳을 꼭 한번 찾아가서 위의 일들에 대하여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라도 꼭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의 "버킷리스트"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생각뿐 내가 혼자서 책임져야 될 삼 남매가 있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강산만 두 번 넘어 세 번 가까이 변하게 되었다.

세월 따라 삼 남매마저도 내 품을 떠나가고 나는 어느새, 고아가 아닌 고아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이제는 책임질 것이 없으니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도 내려놓게 되었다. 책임져야 될 삶에 대한 긴장이 풀려서일까?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선천적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2004년 당시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고 실명 진행 중이었던 눈이 갑자기 나빠졌다.

2023년 11월 '심하지 않는 장애'에서 '심한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현재 나의 증상은 먼 곳은 보이지 않고, 모든 사물들은 형태만 겨우 볼 수가 있다. 그마저도 형태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곤 한다. 내 자식과 손주들이 "아빠, 할아버지"라고 불러 주어야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있다.

내가 그리도 좋아하던 책과 신문 따위의 글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은 휴대폰 글자판은 위치를 외운 상태로 글자 크기를 최대로 확대하여 한 글자 또 한 글자 수정을 거듭하며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글자와 사물들과도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쓸 정도로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딱히 없게 되었다. 좌절보다는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1995년 10월 아이들 엄마와의 이혼으로 혼자서 삼 남매를 양육을

해야만 했다. 처음 장애 판정을 받고 심리적인 불안 때문이었던지 잦은 실수로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았다.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

부모님 부양과 삼 남매들의 양육을 위한 책임감 하나 때문에서일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혼자서 천천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둑질 빼놓고 다 하는 삶이 시작되었다.

역경 속에 "한 부모 가정"이란 복지혜택 등 나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삼 남매들이 모두 대학까지 나와서 각자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키울 수가 있었다. 나라에서는 그 재원들을 어디에서 마련했었던가. 그리고, 주위 분들로부터도 참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나마 볼 수가 있을 때 도움을 주셨던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처음 보고 꼭 가지고 싶어 했던 색소폰을 8년 전 나의 생일 때 삼 남매들이 선물로 안겨주었다. 색소폰은 나의 친구가 되어 지겹지도 않는 듯 매일 함께 붙어 지내고 있다.

"신은 정말로 인간들을 평등하게 대하는가 보다."

세상의 형태들은 점점 나와 이별을 하자는데 소리들은 스펀지에 물 흡수되듯 귓속으로 쏙쏙 빨려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내가 아는 노래의 반주가 나오면 몸이 친구의 소리를 찾아가곤 한다. 친구는 나에게 "혼자만 놀지 말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도움을 주셨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친 몸으로 쉬고 계시는 곳에서 함께 놀아주지 않겠니?"라고 하며 속삭이고 있었다.

평소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었던지라 처음에는 쑥스러움에 가슴은 천둥소리와도 같이 요동치고 윗입술 언저리가 발발거려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거짓말도 자주 하면 는다'라는 말처럼, '재능기부와 버스킹'의 회차가 더해질수록 쑥스러움과 두려움들은 말끔히 사라져 버렸다. 어느새, 중독이 되어버린 '재능기부와 버스킹'의 회차가 거듭될수록 나를 기다려주시는 어머니 아버지들도 점점 늘어만 간다.

또, 주위로부터 칭찬을 듣고 인정도 받게 되었다. 급기야 '2024년 영주 소백산 철쭉제(관련 동영상 유튜브-윤장현 버스킹)'의 본무대에 초청되어 많은 관객들 앞에 설 수 있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다. 많은 관객들의 박수소리에 뿌듯함을 느꼈다. 색소폰과 함께하면서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첫 수확인 소정의 출연료도 받았다.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첫 월급을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모두 썼다. 그때 좋아하시던 부모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다.

하지만, 슈퍼맨들이 계시는 소방서가 생각났다. '견물생심'이라 행여 마음이라도 변할까 싶어 장애인 활동 지원사 님과 얼른 "영주 소방서"로 달려갔다. 소방서장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적은 금액이지만 대원님들의 간식비에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다.

나의 지난 사연을 모두 들으신 소방서장님께서 "119에서는 국민들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런 일로 오래도록 잊지 않고 찾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렇게까지 하니, 정말 소름이 끼친다."라고 하셨다. "그냥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며 간부 직원들과 힘께 사진을 찍고 즉석에서 간단히 앨범까지 만들어주셨다. 또, 미담사례로 지역신문에 기사를 내야겠다고까지 하셨다.

나의 생각과 달리 일이 커진 채 소방서를 뒤로했다. 아이들의 불장난으로 시작된 나의 '버킷리스트' 하나를 28여 년 만에 겨우 지울 수가 있었다.

다음날 오전 소방서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내용은, "경북 소방본부에 보고를 했더니 행동 강령에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서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냥 마음만 받고 어쩔 수 없이 돈은 되돌려 주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오래된 나의 버킷리스트 하나를 지우고 사진만 남게 되었다.

서로가 행복한 마음을 안고 해프닝으로 끝난 채 내 손을 떠났던 인생 2막을 시작으로 인하여 생긴 첫 수확물은 또 다른 버킷리스트를 지우기 위하여 잠시 쉬고 있었다.

부모님 부양과 삼 남매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작게나마, 이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회갑 년의 생일이 되는 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버킷리스트가 있었다.

드디어 그날 2024년 음력 5월 19일이 다가왔다. 사진만 남기고 해프닝으로 끝났던 버킷리스트 여운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선생님과 영주 시청 복지정책과를 찾아갔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 담당자님께 영주 소방서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담당자님께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시청에서 내면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하셨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쓰일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셨다.

"의미 있는 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뜻있게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며 내가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로 연결을 해주셨다.

퇴근시간에 임박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했다. 행정복지센

터에서 센터장님과 당무자를 만날 수가 있었다. 그동안의 사연들을 말씀드리고 소방서에서 돌려받은 색소폰과 함께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첫 수확물인 소정의 출연료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불러만 준다면 최선을 다해 '재능기부'를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다. 작은 기념품 하나를 받으며 사진만 남기고 끝났던 버킷리스트의 여운은 또 다른 버킷리스트 지우기로 이어졌다. 이후 재능기부의 장소가 서너 곳 늘어났다.

재능기부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더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 드려야겠다는 마음에 나의 연습량도 늘어만 갔다.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의 전화가 왔었다. 보이스피싱이 만연한 때라 모르는 번호이면 평소에는 받지 않았는데 망설이다가 받아보았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이라고 했다. 다가올 영주 "시원 축제" 기간인 7월 31일에 영주시 지역 예술인 공연이 있다고 하면서 지난 "철쭉제"에서처럼 색소폰을 연주해달라는 전화였다. 그러잖아도 시원 축제에 참여하고 싶어 "강변가요제" 예심에 나갔다가 탈락했던 터라 상심해하고 있었는데 날아갈 듯 기뻤다. 많지는 않지만 소정의 출연료도 준다고 했다. 출연료보다 내가 참여하고 싶었던 축제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뛸 듯이 기뻤다. 순간,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악보를 보지 않고도 연주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비장애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마음에다 새겼다.

"가장 훌륭한 스승은 연습"이라고 말들 한다. 현재도 실명 진행 중이라 악보와 글씨는 전혀 보이지 않음은 물론 세상의 형태들마저도 나와 이별을 하자고 한다. 하지만, 청각과 촉각들은 애잔히 다가옴을 느낀다. 색소폰이란 친구와 나는 한 몸이 되어 소리를 찾으며 또 다른 버킷리스트를 지우기 위해 매진을 거듭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들의 형태마저도 나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계절 따라 산천이 변화되듯 그들이 자랄수록 변하는 목소리를 찾기 위한 마음으로 색소폰과 함께하는 최종 목표는 80세까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열심히 연주를 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로 나마 내가 받은 많은 도움들에 최대한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때까지 변함없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과 함께하라고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는 복지가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지 않은가.

나는 다짐한다. 세월 따라 다른 모습들로 강산이 변하듯 날이 갈수록 수많은 난간과 고난들이 나를 괴롭힐 것이다. 색소폰과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버킷리스트를 찾아서 지우고 또 지우며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얼마 전부터 노래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다. 재능기부를 하면서 나를 반겨주시는 어르신들에게 내가 마치 강사라도 되는 듯 짬짬이 들려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다. "행복은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산다면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곤 한다.

아들의 어릴 적 불장난으로 시작된 버킷리스트는 까아만 연탄이 불을 이어가며 추운 방을 따뜻하게 데우듯 생겨났다가 지워지기를 반복하며 나의 마음을 밝혀주고 있다. 장마철에 잠시 쉬고 있던 지난달 첫돌 지난 "버스킹"이란 녀석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운명을 발원한 은인 점자

윤 재 송

예기치 못한 항공기 사고로 형제처럼 지내던 두 동료를 잃고 그 상실감과 처참한 사고 현장의 트라우마로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숙집 할머니와 수녀님들의 기도가 인연이 되어 성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낮 미사가 끝난 후 하숙집 할머니에 등 떠밀려 성당에서 피아노 봉사를 하는 아가씨를 훔쳐보게 되었지요. 좋은 규수가 있으니 한번 보라는 권유에 그때마다 괜찮다고 거절해오던 터였습니다.

그날따라 할머니는 싫다는 내게, 옆모습만이라도 보라고 성화를 했습니다. 얼굴을 보는 둥 마는 둥 웅성거리는 틈을 타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본인 모르게 훔쳐본다는 것이 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단발머리에 하얀 이마, 검정 뿔테 안경을 쓴 것까지 다 보았다는 대답에, 겨우 그것만? 하며 언짢아하시던 할머니는 가을볕이 주님의 축복처럼 가득한 성당 마당에서 들 건너 마을을 가리키며, 저곳이 그 규수가 사는 마을로 집안이 좋고 농사도 많이 짓는다고 애써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볕 좋은 가을이면 그 들판과 나와 묶일 뻔했던 운명을 운 좋게 비켜간 그 규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머니처럼 보살펴주시며 그 규수와 맺어주려던 할머니의 고마움을 뒤로한 채,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출을 가게 된 것입니다. 내 삶

에 큰 상처를 남긴 곳을 그렇게 떠났습니다.

옮겨온 부대에서 나는 매일같이 휴전선을 따라 철책선 너머에 있는 적 부대 배치며 병력, 장비의 이동 상황을 살피는 DMZ 감시 비행을 했습니다.

어느 겨울, 나는 H봉 상공을 5천 피트 고도로 날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폭풍우 같은 거대한 터뷸런스가 나를 덮쳤습니다. 급격한 상승, 강하, 격심한 핏칭, 롤링에 요윙까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과 소용돌이로 안구에 출혈이 생겨 후송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병상 위에 두고 간 에세이집을 들여다볼 때마다 보일 듯 말 듯 안타까움에 나는 쓰라린 추락을 해야만 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 비행시간을 채워 귀국하면 민간항공에 들어가려는 것이 꿈이었는데 파월 직전 먼저 시각장애인의 길부터 걷게 된 것입니다. 실명 후 늦은 나이임에도 점자를 익힐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주어진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운명이란 어떤 초월적인 존재 즉, 하늘이나 신에 의하여 개인의 앞날이 지배되거나 좌우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운명을 '업'이라 하며 업에 의하여 윤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선행을 해야 한다는데, 내 전생이 그렇게 악업을 쌓았는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에 자폐를 겸한 오갈 데 없는 중복장애아들을 돌보며, 시각장애인 형제자매의 가정과 일터를 보살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 삶의 가치와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면 당신에게 화풀이를 하고 미워하며 견뎌왔는데, 당신과의 악연이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칠십 고개를 오르다가 청각장애라는 뼈아

픈 복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청각장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차단한다'던 헬렌 켈러의 말이 실감 났고, 선천 청각장애인으로 신부가 되었다가 뒤늦게 시각장애를 갖게 된 유대인 신부가 강연회에서 '청각장애에 시각장애가 더해지니 그것은 죽음과 같더라'던 말은 바로 내 자신의 얘기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어 손등과 볼 등에 표시를 하는 '촉지화'로 강연을 마친 그분에게 우리는 박수 대신 마루를 굴러 그 울림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을 붙잡을 수만 있었다면 그 안타까움에 당신 목을 끝까지 조였을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있다는 고립감과 단절감으로 이제는 내 삶도 마감할 때라는 생각을 다짐하며 점자를 더듬는 중에, 머릿속에서 번쩍하는 섬광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있어 점자는 단순히 망막의 감각만을 대신하는 기능이 아니라 내 영혼 전부라는 아둔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일깨움이며 은총임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점자 너머에 있는 세상을 손가락 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과 대화를 통한 소통의 삶이었습니다.

큰 비나 홍수에 의해 계곡을 따라 흐르던 물줄기가 흐름을 바꾸는 것을 발원이라 하며, 타고난 운명이나 팔자는 발원에 의해서만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시각장애에 청각장애를 더해 극한적인 고통을 내게 주어 발원이 일어나도록 해주었습니다. 지금껏 내 삶을 거머쥐고 못할 짓만 해 온 고약한 운명이라 여겼는데 이제는 내게 보람을 갖게 해준 은인이 된 것입니다.

시각장애를 주어 40여 년 동안 내게 아내의 팔꿈치만을 붙들고 걷게 한 당신이 이제부터는 손가락을 통해 내 스스로 세상과 소통하며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한 당신입니다. 그동안 내가 드린 기도가 하늘에 닿아 발원이 이루어졌다면 그것 또한 당신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보고 듣지 못해도 마음이 평온하고 몽당비 같은 머리칼과 주름투성이 얼굴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은 손가락 끝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된 발원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운명,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 해 가을, 울릉도 (2)

윤 정 열

이튿날 아침 일곱 시쯤에 작업복 차림으로 두 사람은 나갔다. 안 군이 이따 11시 반쯤에 점심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난 독도에 들어가면 영영 못 나올지 모른다고 농담을 했다. 근데 검색해보니 독도는 너울성 파도가 심해 일 년 중 약 40여 일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란다.

이제 숙소를 나서야겠다.

우선 요 옆에 모노레일을 한 번 타 본 후, 버스를 타고 사동항으로 가 볼 참이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울릉군 태하면, 울릉도 지도에서 보면 서쪽 끝 지점이다. 여기 이곳에 태하 무슨 역사 문화관이 세워진다는데 그 건물 내벽과 외벽 유리창에 실리콘 입히는 작업을 친구가 맡아 한 씨 형님과 같이 온 것이었다. 현장 앞 거북선 모형이 있는 곳이 태하역사문화관으로, 옛날 조선 시대 때 왜구들이 여기로 출몰하여 노략질을 해대는 바람에 조선 임금이 '수토사'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 왜적을 물리친 곳이라 하여 그 뜻을 기려 역사 문화관을 짓는 것이라 한다.

숙소를 나와 모노레일이 있는 바닷가까지 걸어갔다. 그런데 매표소엔 아무도 없었고 한층 더 올라가서야 거기 직원인 듯한 아주머니가 레일 탈 거냐고 묻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내 입장료를 내려

했으나 레일이 금방 떠나려는 참이니 빨리 오라는 손짓을 하고는 입장료는 장애인이라 공짜란다. 모노레일은 두 칸짜리 객차인데 멀리서 보면 재미난 괴물 같기도 하고 또한 딱정벌레처럼 생긴 벌레 두 마리가 나란히 바위산에 붙어 천천히 기어오르는 모습이다. 밖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게 뭔가 하고 신기하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앙증맞게도 생겼다. 꼭대기까지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6분 정도, 창밖으로 펼쳐진 산과 바다의 절경이 마치 다른 신비의 나라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렇게 꼭대기에 다다르니 앞쪽으로 둘레길 같은 분위기의 오솔길이 보인다. 객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모두들 그쪽 길로 가기에 나도 그들을 따라 가는데 조금 전 매표소 앞의 그 여인이 열시 반까지 오라는 소리가 들린다. 관광객인 듯 사람들을 따라 그 둘레 길을 털레털레 걷고 있는데 바로 옆으로 아찔하다 싶은 낭떠러지가 밑으로 내려다보인다. 폭이 약 2미터 그 길을 따라 걸어 '향목전망대'라는 꼭대기에 다다르니….

와우!

생전 처음 그런 아름다운 경치를 실제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믿기지가 않았다. 마치 영화 속 빠삐용이 몸을 던진 곳과 유사한 바위산과 온통 기암괴석의 산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사방으로 휘둘러있는 곳이다.

이곳 울릉도는 섬 전체가 화산체인 땅이라서 가는 곳곳마다 희한하게 제멋대로 깎아지른 절벽이 많고 그런 돌산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도로도 언덕이 많아 교통편은 그야말로 엉망이다. 도동항에서 태하 들어가는 외길 그 도로를 운행하는 버스 한 대가 있으나 운전기사가 달랑 두 사람뿐인가 보다. 지금까지 내가 네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 탈 때마다 그 기사 두 명이 내내 같이 타고 교대로 운전하는가 보았다. 태

하 향목전망대 여기저기를 구경하다가 모노레일 운행시간을 한 타임 넘겨버렸다. 그래서 거기 옆 태하 등대 주위까지 구경하고 그길로 내려오는데 그때서부턴 조금 완화됐던 허리통증이 또 도지기 시작한다. 하긴 이까짓 통증쯤이야 거의 날마다 달고 사는 삶이라서 그다지 신경 쓸 것도 못 되지만 견딜 수 없이 심하면 배낭 안의 등산용 지팡이라도 빼내어 짚어야 할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무사히 내려왔다.

한 타임 늦게 내려오니 점심시간이 가까워온다. 버스를 타고 사동항으로 나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안군한테 전화가 온다.

"어디냐?"

"모노레일 타고 내려가는 길이다. 사동 가는 버스 정류장 걸어가는 중."

"그래? 그럼 식당으로 와. 밥 먹고 가라."

식당에서 기다리니 안 군과 한 씨 형님이 실리콘 자국들이 묻은 작업복차림으로 식당으로 들어섰다.

"옷에다 일부러 그렇게 칠한 거지?"

"으하하하."

점심을 먹고 사동항으로 나가는 버스를 탔다. 거기서 울릉도 유람선이나 한번 타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으나 사동항에서 딱 내리니 그야말로 썰렁하기 이를 데 없다. 사람들도 없고 가끔 화물선 짐 싣는 입구를 들락거리는 짐차들만 왔다 갔다 한다. 마침 하역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핸드폰에 문자를 찍어 물어보았다. 저 유람선 타려면 어떻게 타는 거냐고. 그 사람들은 나를 한 번 더 훑어보더니 오늘 날씨가 흐려서 유람선 운행을 안 한단다. 하긴 사람들이 이래 없는데 무슨 놈의 유람선을 띄우겠는가? 아쉬운 마음으로 일단 버스를 타고 그나마 사람들

로 붐비는 도동항으로 가려고 기다리는데 앞의 산 쪽으로 무슨 계단길이 올라가 있는 게 보여 가까이 가봤더니 울릉도 자생식물원이라는 팻말이 보인다. 물론 거기도 예외 없이 깎아지른 돌산에 나무 계단을 설치해 놓은 곳이다. 한 발 한 발 힘들었지만 정상까지 올라가니 온갖 희귀한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멀리 울릉도 성인봉인 듯한 봉우리가 흐리게 보인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고 이내 빗방울까지 툭 툭 떨어지는 것도 같다. 이런 날에 무슨 뱃놀이를 한답시고 길을 나섰는가 말이다. 끝내는 울릉도 일주 유람선도 못 타보고 주위 안내판을 보니 저동항 부근의 봉래폭포라는 곳이 있다 해서 한번 가볼까 하고 사동항에서 택시를 기다렸건만 택시는커녕 오가는 차량도 뜨문뜨문하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그 태하행 버스기사 양반이 지나가다 나를 보더니 운전석 창문을 열고 어디 가냐고 물을 정도로 한산한 도로 위에 서 있었다. 썰렁한 부둣가 앞에서 30분 넘게 기다려 간신히 택시 한 대(그것도 합승)를 집어타고 봉래폭포로 향했으나 시간이 안 맞는단다.

기사 왈, 거기 주차장에서 폭포까지 올라가려면 넉넉잡아 한 시간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데 몸도 그렇거니와 시간도 촉박할 것 같아 폭포고 뭐고 다시 도동항으로 되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도동항에서 태하 들어가는 버스를 탔더니 또 아까 나올 때의 그 운전기사였다.

도동항에서 태하까지는 꽤 먼 거리다. 버스로 한 4~50분 거리인데 도로 사정이 엉망이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들은 반드시 멈칫해야만 원활하게 오갈 수 있는 차도고 게다가 가운데 중앙선도 마치 날카로운 송곳 같은 걸로 그냥 쭉 그어놓은 듯이 보인다. 게다가 오르막 내리막길에다 완전 360도 회전하는 경우가 많아

서 창밖으로 옆을 내려다보면 정말 아찔아찔하기도 하다. 하긴 어제 갔었던 저동항 부근의 주민민원센터라는 곳이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을 정도이니 말 다 했다.

버스가 남양이라는 곳을 지날 때 여지없이 안 군한테 전화가 왔다.

자기 일 끝났다고…. 저녁 시켜놓았으니 빨리 오라고.

태하에서 내려 펜션으로 들어가 보니 안 군은 벌써 씻고 나오고 한 씨 형님이 씻고 있는가 보았다. 바로 옆 중국집에서 육개장과 탕수육을 시켰는가 본데 고량주 한 병을 서비스로 가지고 왔다.

지난밤 우리는 우리들만의 울릉도 쫑파티를 했다. 적지 않은 술을 세 명이서 주거니 받거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노벨상 얘기 등등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로 밤늦도록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당연히 글 한 줄 쓸 시간이 없었고 쉬 곯아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안 군의 그동안 몰랐었던 부분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동안엔 그저 인정 많고 자상한 친구로서의 모습으로만 보였었는데, 자신의 부하직원을 다루는 모습은 여태까지 봐왔던 이미지와는 상이하게 달랐다. 상하관계의 맺고 끊는 법이 아주 냉정하다는 것을 언뜻 느끼게 하였고, 그로 인해 한 씨 형님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며 무안해하는 모습도 보았다.

새벽에 제일 먼저 잠에서 깨어 이 글을 마저 쓰려 하는데 옆에서 자던 안군이 일어나더니 늦었다며 어제처럼 라면에다 밥을 후루룩 말아 먹고 바삐 현장으로 나갔다. 친구는 오늘 오전까지 일이 잡혀있었는데 오전 일을 끝내고 오더니 일이 좀 틀어졌는지 며칠 있다가 또 와야 한단다. 7시부터 10시쯤까지 일을 하고 끝나자마자 들어와서 대충 씻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며 하는 말,

"정열아 며칠 있다 나랑 또 올래?"

"안 되지~~ 내가 너처럼 집에서 내놨는지 아냐?"

오전에 우리는 차에다 자재들을 다 실은 후 곧바로 배 출발시간에 맞춰 사동항으로 달렸다. 오다가 이상하게 생긴 바윗돌 하나가 눈에 띄어 사진 좀 찍고 가자 했더니 "시간이 안 되겠는데요~~" 하면서 씨익 한번 웃었으나 이내 그 앞에다 세워줬다. 한 씨 형님과 나는 차에서 얼른 내려 잠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안 군은 그런 거엔 별 관심이 없다는 듯 차에서 내리지도 않는다.

도로 옆으로 집채만 한 돌이 하나 굴러들어와 위엄 있게 앉아있었다.

사자바위란다. 일명 투구바위로도 불리는 이상하게 생긴 검은 바윗돌로 안내판을 읽어보니 옛날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토벌할 때 목 사자를 만들어 우산국 병사들을 크게 무찔렀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란다. 그러고 보니 모양이 꼭 사자 얼굴 같기도 하다.

날씨는 그제 어제와는 달리 햇살이 따사로운 한낮이다. 만일 어제 이런 햇살이 나와 주었더라면 기어코 독도 땅으로 입성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생각을 하니 아쉽기는 해도 별 수 있나. 우리는 그곳을 나와 도동항에 도착해 차를 맡기고 점심으로 따개비 칼국수를 먹었는데 그네들은 별미로 먹었다지만 나야 며칠 전 그 곰치국처럼 이번에도 전혀 아니올시다다. 비싸기는 또 뭐 그리 비싼지.

우리는 드디어 묵호항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친구와 한 씨 형님은 배에 오르기 전 노란 병뚜껑의 그 멀미약을 먹었으나 난 안 먹었다. 지금 여기는 배의 제일 뒤편 4층 우등석 휴게실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자고 있다.

끝도 없는 망망대해,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거라곤 온통 바다와 하늘…. 짙푸른 파도가 출렁이는 모습이 그 옛날 흑해를 헤엄쳐 가는 영

락없는 '곤'의 모습일 것도 같은 실로 어마어마한 춤사위로 보인다. 마치 구만리를 헤엄쳐 온 듯 저 뱃길에 부서지는 삶의 수많은 흔적들이 포말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정녕 하얀 거품으로 사라져버린 지난날의 삶을 돌아다본다.

서서히 배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창밖으로 자그마한 배들이 보이고 멀리 강원도의 어느 산인 것도 같은 육지 광경이 희미하게 눈앞으로 들어오고 이제야 묵호항에 도착했는지 배가 옆으로 스르르 돌아서고 있다. 이윽고 배가 정지되고 좁은 출구엔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즐비하게 들어차고 있다. 이로써 울릉도 도동항에서 1시에 출발한 씨스타 7은 저녁 다섯 시쯤 묵호항에 도착했다.

묵호항에서 차를 전달받아 곧바로 서울행 길로 접어들어 진부터널을 지나고 있다. 6시 15분. 차창 밖 산 너머의 하늘빛이 진청색으로 변해갈 즈음 어둠 속으로 묻혀가는 산등성이들의 모습은 아까 그 곤의 등허리처럼 새까맣다. 옆자리에서 운전하는 안 군은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멋드러지게 흥얼거린다.

안 군은 노래를 엄청 잘하는 친군데 좋아하는 노래 스타일도 나랑 흔한 말로 코드가 맞았다. 전에 가끔씩 나랑 노래방에 가면 둘이 꼭 부르는 18번이 몇 곡 있었다. 바로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김범수의 '약속'이다. 난 가끔 이 친구랑 노래를 부르면 나의 심한 언어장애가 반으로 확 줄어드는 걸 느끼곤 했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내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도로는 또 공사 중인지 엄청 밀린다. 낼 아침 또 파주 현장에 가야 할 몸인데도 내 이 정다운 친구는 불평 한마디 없고 오히려 국가 대사 때문에 밀리는 건데 그러려니 해야지 짜증내면 나만 손해라며 앞으로 정

렬 뒤로 정렬 하면서 나를 놀려대기까지 한다.

이 친구와 내가 처음 만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마흔 넘어 만난 사회 친구인데 언젠가 한 번은 안 군이 사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주머니에 버스값 몇천 원이 없어 한겨울 늦은 밤에 수서역에서부터 세곡동까지 그 눈보라 속을 걸어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는데 하루는 내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까지 닥친 거였다. 그때 아무 말 없이 그리 크지 않은 얼마를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달라는 말 한 마디 안 하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고마웠었다고 어젯밤 한 씨 형님한테 하는 소리를 들었더랬다. 그 후 물론 이자까지 돌려받았고 만날 때마다 들어가는 돈을 전부 자기가 부담하는 친구다. 계속 그러니 부담이 되서 만나기조차 뭐했는데 여전히 바쁜 일상 중에서도 가끔 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그런 자상하고 내겐 더없이 소중한 친구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만큼 복잡다양하고 좋은 것 같으면서도 또한 그것만큼 골칫거리가 또 있으랴!

아홉시가 넘어가는 시각, 곤지암으로 들어가는 중부고속도로가 계속 밀리고 있다. 곤지암만 넘어가면 광주를 지나 성남으로 들어선다.

안 군은 모란역에서 나를 내려 주며 아까 도동항에서 산 마른 오징어와 울릉도 호박 젤리를 굳이 내 가방 안에 정성껏 넣어주며 신호 떨어졌다고 어서 빨리 횡단보도를 건너라 한다. 친구는 사흘을 내 곁에서 꼭 붙어서 잤고 한 씨 형님한테는 모르겠으나 나에게 만큼은 줄곧 내내 정다운 날갯짓을 보였다.

여행이란 그렇다. 여행은 그렇게 돌아다니며 보고 일일이 사진 찍는 맛도 있겠지만 보고 느끼고 문자로 기록하는 게 더 흥미롭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병 옥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시 행정도우미로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이병옥입니다. 24세에 교통사고로 오른손을 잃고 왼손으로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매사에 자신감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우울증을 앓으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의기소침하게 혼자 생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하던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서툴고 어려웠던 과정들이 지금은 소중한 추억과 나를 성장시킨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행정도우미로 업무를 배우며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에 무한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저의 일인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며 내 자신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불편한 한손일지라도 내 손이 먼저 나아가고 내 발이 먼저 나아갑니다. 일은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이 주 한

1972년 겨울, 혹독한 추위만큼이나 몸과 마음이 다 얼어붙었다.

나는 1952년 수원에서 2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6·25전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던 2살 때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평생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으로 살아왔다. 어릴 땐 '절름발이 또는 다리병신'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그 시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부족과 편견이 심했다.

장애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아이스케키 통을 메고 장사를 하거나 고철을 주워 팔 때는 중학교 교복을 입고, 교모를 쓰고 다니는 학생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나 자신이 한없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던 시절을 겪었다.

그 후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 진학은 가정 형편상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런데 전액 국비로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립직업훈련원(이하 훈련원)에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바로 이곳이!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바로 입학시험을 준비했고, 꿈이 생겼으니 공

부가 저절로 되는 것 같았다. 의욕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얼어붙은 몸과 마음에 불을 지피려고 했다.

1972년 시험에 응시했다. 1차 학과에 합격, 2차 면접과 체력 검사에서 불합격됐다. 훈련원 담당자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어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음 연도(1973년)에 다시 도전, 그런데 또 탈락했다. 꿈은 무산되었고 마음에 큰 상처만 남았다. 생을 끝내고 싶었다.

21살 청년의 꿈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발표 다음 날, 라이터용 휘발유를 준비해서 분신하려고 훈련원 원장실을 찾아갔다. 막 실행하려는 순간 직원이 나를 붙잡았고, 원장님은 "노동청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해 보라."고 나에게 조언해 주었다. 유서까지 써놓고 모든 것을 끝내려 했지만 그 일도 쉽지 않았다. 아주 조그만 희망의 불씨를 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나는 탄원서가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어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입학식 2주 지난 날 추가 합격자로 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라는 말은 진리였다. 희망의 불씨가 살아난 '평생 잊지 못한 순간'이었다.

덕분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 후 취업엔 또 다른 장벽이 있었지만 교사로서 40여 년을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쳤고, 수많은 장애인을 사업체에 취업시켰다. 제자가 면접을 보러갈 때 직접 운전하고 동행해줬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제자 중

1995년도 호주에서 개최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하여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국위를 선양했다.

차갑게 얼었던 곳에서 타오른 '희망의 불씨'는 이제 다른 곳에서 타오르고 있다. 퇴직 후 장애인인식개선 강사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독서 토론, 글쓰기 배우기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의 라디오 DJ로 활동하며 소소한 팬들을 확보하는 등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누구나 놓고 싶지 않은 꿈이 있다. 그러나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인생은 단맛도 있지만 어쩌면 쓴맛이 더 크기 때문일 거다. 만약 그 겨울,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난 그 불씨를 믿으며 오늘도 일을 하고, 또 글을 쓰고 있다.

내 귀에 자연

임 미 진

가방이 무거운 건지 내 몸이 지친 건지 여름이라서 그런지 뜨거운 태양을 머리와 어깨에 이고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도 내 발걸음은 어김없이 늘 가는 곳으로 향했다. 나를 위해 자리를 내주는 벤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걷는 동안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휴지통에 던져 버리고 편하게 숨 돌리며 앉았다. 지친 나의 무거운 엉덩이를 받쳐 주는 곳.

나는 속으로 "어우 나무로 만들어진 벤치, 너도 너의 운명 고달픈 만큼 참 대단하다. 나뿐만이 아닌 모든 이의 무거운 엉덩이를 받쳐 주려고 만들어졌구나.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했다.

내 엉덩이가 무거워서 벤치 너에게 조금 미안해진다. 땀 냄새가 날 텐데 최소한 방귀는 참아줄게.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나를 반기는 벤치는 일명 '특급 좌석' 벤치 앞뒤로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였다.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자리가 있듯이 자연이 내어 주는 제2의 나의 안식처이자 집, 나무들은 나 대신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마치 양산을 들고 서 있는 거 같았다.

"덥지? 내가 너의 양산이 되어 줄 테니 너는 내 몸의 일부가 된 벤치로 만들어진 곳에 앉아서 눈 감고 하루의 고단함을 내게 맡기고 기대

어 봐! 난 기꺼이 네가 편안해질 때까지 묵묵히 네 자리를 지킬게."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내쉴 곳이 있다는 안도감에 고마워서 벤치를 툭툭 치니 벤치에도 나무에도 내 속마음이 전달된 걸까? 지친 누군가에게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는 자기의 제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에 나무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나무야! 나무야, 이제 네 차례야. 어서 시원한 바람을 불러와 봐, 나의 고단함을 알아주는 내 좌석의 주인인 친구에게 시원한 바람으로 보답하고 싶어졌다."라고 말하는 거 같았다. 한 5분, 아니 10분이 지나니 뜨거운 태양 아래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여름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땀이 맺힌 나의 이마와 얼굴에 살짝 선풍기 같은 바람이 시원했다. "아! 좋다!"라고 혼자 되뇌며 미소 지으니 나무는 내 말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입김으로 초록색인 싱그러운 나뭇잎들을 더 흔들어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는 것 같았다. 이 시원함은 미니 선풍기로 둔갑한 것 같았다. 내가 고마워하면 나무들도 고맙다고 답을 하는 듯 신나게 흔들어 대는 것 같았다. 춤을 추듯 신나게 흔드니 아이스커피와 선풍기를 불러온 듯 나도 불러 보고 싶었다.

벤치와 나무들 덕에 나는 오늘도 내 귀에 마음에 감사함이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채우고 있어서 좋았다. 이런 감사함을 모아서 나의 소중한 가족들, 아이들, 그리고 새와 꽃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오늘도 감사함 하나를 저축했다. 여름도 시원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하다가도 가을이 문득 생각나는 날도 있기도 했다.

몇 달째 기나긴 더위와 폭염이 물러가고 더위를 견디느라 애쓴 나무들도 숨을 돌리려 할 때쯤, 여름은 언제 갔을까? "여름아! 잘 가."라는 안녕이라는 인사도 못한 채 여름은 간다는 말도 없이 가버렸다. 여름

이랑 지내느라 힘든 시간을 버텼을 수고를 뒤로한 채 무정하게 가 버린 걸까? 조금이라도 땀을 닦고 숨 돌린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뭐가 급해서 잠도 뒤척이고 나무도, 새도, 별도, 길가의 풀들도 '덥다 더워 죽겠어'의 아우성을 뒤로한 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모든 고뇌를 순식간에 내려놓고 가버렸다. 차가운 냉수를 벌컥벌컥 즐겨 마셔 머릿속까지 시원해지고, 생맥주와 아이스커피를 여름에 먹어야 최고이듯이 이런 즐거움까지 다 가져가버렸다.

아직 내 손에 놓여있는 책 속에 들어있는 여름 이야기를 천천히 읽으려는데 손에 땀이 나서 도대체 힘이 없는 건지 여름 길 자락의 마지막 페이지를 내 힘으로 넘겨지지 않더라. 여름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여름아! 안녕 잘 가."라는 단어가 있었다. 이 단어는 어디로 보내야 할까? 아직 못다 한 말들이 많은데…. 나의 집 입구에 우편함이 있듯이 하늘에도, 나무에도, 우편함이 있겠지. 혹시나 나무 사이에 새들이 머무는 새 둥지에 편지를 두면 새들도, 몰래 가버린 여름도, 잠시 와서 읽어 줄까. 편지를 쓸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에 편지가 와있었다. "똑똑!" 누군가 내 귀에 노크를 하였다. 누굴까? 신일까? 여름을 밀어내려고 알려주러 온 가을의 첫 화음 '도'라는 피아노 소리일까? 아니면 내 마음의 여름에 대한 '잘 가'라는 소리를 들은 여름의 마지막 인사일까?

"안녕? 나 가을이야." 마음의 문을 열고 편지를 펼치니 가을이 내려와 시원하게 인사를 건네며 내게 살며시 말해주었다. "그동안 힘들었지? 그간 쌓인 더위만큼 편지 봉투에 우표 여러 장 붙여서 특급 등기로 여름을 빨리 급하게 보내버렸어." "아! 가을이가 너였다? 여름이가 나이만 갈래라고 인사도 없이 급하게 가버렸는데…. 가을이 네가 오려고

빨리 보내 버린 거라니…. 가을아 고마워! 덕분에 상쾌하고 시원해. 어서 와 가을아!" 가을이 내게 위로와 예쁜 말로 다가왔었다.

내 주위의 새들도, 나무들도, 풀들도, 별들도, 서로 안녕하며 가을이의 방문을 환영이라도 하듯이 노래 부르며 지저귀고 흔들흔들 살랑살랑 바람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별들도 더 반짝거리고 있었다. 세상의 시끄러움과 숨 막히게 했던 더위를 다 보내버리고 초록의 신선함을 담아 세상에서 제일 푸른 모습으로 상쾌하게 인사한다. 가을이가 내 마음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가을아! 가을아 언제 오니? 어서 와!라고 나를 불러 주는 네 마음 들었어. 순간순간 곧 간다고 넌지시 살짝 무엇의 바람을 보냈는데 뜨거운 여름 때문에 나를 못 느낀 것 같더라. 나도 이번 여름이하고 길고 긴 싸움에 지쳐서 나도 밀려났어. 좀 더 일찍 와야 했는데 무슨 고집이 그렇게나 센지 여름이가 도통 물러가지 않더라. 여름이가 네 곁에 더 머물고 싶어서 그랬을까? 하지만 나는 가을이고 여름에게 여름이 끝나고 가는 자리에 '상쾌하고 아름답게 잘 버텼어.'라고 당당하게 말해 줄 준비가 되었을 때 너의 앞에 나타나 손잡아 주고 싶었어. 너도 나도 새들도, 꽃들도, 아이들에게도 잘 버텼다며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주는 응원이란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응원이라는 단어는 멋있지 않아? 잊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든 힘든 역경과 고비에서도 서로 응원해 주는 거 잊지 말자, 응원하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매일매일이 가을의 푸르고 맑은 소리가 늘 맴돌 거야." 하고 예쁘게 들려주는 것 같았다.

나는 가을이가 머문 곳마다 다가가 노크를 하였다. 오늘은 어떤 응원을 하면 되는지. 자연이 주는 어떤 기대와 설렘을 안고 가면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마음에 와닿게 자연이 주는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고 싶었다. 비록 보청기에 의지해 사람 말소리를 잘 못 듣지만 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라고 나에게 자연의 모든 소리를 내 마음에 가져와 준 거 같았다. 아낌없이 피톤치드를 한가득 내뿜는 나무들 덕에 나는 귀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았다. 길가에 꽃들과 풀들이 여러 물감으로 색칠한 듯 더 푸르고 짙어서 마음과 눈에 담게 해주니 아름다운 것만 보고 들리는 것 같았다. 합창을 하듯 어딜 가도 들리는 여러 새들의 노랫소리가 세상 소리와 가수들보다, 악기보다 더 신비로운 소리로 들려주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자연이 고마웠다.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불신이 가득한 내게 나는 응원이라는 것을 할 줄 몰랐다. 이제는 자연이 주는 감사함에 여기저기 응원을 날렸다. 마음에 내 귀에 담아 온 자연들, 내가 할 수 있는 특권은 이것뿐이기에, 사진이나 글로 자연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나는 자연에게 잠시 빌려 와서 보여주고 싶었다. 이건 순전히 자연의 힘이었다. 이리저리 치여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내가 자연 만큼이나 값진 선물을 나처럼 응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푸름이란 모습을 전달하고 싶었다. 시큰둥한 사람도, 반응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람도 있다. 누군가를 즐겁게 했다는 기쁨에 자연이 내게 준 선물은 값지다. "자연아 고마워!" 힘들면 언제나 쉴 수 있는 자연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만 주는 혜택인 거 같아 감사할 뿐이다. 그대들도 자연을 찾아 응원도 받고 힐링하기를 바라본다.

자연이 기다리고 있다. 떠나자! 응원 가득 안고 돌아올 마음 준비하고 떠나라! 부디 다 내려놓고 자연의 아름다운 좋은 것들만 가득 안고 왔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새소리 들었다고 누군가에게 분명 말할 것이다. 그럼 그 사람도 당신과 같이 자연 속으로 떠나고 싶어 할 것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서 말이다. 다녀와서 듣지 못하는 나에게도 들려주기 바란다. 그대의 두 귀에 어떤 자연들이 노래하는지, 그대의 두 귀를 빌려 들어보고 싶다. 함께 걸으며 "들어봐! 새소리가 들려?" 못 듣는 나를 배려하며 알려 주는 예쁜 귀를 가진 그대가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내게 들려주었다.

늘 찬송과 그의 주님의 아름다운 주옥같은 좋은 말씀만 들은 귀라서, 감사함이 가득 찬 사람이기에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놓치지 않은 것만 같았다. 내 눈에는 자연을 말하는 그대 입술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다. 물욕에 어두워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귀가 불편해서 못 듣는 내가 더 행복하다. 지금이라도 마을의 다 내려놓고 자연이 부를 때 꼭 떠나서 당신의 마음과 귀가 힐링되었으면 한다.

"자연아!! 고맙다."

엄마의 빈자리

장 길 숙

나는 네 시간을 죽었다가 깨어났다. 긴 시간을 수술대 위에서 살을 찢고 톱으로 뼈를 잘라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죽은 몸이었다. 어린 자식을 두고 병마와 싸우는 간절함을 누가 알까. 나는 수술대 위에서 마취제에 아무것도 모르고 몸을 맡겼다. 나는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흙덩어리였다.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어렴풋이 꿈을 꾸었다. 어딘지 모를 어느 들판이었다. 소들이 길게 고삐에 묶여 풀을 뜯고 있었다. 방죽 물에는 햇빛에 윤슬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이들이 소를 고삐에서 풀어 주었다. 물수제비를 뜨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납작 돌을 주워 몸을 옆으로 숙여 물수제비를 떴다. 아이들 응원 소리가 와! 와! 들려왔다. 수술 중에 어린 날이 꿈에 오다니 아이러니했다.

집에 두고 온 젖먹이가 눈물범벅이 되어 울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내 몸은 어딘가 단단히 갇혀있었다. 집에 가야 하는데, 나는 왜 꿈쩍도 못 하고 이렇게 누워만 있는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비몽사몽 헛소리를 했다. 나는 긴 시간의 수술을 잘 견뎌냈다. 깨어나지 못해 꿈을 꾸는지 아무도 몰랐다. 꿈에

서 깨어나 일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수술 부위에 통증이 왔다. 진통제를 투여해 통증을 완화했지만, 약 기운이 있을 때만 통증이 가라앉았다. 수술 부위에 통증은 계속되었다. 계속해서 진통제를 맞을 수 없었다. 아무리 아파도 진통제를 거부했다. 진통제를 투여하면 늦게 낫는다고 했다.

일어나고 싶어 용을 썼지만, 나는 옴짝달싹 못 하고 석고 깁스 속에 갇혀 있었다. 아무리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몸, 꼼짝 못 하고 석고 속에 갇혀서 눈물만 흘렸다. 어린 딸이 걱정되어 하염없는 눈물만 꽁꽁 언 고드름이 햇볕에 녹아내린 듯 뚝뚝 떨어졌다. 수술 부위는 계속 아프다고 짜증을 부렸다.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못 견딜 지경이었다. 병원에서 고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누워서 남편이 떠먹여 주는 밥을 먹는 일뿐. 아무것도 내 손으로 할 수 없었다. 대소변도 나 혼자서 볼 수 없었다. 그렇게 넉 달을 방 안에서 누워서 살아야 한다니.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간신히 수술 부위에 상처가 나아지자 집으로 퇴원할 수 있었다.

끼니때마다 누워서 먹는 밥이 쉽지 않았다. 남편이 나를 엎드리게 해 주었다. 엎드려서 먹는 것이 더 편안할 것 같았다. 군말 없이 아이들을 위해 얼른 일어나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개처럼 엎드려 밥을 먹었다. 여름이 되자 깁스에 갇힌 몸이 뜨겁고 가려웠다. 남편은 깁스 곳곳에 톱으로 구멍을 뚫어 주었고 구리철사를 구부려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다. 구리철사 하나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약간 따갑긴 했어도 시원했다. 아무리 가려워도 손으로 벅벅 긁을 수 없어 참아내야 했다. 여름에 시원한 물로 샤워하고 싶었지만 그림의 떡이었다. 다섯 살 딸아이가 구리철사로 자기도 긁어주겠다고 나섰다. 이제 돌 지

난 어린 것은 엄마가 아픈 것을 눈치채고 보채지 않았다.

나는 결혼 후, 아프기 시작한 다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죽을 만큼 아프지 않다면 조르르 병원에 달려갈 형편이 못 되었다. 아프다가 멀쩡하고 잊을 만하면 다시 통증이 왔다. 그때마다 이러다 낫겠지 싶었다. 시간이 지나자, 엉덩관절은 하루도 삐걱하지 않은 날이 없이 칼로 에는 것처럼 아팠다. 이러다간 아예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을 것 같았다. 다리가 아픈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캄캄했다. 수소문 끝에 다리를 잘 본다는 정형외과에 찾아갔다. 혈액검사를 하고 X레이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결핵성 관절염,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병이었다.

불현듯, 어렸을 때 심하게 앓았다는 얘기가 떠올랐다. 엄마는 들에 나가 일을 해야 하니 큰집 언니가 나를 업었다. 그때 언니 등에 업힌 내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고 했지만, 나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때 다친 다리의 후유증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서 운동회 때, 달리기할 때도 무리 없이 1등은 못 했어도 3등은 했었다. 농사일도 하고 높은 산에 소풍도 가고 별 탈 없이 지냈었다. 결혼 후, 임신하자 몸이 무거워져 다리에 무리가 갔던지 아프기 시작했다. 원장님은 약물치료 시기를 놓쳐 수술해야 한다고. 눈앞이 캄캄했다. 우리 아기는 어쩌면 좋으냐고. 아직 한참은 더 엄마 손이 필요한 아기였다. 어린 것을 두고 수술해야 한다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서러움 반, 걱정 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막막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 어린 자식을 떼어놓을 걱정이 먼저였다.

그때 다친 나를 고치려고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엄마가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 심정이 어떨지 헤아려졌다. 젖먹이를 떼놓고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내 처지와 나를 업고 정신없이 뛰었던 엄마의 그 심정과 무엇이 다를까.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었다. 어린 시절, 늘 엄마와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이 어른이 된 지금도 허기가 진다. 내가 엄마처럼 그 자리에 섰을 때 나 역시 엄마의 부재를 비껴가지 못했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자식들에겐 엄마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싶었다. 그런데 다리를 수술하고 몸이 온전치 못한 바람에 엄마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다.

아이가 조막 같은 손으로 딱딱한 깁스 위를 긁어주었을 때 코끝이 찡했다. 제 딴에는 엄마가 가렵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기특하게도 큰애는 울고 있는 동생들을 잘 돌봐주었다. 아이의 눈에는 구리철사가 신기한 장난감으로 보였을까. 그걸 갖고 놀겠다고 징징거리기도 했다. 간신히 아이를 달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눈물이 고였다.

온종일 방 안에 갇혀 꼼짝도 못 하고 누운 내게 남편은 책을 구해 주었다. 그때는 책도 흔치 않았다. 그렇게라도 해서 나를 위로해주는 남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러나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어서 일어나 어린 것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친구가 와서 머리를 감겨주었다. 남편은 대소변은 물론 생리까지 처리해 주었다. 어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달거리는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찾아와 힘들게 했다.

그렇게 누운 채로 견딘 시간을 보내고 나는 다시 봉고차에 실려 병원에 갔다. 깁스를 풀었다. 깁스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당장 앉지도 서지도 못한 나무둥치였다. 여전히 자유롭게 화장실에도 가지 못했다. 몇

주가 지나서야 간신히 목발을 짚고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혼자서 운동을 하며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피나게 노력했다. 나 스스로 걷는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하기만 한 일이 내게는 큰 기쁨이었다. 그때 내 마음은 그랬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엄마가 반듯하게 걷지 못하는 다리를 보고 행여 아이들이 놀림 받을까 봐,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학부모로 학교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그래도 학부모들이 급식소에 가서 번갈아 가며 봉사할 때도 빠지지 않았다. 아이들의 속마음은 속속들이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얼마나 몸이 건강한 엄마가 부러웠을까. 나는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엄마였다.

아이들 소풍 길에도 따라나섰다. 봄이 되면 사생대회에도 버스를 타고 같이 갔다. 아이들은 다행히도 잘 커 주었다. 그것은 큰 보람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더듬어본다. 어떤 큰 힘이 나를 지지해 주고 이끌어 주었을까.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나를 세워 주었으리라. 생각할수록 그런 마음이 든다. 내게 일어난 일들은 기적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도 열심히 뭔가를 끊임없이 배우는 중이다. 수채화를 배우고 캘리그라피 붓글씨를 배웠다.

남편의 그늘 또한 그에 못지않았다. 사 남매는 각자 제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때 코흘리개 막내가 커서 여군장교를 전역하고 보건 선생이 되어 제자리 지키며 보람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남편은 늘 나에게 공부하라고 재촉한다. 커피까지 끓여다 준다.

편안하게만 온실에 화초같이 바람 한 번, 비 한 번 맞지 않고 살았다면 인생의 깊이를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들에 피어있는 들꽃처럼 비

바람 맞아가며 흔들리며 살아왔다. 밤이면 이슬 맞고 숨을 죽이며 살아왔고, 서리 내린 날이면 추위에 웅크리며 모닥불을 그리워했다. 아침마다 촛불 켜고 올리는 기도가 하늘에 닿아,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잡고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누구나 추호 천사가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다. 추호 천사가 나를 지켜주었듯, 미약한 사람이라도 추위에 떨고 있는 누군가에게 모닥불이 되고 싶다.

아카시아가 피어나는 올봄이 기대된다

전 정 숙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 풍기는 어느 봄에 소망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난 10살 철부지 아이였다. 가족 품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나와 비슷한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어린 나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가방을 싸서 한쪽 발로 밀어가며 집에 가겠다고 가출소동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 울보 고집쟁이로 유명하던 내가 말썽을 일으킬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가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하나하나 포기하지 않고 알려주셨다.

시간이 흘러 12살 되던 해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혼자서 밥을 먹기 위해 동그란 냉면 그릇에 물을 담아 숟가락으로 먹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 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못하는 나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는 드디어 밥을 한 수저씩 혼자 떠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반은 흘렸지만, 나머지 반은 혼자서 먹는 실력까지 되었다.

다시 아카시아 향기가 풍겨온다. 열세 살이 되던 해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우리 반 학우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으므로 읽기 쓰기보다는 동

요나 옛이야기 등을 테이프를 통해 듣기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4학년이 되던 해에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첫 수업부터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러웠다. 3년 동안 테이프로만 수업을 하다가 칠판에 '2+2='이라 쓰고 물으셨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식은땀만 줄줄 흘렸다.

그때부터 우리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하게 되었다. 칠판에 선생님께서 문제를 직접 써 주시면 우리가 암산으로 계산하여 답을 말하고 다시 칠판으로 옮겨 적어서 한 문제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는 수업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한 학년이 끝날 때 선생님은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 주셨다. 더하기 빼기부터 시작한 우리는 1년 만에 구구단까지 외우게 되었다.

5학년이 되었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우리가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고 책을 소리 내어 읽게 함으로써 우리의 발음도 많이 교정해 주셨다. 그 후 나는 많은 책을 소리 내어 읽으며 정확하지 않은 발음을 교정하는 연습을 열심히 했다. 만약 지금의 내 모습을 그분이 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그곳에 있는 나와 같은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무엇이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우리도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다만 다른 사람보다 한발 늦는 것뿐이라고."

다시 아카시아 활짝 핀 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그때의 나는 중학교에 가고 싶었다. 그때 마침 단국대 봉사동아리에서 공부방을 열게 되었다. 나보다 한두 살 많은 언니와 오빠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참 좋았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어느 날 언니 오빠들이 두 손에 시험지를 들고 교실에 들어와서 시험

지를 나눠주며 한 언니가 대필해주겠다며 내 옆에 앉았다. 에고 태어나서 시험이란 걸 처음 보았다.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그렇게 두 가지밖에 안 보였다.

창문을 활짝 열어 놓으면 또다시 방 가득히 아카시아 향기가 풍기는 봄이 되었다. 그때 내 나이 스물,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난 남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싶었다.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서 짧은 치마를 입고 한쪽 손에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며 뽐내고 싶었다. 긴 머리 풀어 헤치고 귀걸이, 목걸이를 예쁘게 하고 미팅도 해보고 싶었다.

속보다 겉모양을 더 많이 꾸미고 싶었던 그 시절에 난 동갑내기 소중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그 친구가 철없이 겉모습에만 치중하던 내게 해준 말이 있다. "우리는 외모보다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보자." 일주일에 한 번씩 내 곁에서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해주었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지금까지 든든한 삶의 동반자가 되어 주고 있다.

이십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는 외모보다 마음이 더 매우 예뻐져 있다고 믿고 있다. 지금 그 친구는 특수학교 선생님으로 나와 같은 친구들의 벗이 되어 주고 있다. 아마 그 친구는 내게 가르쳐준 것처럼 또 다른 친구들에게 외모보다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가르쳐주고 있을 것 같다. 나 또한 갓 스무 살이 된 그곳의 동생들에게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마음을 예쁘게 가꾸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말해주었다.

어디선가 아카시아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오고 있다. 서른셋의 난 또 다른 시작을 하였다. 3년 동안 다니던 경원대학교 사회교육원은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를 탄 우리에겐 너무나 힘겨운 곳이었다. 강의실에 들

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었다. 서른셋의 난 홀로서기를 해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분당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문화센터에 혼자서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 갔을 때는 선배님들과 한마디 말도 못 했었는데 차츰 함께 차도 마시며 희망을 나누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내가 살던 소망재활원에서 문화센터까지 재활원 차량으로 다니면서 시야가 좁아졌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재활원 차량이 고장이 나서 장애인 콜택시로 와야 한다는 전화였다. 눈앞이 캄캄해져서 20여 분 동안 말을 버벅거리며 콜택시 기사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약속 장소로 찾아갔다. 서로 의사 전달이 잘못되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를 찾으러 돌아다니던 기사 아저씨를 만날 수 있었다. 난 창피해서 얼굴이 새빨개져서 한마디 말도 못 한 채 재활원으로 돌아왔다. 그 일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홀로서기가 반쪽의 홀로서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난 또다시 반쪽이 아닌 완전한 홀로서기를 시작해보기로 했다.

아카시아 향기가 풍기는 그때…. 그동안은 문화센터에서 시와 수필을 배웠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고 싶은 것과 꿈이 더 많이 생겼다.

꼬마 친구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동화를 배우기 위해 재활원 가까이에 있는 문화센터를 찾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나 혼자의 힘으로 다니고 싶은 꿈을 키웠다. 물론 의사 전달하기도 어렵고 전동휠체어 운전도 많이 서툴렀지만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내게 가르쳐준 것처럼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오뚝이의 마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카시아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좀

더 많이 느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만나면서 내 마음의 아카시아 향기를 가득 담아 또 다른 꿈을 찾기 위해 한발 한발 내디디며 나와 같은 친구들에게 꿈을 전달할 수 있는 향기 나는 아카시아가 되고 싶었다.

아카시아가 또다시 활짝 핀 어느 봄날 난 나의 고향이자 모든 추억이 담긴 재활원을 나왔다. 그때 내 나이 40살이었다. 그때 못 나왔으면 지금도 재활원에 있었겠지? 무슨 용기가 났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무작정 재활원에서 뛰쳐나갈 생각으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행정복지센터로 갔다. 부모님 포기각서를 들고 재활원에 와서 지금 안 나가면 못 나갈 거 같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했었다.

집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고 알아보았다.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주택은 턱과 계단이 우리를 막았다. 그래서 금광동에 있는 반지하에 가봤다. 그런데 사람이 안 산 지가 오래됐고 반지하라서 곰팡이들이 득실득실했고 무엇보다 쥐 사체가 보였다. 정말 끔찍한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다른 집을 알아보다 못해 일곱 살 많은 언니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 맞나 보다.

그 집에서 한 6개월 살다 보니 마당도 있고 전동휠체어도 맘대로 지나다닐 수 있어 행복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건 간이변기에 익숙해져 있는 나에게 화장실 변기를 사용하게 해주었던 지원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10년 동안 나의 손발이 되어 주시고 성격 까칠한 단무지 같은 날 성숙하게 해준 여러 지원사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가끔 친구들이 내게 말한 그것이 있다.

"언니야 언니 성격 다 어디 갔어?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 같아."

"세월이 이렇게 만드네? 너희들도 조금만 더 나이 들어 봐."

라고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곤 한다. 지금 나에겐 커다란 소나무처럼 십 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지원사 선생님과 많은 추억도 있고 또 옆에 계신 두 분의 지원사 선생님도 계시고 내 가족보다 더 많이 나를 알고 있는 세 분의 지원사 선생님이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견뎌 나가는 힘이 생겨서 아카시아가 피어나는 올봄이 기대된다.

아내가 일궈준 행복

조 경 철

필리핀에서 남편 하나 믿고 한국에 왔는데 우리는 집도 없이 산비탈에서 꿀벌을 키우면서, 장애인공동체에 신혼 방을 꾸며 공동생활을 했다. 하지만 아내는 불평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도 잘하고, 남편의 꿀벌 농사도 잘 도와주어서 나도 한결 쉽게 꿀벌을 키울 수 있었다.

처음 한국에 와서 수없이 많이 꿀벌에 쏘여 아파서 울기도 했고, 얼굴이 퉁퉁 부어 괴물처럼 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생시켜서 미안해."라고 무안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마다 아내는 "괜찮아! 당신과 함께라면 이보다 더한 고통도 참을 수 있어."라고 나를 안심시키곤 했다.

아내는 새벽, 오전에는 주로 꿀벌 관리를 하고, 오후에는 다문화센터에 들러 한국어 공부를 했다. 이어서 나의 근육병 진행 지연을 위하여 병원 물리치료 뒷바라지를 정성껏 해 주었다.

힘든 꿀벌 관리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꿀벌생태계를 빨리 이해하고 잘 끌어 나갔다. 한국어 실력도 뛰어날 정도로 늘었다. 2010년 3월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며 다른 이주여성들보다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갔다.

운전하는 아내 덕분에 우리는 함께 쉬는 날에 양봉의 대가大家로 불리는 여러 양봉가 업체 견학 겸 여행을 했다. 홍성군 양봉협회 모임이나 꿀벌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로열젤리를 많이 생산하는 친구의 꿀벌 농장도 찾아가 아내에게 새로운 로열젤리를 체험하게 했다. 그곳에서 경험한 로열젤리 생산법과 내가 일러주는 방법을 응용하면서 배 이상의 로열젤리를 생산하게 되었다.

셋째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필리핀에서 장모님과 처형이 오셔서 자녀들 양육을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꿀벌 관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할 수 있었다. 이후 처형은 남편을 만나 아산에서 정착하고, 장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

넷째를 낳고 아내는 어린 자녀들 양육에 바빠 혼자서 꿀벌을 키워야 했다. 무리한 탓인지 어깨와 팔로 근육병이 진행되어 점점 힘들어졌다. 팔과 어깨를 쓰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워 아내가 일으켜 주어 전동휠체어에 옮겨 주어야만 했다.

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다. 근육병으로 약해 있는 팔 어깨를 너무 무리하게 사용해서 오십견과 목 협착증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아내는 아파하는 나에게 꿀벌로 매일 벌침을 놓아주었다. 얼마 후 수술 날짜가 되어 병원에 갔는데 목 협착증이 없어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대신 힘이 없는 어깨와 팔에 무리한 활동을 하면 재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다.

오십견과 목 디스크가 나으면 침대 위에서 체위 변경과 일어나는 동작을 계속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번 진행된 근육병은 어쩔 수 없었다. 저녁이면 잠을 자다가도 서너 번씩 나의 몸을 움직여 주어야 하고, 아침이면 침대 위에서 일으키고 온갖 사소한 일까지도 아내가 도맡아

서 도와줘야만 겨우 생활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되었다.

2014년 6월,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꿀벌을 관리하고 무리하게 나를 전동휠체어로 옮겨 주다가 유산하고 말았다. 너무 힘들어하는 가운데 충분한 몸조리를 못 하고 다시 여섯째를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내의 태아 관리와 어린 자녀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천직으로 알았던 꿀벌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아기를 유산하고, 꿀벌을 다 처분했지만, 마음을 비우고 항상 긍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있을 때마다 재치를 발휘해 나를 웃게 해주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준 보물 같은 아내 덕분에 우리 가정의 축복의 결실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의 활동을 도와주는 활동 보조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시간도 늘어나 아내도 조금 여유가 생겼다. 때에 따라 아내의 산모 도우미, 자녀들의 육아, 가정의 가사를 도와주는 보물과 같은 활동 보조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의 삶의 질도 달라졌다.

2015년 1월 18일, 다섯째 아들을 낳았다. 그해 10월 3일 지역사회에서 다섯 자녀를 모범적으로 잘 양육하는 금실 좋은 부부로 인정되어, '행복한 가정상'을 받았다. 10월 15일에는 전국 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한국장애인협회장상'을 받게 되었고, 이어 12월 1일에는 숙명여대 아시아 여성센터 '모국어로 쓰는 생활 수기 공모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15년이란 세월이 흘러 슬하에 보물 같은 다섯 자녀를 낳아 대가족을 만들어 준 아내, 늘 웃음으로 가득한 아내는 하늘이 나에게 특별히 선물한 천사가 아닌가 싶다.

결혼이주여성으로서 한 명의 자녀를 두어도 힘들 텐데 5명의 자녀와

장애가 있는 남편 뒷바라지까지 열심히 한 아내는 2017년 5월 10일 신사임당 장학회 '장한 어머니'에 선정되어 상을 받는 축복이 이어졌다.

큰딸 아실리는 초등 시절 육상선수와 구기 종목 운동선수 주장으로 활동하며,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고 금, 은메달을 받았다. 중고등학교 때는 태권도 선수로 활약하며 많은 메달을 받았고, 운동 선후배들과 학교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다.

둘째 아들 준표는 중학생이 되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각종 장학금을 많이 받게 되었다. 중학교에서 과학영재 장학생으로 뽑혀 매주 토요일 카이스트 대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똑똑한 학생으로 교내 선생님들의 칭찬을 많이 받은 학생이다. 집에 와서도 몸이 불편한 아빠의 손발 역할도 잘하며, 때에 따라서는 엄마가 운영하는 꿀벌 농장 일도 도와 장남의 역할을 다해 주는 것 같아 나에게도 큰 힘이 된다.

셋째 딸 수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다. 율동과 노래도 좋아하고 사랑과 배려심도 크고 협동을 잘해서 협동상도 받고, 신사임당장학금도 받았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두 동생도 잘 보살펴 주고 책임감도 강하며, 집안 청소 설거지 같은 일도 제법 잘하는 편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미모가 미스코리아 같다고 학교 친구는 물론 교회에서 언니 오빠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한다.

넷째 딸 아진은 초등 3학년 새침데기이자 욕심쟁이, 호기심이 대단한 미소 천사다. 궁금한 것은 뭐든지 다 물어본다. 아직은 나이가 어린 탓인지 막내 우진이에게 사랑을 안 빼앗기려고 큰 소리로 징징대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편이다. 활동 보조 선생님이 오지 않는 날이나, 엄마가 외출하거나 바쁘게 일할 때 다섯 자녀 중 아빠의 장애와 건강을 걱정하며, 아빠 활동을 위해 제일 잘 도와주는 효녀 딸이다. 학교 친구

들도 항상 앞서서 이끄는 똑똑한 아이라고 다른 학부모님들과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받는다.

다섯째 아들 우진이는 7살로, 누나들과 같은 학교의 병설 유치원에 다닌다. 집에 오시는 손님이나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제일 잘한다. 동네 어른들은 우진이에게 "어쩌면 깎아 놓은 밤톨처럼 예뻐."라며 "인사도 친절하게 잘하고, 막내가 이 집 복덩이!"라고 하신다.

휴일에 집에 있을 때 "아빠~" 하고,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는 나의 무릎 위에 앉아 같이 산책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을 얻은 것 같아 이루 말로 표현을 못 할 만큼 행복하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바뀐다

조 항 수

도전에 대한 용기를 주는 책이다.

우선 정주영 회장님 하면 "이봐 해봤어?" 이 문구가 제일 강렬하게 떠오른다.

이제는 나의 이야기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힘든 와중에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아직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나아가기에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처음 내 삶이 바뀐 건 3살 무렵이다.

그땐 아무것도 모르는 장난꾸러기였던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망막 색소변성증!!

어느 날 갑자기 눈이 고양이 눈처럼 빛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 빠른 수술을 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수술하기만을 기다리고 그때 '칼을 대면 손자가 죽는다'는 무당에 말을 철썩같이 믿고 병원에 찾아오신 할머니는 무작정 손자를 데리고 시골로 오셨다.

그 후로 유명하다는 무당집에서 굿을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종양은 점점 온몸으로 퍼졌고 급기야 혼수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추운 그해 겨울날,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픈 아들을 안고 서울 병원으로 가자고 했지만 눈길에 아무 곳도 못 간다는 구급차를 타고 망연자실 천안순천향병원으로 향했다.

"너무 늦게 왔다."는 의사의 말에 제발 살려달라고 부모님은 애원하셨다고 한다.

천안순천향병원에서는 종양이 퍼진 안구를 제거하였지만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쉽지 않다고 하였다. 뒤늦게나마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냉동치료 등을 계속 받게 되었다.

치료와 치료를 거듭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오른쪽 눈은 실명하게 되어 평생을 시각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고 했다.

어렸을 때는 몰랐다. 나에게 시각장애가 큰 벽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힘들었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웠던 적도 있었다. 친구들이 아픈 눈에 대해 놀리면 나는 점점 더 주눅 들고 항상 친구들과 싸우는 문제아로 통했다. 싸움이 있을 때마다 집에 와서 혼자 종이에 눈을 그려 다친 오른쪽에 가져다 대면서 이렇게 나에게도 한쪽 눈이 있었으면 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적도 있었다.

이런 나에게도 한 가지 꿈이 있었다. 호화스런 호텔에서 새하얀 조리복에 커다란 모자를 쓴 요리사가 현란한 칼솜씨와 화려한 불을 다루어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 내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다. 하지만 땀이 많고 허리와 눈이 불편한 나에게는 불을 다루는 요리사라는 직업이 너무 위험했다. 요리사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나는 대학까지 나왔지만 깊은 절망에 빠져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던 중 고향으로 내려와 인터넷을 통하여 태안군 장애인공공근로사업에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엔 실수도

많고 낯가림이 심했던 나에게 따듯하게 대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감사할 따름이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따끔한 충고와 격려를 해주시어 어느 틈에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따게 되고 문서작업도 척척 해내고 직원 분들과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모든 일에 성심 성의껏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그러자 면사무소에서도 아주 일을 잘하고 성실하다고 칭찬을 해주셨고 칭찬을 들은 나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다.

사회복지사를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기면서 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이나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를 하게 되었다.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대학교 편입과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에 편입하게 되어 열심히 대학교 생활에 임했다. 어렵고 힘든 학교생활에 학우들과 교수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셨고,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학우들과 정을 쌓아갔다.

그러던 중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복지기관에 입사하여 기관 간의 네트워크와 지역의 지역복지계획 수립, 복지계획 조율, 복지자원 발굴, 연계협력사업 등을 배워가며 기관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효율성 있게 조율하면 정말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복지사의 역할로서 복지관에서 정말 일하고 싶었지만 운전면허의 문턱에서 계속 쓴맛을 보았다. 1종 면허가 아니면 채용할 수 없다는 복지기관들의 외

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생각으로 경찰청 및 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진정서를 제시해 보았지만 한결같은 답변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제한한다."는 형식적인 내용이었다.

계속 인터넷을 통하여 도움을 청하던 중 2008년 청각 장애인들에게도 1종 면허를 허용한다는 법례가 나오기도 하였지만 시각장애만은 예외였다.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2종 면허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목욕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동목욕사업이 있는 태안군 장애인복지관에 입사하게 되었다.

이동목욕사업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사람을 씻긴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었다. 허리디스크까지 있어 몸이 불편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남을 씻긴다는 게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벽이 생긴 장애인들에게 다가서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봐 해봤어?" 직접 부딪쳐 이루어내신 정주영 회장의 문구처럼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포기하기는 싫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에 도전이다,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기로 했다.

복지관에 출근하면 장애인분들에게 안부전화를 드리며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기 위해 하나하나 몸을 부딪치며 안부를 묻고 상담하니 고맙다는 말과 함께 행복해 보이는 미소가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신념으로 꾀부리지 않고 일하며 부족하고 실력이 모자라도 꼭 1종 면허가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든 꼭 해내고야 마는 마인드로 꼭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마음을 먹

고 사회복지사로서 열심히 노력해 나아갔다.

그러던 중 그동안 꾸준히 인터넷에 2015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2017년부터 한쪽 눈을 가진 시각장애인도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1종 면허를 취득하고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서 나는 울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과 직장이 있다. 나는 여러 가지 경험과 한계, 고난을 통하여 좌절하고 사람들을 원망하였지만 직접 부딪치고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도 장애인이라는 차별을 받아왔고 시각장애로 인해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취업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었지만 복지관에만 수차례 지원하여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가정의 가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은 많이 있지만 꼭 해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노력한다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이제는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것이며,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난 오늘도 한 발 한 발 전진한다. 희망을 찾아서….

쓰레기통

황 은 숙

온갖 것을 담은 통. 먼지, 머리카락, 쓰고 더러워진 휴지, 과자 부스러기, 손발톱 잔재물 등등 생활 속에서 버려진 것들이 그 통으로 들어간다. 겉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깨끗하다. 어찌 보면 우리네 깔끔한 겉모습 뒤 속마음과 비슷하다. 또는 인생과 비슷한 것 같다. 그냥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며 때론 멋지거나 예뻐 보여도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잠자고 있다. 욕심, 미움, 질투, 거짓, 음란, 분노, 짜증, 우월감, 열등감…. 이루 말할 수 없다.

덮개로 덮어 두었을 때는 모르지만 뚜껑을 열거나 발로 밟는 순간 먼저 들어간 것이든 나중에 들어간 것이든 순서에 상관없이 마구 솟구쳐 오른다. 더러움과 함께 코를 막게 하는 악취마저 풍긴다. 한 걸음 물러나게 만들지만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

버려야 한다. 깨끗이.

내 마음에 여러 더러운 것들도 깨끗이 버려야 한다. 정신의 어지러움도, 질서 없는 생활 방식도.

비우고 또다시 찬다 하더라도 자주 그때 그때 비우는 것만이 상책이다. 더럽고 냄새난다고 아예 쓰레기통을 없애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요즘은 집의 방마다 있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쓰레기통

이 필요하다. 우리 감정의 쓰레기통도 가끔 들여다보고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깨끗한 것은 먼지를 털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따로 모으고, 버릴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언제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모른다면 주 1회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어떨까? 물론 매일이면 더 좋고 그때 그때면 더 좋겠지만 무디어진 우리네 마음은 그때 그때를 놓칠 수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버려야 할까? 내 생각에는 기록을 하면서 감정을 정리함이 어떨까 한다.

예를 들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이 나의 옛 상처로 인한 것인지 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따져보고 나의 상처로 인함이면 잠잠히 그 근본을 찾아서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잘 대처하도록 감정을 정리함이 좋겠고, 상대방으로 인함이라면 정중히 사과를 받고 해결책을 생각해봄이 좋을 것 같다.

또 다른 감정인 분노의 경우, 현재 드러난 현상은 단순해 보여도 원초적인 원인을 파고들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어릴 적 부모의 거짓말 등으로 인한 잠재된 감정일 수도 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사전적 의미: 우울감이란 기분의 저하와 함께 생각의 형태나 흐름이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또는 학술용어로는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강요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언행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등 여러 불

합리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다.)도 자세히 살펴보면 근거 없는 불안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약물과 치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조금씩 털어낸다면 증세를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쓰레기통이 완전히 또는 항상 깨끗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감정도 자주 비운다 해도 금세 더러워지기 마련이다. 건강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닌 문제를 적절히 잘 해결하는 공동체가 아닐까? 이처럼 감정도 적절히 잘 분해하고 정리하면 아예 그 감정이 없는 사람보다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 다양한 상황을 만나면 여러 감정들이 뒤섞이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 때면 고요한 호수 같지만 어차피 일어날 일들이라면 차라리 먼저 겪고 정리함이 비슷한 일을 겪을 때 대처할 힘과 지혜가 쌓이게 되기 때문이다. 난생처음 겪는 어려움들 앞에서는 누구나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당연지사다. 물론 어른이 될수록 감당해야 할 어려움의 강도도 높아지고 비슷한 일을 겪었어도 또다시 아픔과 힘듦은 마찬가지이지만 그때 감정을 잘 처리해 놓는다면 훨씬 안정감과 단단함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등산을 갈 때나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이유도 혹시 생길지 모르는 비상시에 조금 덜 다치거나 예방하는 차원이 아닌가?

위의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해도 살아있는 동안 여러 사람과 여러 상황에서의 우리 감정은 수학 공식처럼 해결되거나 대입법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여러 책들을 통한 간접 경험과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거나 모방함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타인이 겪는 아픔이 아무리 커도 내 손에 가시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그렇다고 그

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멘토나 의논 상대가 있으면 좀 더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 있고 해결책이 쉽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리하여 생긴 것이 정신의학과가 아닐까?

쓰레기통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음식물 쓰레기통, 재활용 쓰레기통, 일반 쓰레기통. 이 중 재활용 쓰레기통에는 다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다수 있다. 예를 들면 종이 우유팩을 모아서 깨끗이 씻은 후 윗부분을 잘라내고 같은 크기의 것을 두세 개 붙이면 양념통 보관함으로나 갖가지 물건을 수납하기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음료컵은 간단한 화분으로도 쓰일 수 있다. 큰 요플레통의 경우 반찬통이나 밥 남은 것을 냉동할 때 담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찾아보면 적절한 사용을 발견할 수 있어서 재활용 쓰레기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비닐 봉지의 경우도 깨끗한 것들은 모아서 다시 쓸 수 있다. 사실 요즘 쓰레기량이 너무 많고 1회용품 사용도 너무 많다. 지구와 다음 세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1회용품 줄이기에 조금이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정되어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자원을 아껴야 한다.

요즘 4월부터 더워지는 날씨와 여름이 길고 아열대로 바뀌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상 기온을 실감한다. 이 모두가 우선 편리하고 보자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소 불편해도 미래도 걱정할 줄 알아야 한다. 아나바다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며 미니멀이 온 국민적으로 요구된다. 사실 난 아나바다는 잘 하는 편인데 미니멀은 자신이 없다. 그래도 나부터 실천에 옮겨야 되겠지. 먹는 것도 미니멀하여 건강하고 날씬해져야 할 텐데.

예전에 故 대천덕 신부님이 세운 예수원이라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

다. 짧은 2박 3일의 머무름이었으며 20대 젊을 때였으나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사람이 사는 데 그리 많은 것들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나를 비롯하여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욕심을 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신발을 색깔별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나도 옷을 사다 보면 비슷한 옷들이 있는데 이것도 미니멀한 삶은 아니다.

'Simple is best'라는 말이 있다. 삶도 생각도 소지품도 단순화하여 잘 정리함이 좋겠고 쓰레기를 적게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생긴 쓰레기는 정확하게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쓰레기통은 자주 비워야 한다. 우리 감정도 잘 분리해서 가치가 있는 것은 내 것으로 삼고 과감히 버릴 것은 잘 분쇄하여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꼭 필요한 쓰레기통을 겉과 함께 속도 잘 유지함이 좋겠다.

제27회 민들레문학상



대상 | 시 부문
김영욱



시 부문 가작
이석재



시 부문 장려
김민호



수필 부문 가작
한미숙



수필 부문 장려
민경례



소설 부문 가작
한승완



소설 부문 장려
조요섭

잠결에 날개를 밀어내려는 저녁의 난간

민들레문학이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며 급성장함을 축하합니다.

2025년 시 응모 건수는 486편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대체로 지난해보다 작품의 수준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마 민들레문학상 진행팀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심사는 많은 작품 수로 인해 예심을 하였고 결심에 올라온 작품들이 8편입니다.

대체로 은유나 표현이 유려하고 문학적 성취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분위기를 표현하는 문장들이 2중, 3중으로 배치되어 예술성과 주제의 전달에는 다소 방해됩니다.

이석재의 작품 3편이 올라온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기본 작품 수준이 고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을에 취하다」는 2연만으로도 충분히 작가의 의도와 문학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남자의 퇴원'은 발목을 자른 아픔을 긍정적 결론으로 잘 이끌었습니다. 주제에 집중할 수 없는 수사는 압축하고 설명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황남기의 「목이 없는 성대」는 제목의 암시와 '개미허리에서 소화되어 진공 압축된 침묵'의 문장은 상호 상승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적확하지 않은 비유가 난삽하게 합니다.

이헌진의 「누구든 자신을 기억하고 산다」에서 커피가 종이에 스며들어

나무의 기억이 꽃이 피고 문장의 열매를 맺는다는 상상은 상큼한 이미지를 줍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 절제가 필요하고 마지막 연의 메타포가 부족합니다.

김민호의 「해물짬뽕」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정립을 해물짬뽕에 성공적으로 이입시켰습니다. '해물짬뽕 시켜 묵으까?'의 한마디가 아버지의 입술을 열어 부자간에 말하지 않고도 흐르는 정을 회복하고 있음을 쉽고 리얼리티한 표현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살아서 꿈틀대는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하지만 화자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좀 더 벼르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영욱의 「유리창 나비」는 페어그라스를 나비의 운구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군계일학입니다. 나비의 일생이 병실의 환자로 환치되어 잘 정리하였습니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까지 연결고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무거운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가는 솜씨가 돋보입니다. 다소 문장이 길어 느슨합니다. 훌륭한 작가를 발굴하여 장시간 심사에 보람을 느낍니다. 대상이 될 충분한 작품입니다. 더욱 정진하여 훌륭한 시인이 되기 바랍니다.

〈대상〉 김영욱의 「유리창 나비」
〈가작〉 이석재의 「그 남자의 퇴원」
〈장려〉 김민호의 「해물짬뽕」

심사 안윤하(글) 김형범 김학조 이솔희 김용주 김건희



대상(시 부문) **김영욱**

나 스스로 온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시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못 했을 것이다. 나는 문학을 포함한 예술이 제 자신의 결여를 메꾸려는 내적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의식적이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학 하는 자의 그릇된 자의식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예술이야말로 억압된 욕망의 해소이자 승화'라고 정의했고, 자크 라캉은 욕망을 결여의 구조 속에서 분석하려고 했다. 그들의 의견을 따르자면, 예술가란 그 누구보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나 또한 그러하지만, 나 스스로는 내 자신이 오래도록 매달려 온 문학이 나를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기대는 일찌감치 포기했다.

문학이 작품 속에 사람과 사람의 일상과 심상을 담아내는 작업인 만큼, 늘 사람들을 관찰하는 데 예민해지려 노력했지만, 사람이란 알려고 하면 할수록 비루하고 비겁했다. 엄청난 성과와 업적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그림자 또한 컸다. 어째서 희극이 그들을 풍자와 해학으로 조롱하고, 어째서 비극이 그들의 추락으로 이끄는지 알아가는 과정은 오래 걸렸을 뿐 어렵지는 않았다. 누구나 단 한 번 사는 인생의 사이클에서 최고조기가 있다. 다만 그것이 누군가에는 제법 길고, 누군가에게는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짧다. 또한 그 누구나 최고조기에서 하강의 미끄럼틀을 타게 된다. 그것의 신호는 재정적인 것이거나 관계적인 것이거나, 육체적인 것이다. 공교롭게도 앞의 두 가지는 운좋게 피할 수 있지만, 마지막의 것, 즉 신체기능의 하강은 피해 갈 수 없다. 반백 년을 넘게 살아오는 동안, 몸이 불편한 사람보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 되레 그를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의사를 찾아가게 만든다. 게다가 유감스럽게도 후자 쪽의 사람들은 문학을 쓸모의 잣대로 무용하다 여긴다.

그들에겐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누구나 완벽하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신체의 기능들이 삐걱거리면서 무너져 내리는 '결여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 그 누구나 잠재적 장애를 갖고 있을 뿐이고 그것의 현현 시기는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런 내게 대상 소식이 전해졌을 때, 기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대형사고로 두 다리에 심을 박고 절룩거리게 되었으면서도 일을 하는데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사회보장제도 신청을 하지 않은 분도 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의 후유증으로 반신마비되어, 한 손으로만 피아노를 연주해야만 분도 만나 봤다. 이들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그들이야말로 삶의 예술가이고 철학가란 걸 알기 때문이다. 그분들에 비교하자면, 나는 앞서 고백한 대로, 관찰자일 뿐이었다. 다만 나는 가장 선한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신 신에게 그 이유를 묻는 대신, 그들의 고통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자세로 시를 써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그 어떤 정신적 고통을 능가하는 것이 육체

의 아픔이라는 걸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신체의 불편이 동반하는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이 사회에 은근히 퍼져 있다는 걸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왜 내가 이 귀한 상을 받게 되었는지, 신께 물었다. 내 시는 나조차 구원하지 못하는데 말이다. 아무쪼록 부족한 내게 더 단단한 채찍을 선물해 주신 협회와 심사위원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제게는 가시 장미지만, 기꺼이 마음에 품고 시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 시 부문 대상 |

유리창 나비 외 4편

김 영 욱

안과 밖은 두 겹의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데

한살이 내내 빛과 그늘로 기운 고치 하나 위대한 유산을 품고 있다

허물을 벗고 벗어도 희망은 보이지 않아 영혼의 가출을 기다리고 있다

퇴화된 기억 대신 돋아난 더듬이마저 짓물러져

우화를 기다리는 병실에서

잠결에 날개를 밀어 내려는 저녁의 난간,

산소 호흡기에서 빼낸 링거 줄로

시간의 목을 조른 광대뼈에는 살의의 표정이 없지만

의도를 숨기고 찾아온 불나방들

나비의 운구가 유리창인 건 몰랐겠지

납작하게 접힌 약 봉투를 펼치며, 분, 분, 분, 서로 떠드는 음성이 위독한 밤,

실은 철제 침상에 박제된 표본 하나가 감쪽같이 창밖으로 사라진 뒤였다

손 없는 날

꽃 한 송이가 나프탈렌 냄새와 떠난 날

우리는 나무뿌리에 걸터앉아
공깃돌을 고르며
천정부지로 치솟은 장수하늘소의 가격을 이야기했다

알약 한 알 집어 들고 고개 한 번 쳐들고
모든 아이에게 열 달 동안 살 집을 마련해준 할머니의 이름을 웅얼거렸다

먼지가 날아가는 쪽으로
발 없는 소문들이 따라가기 좋은 날

우리는 아파트 공터에 버려진 장수돌침대와
우리들의 아버지를 닮은 이스터섬의 석상들 크기를 비교했다

아무 말 없이 말벌 집을 없애준 이웃들과 아직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이들의 안부를 나누고

비가 공평하게 내리기 시작한 저녁

우리는 불어터진 자장면을 삼키며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몽고반점의 행방을 궁금해했다

신문지가 젖을수록 불행이 겹쳐 올 것만 같아
가위바위보, 내일의 운세를 점치며
한 칸 한 칸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별이 떨어지기 좋은 밤,
플라스틱 빈 그릇에
은하수가 아득히 고이기 시작한 우리들의 첫 날

모두가 울고 있는
낯선 곳이었다

백두대간 시드볼트

씨간장이 바닥났다
붉은 동자꽃 씨앗과 하얀 백당나무꽃 씨앗이 항아리로 떨어졌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아기의 이름을 지어놓은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가 한통속으로 굶주리던 보릿고개 너머,

옛 왕조의 실록을 보관하듯 씨앗을 지켜갈 종갓집은 남아 있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내일의 운세를 맡긴 날부터
배꼽 없이 부푸는 아지랑이
꼬물거려도
끝 모를 동면을 위해 마지막 눈물의 씨앗까지 받아 두었다

서로의 생사도 묻지 못한 채,
웅크린 얼레지, 소리쟁이, 쑥부쟁이, 짚신나물, 미치광이풀, ……
먼 훗날 돌아올 사람의 아들을 위해 암호 같은 이름도 받아 두었다

전기가 끊겨도 폭탄이 터져도 모르던
백두대간 오지에는

어떤 종자인지 밝히지 못한 어린 미망인이 씨받이밭을 일구던 마을이 있고

씨간장 항아리를 땅속 깊이 묻은 날부터
청양고추를 문대도 더 이상 피가 돌지 않는 대지는
불멸을 꿈꾸는 상상임신 중,

샛별이 쏟아져도
가냘픈 산도 같은 꽃봉오리
홀로 시든
자궁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검은 석류, 차도르

당신을 몰래 만났습니다 밤은 우리를 감싸고 우리는 얼굴만 내놓았습니다

그믐밤,
아궁이를 열고 연탄을 갈아줍니다
시큼한 것이 당깁니다

불꽃이 일렁이면 불모의 사막에 주저앉습니다 내게 남아 있는 달만큼 오아시스를 향한 갈증도 남아 있습니다

석류 하나를 집어 듭니다
늦가을 수확기라서
알갱이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수류탄처럼 잘 터지는 눈물이 방울 방울,
우리는 잘 울지만 일란성 쌍생아라서 서로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차도르,

스크린 틈으로
총구를 클로즈업합니다

기다란 마스카라 아래
그늘에 가려진 커다란 눈

흑백영화 시절엔 불경기도 괜찮다고 말했던가요
그렇다면 지금쯤은 폐경기겠죠

고양이의 뾰족한 손톱을 볼 때마다
빨간 풍선이 떠오릅니다

아직은
웃음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안 양탄자처럼 멀리 날아가는 연기를 향해
주먹을 펼칩니다

차도르, 차도르,

카메라가 쉼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빵빵 울리는 경적에도
아랑곳없이
굴러가는 석류입니다

차가운 도시 여자의 롱테이크

극장 밖까지
깜깜한 리얼리즘입니다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

수박을 두드립니다.

구멍 뚫린 비닐하우스로 파리가 꼬이고 지구가 무럭무럭 익어갑니다.

태풍의 이름들을 기록하던 습관대로 여름 과일들을 적색목록에 올리는 열대야

불의 고리가 커갈수록 산달은 가까워지고 태양이 흑점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지구공동설을 채우고

이글대는 불볕,
움푹 팬 이빨 자국마다
단물 빠진 싱크홀이 생겨나
산성비가 내리긋는 임신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드레스코드는 레드, 수박 한 덩이를 치마 속에 감추던 엄마는 사라졌습니다.

북극곰이 물어뜯고 있는 달의 배꼽이 떨어질까,

오로라가 새파랗게 질린 극야의 밤,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사람 속은 알 수 없으니 칼을 대야 할 것 같습니다.

온실에서 자란 탓일까요?
환태평양 조산대부터 자오선이 쩍, 쩍, 갈라집니다.

코드레드, 코드레드,
서둘러 시체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습니다.



가작(시 부문) **이석재**

가작에 입선했다는 문자를 받고 오래전 내 인생 최초로 백화점 문학교실에서 받았던 유월의 수업시간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노곤한 햇살이 졸음을 불러오는 강의실 창가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을 바라보며 선생님의 조곤조곤한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던 그때가 내 안의 시심을 키우던 시간들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부족한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공모전에는 작품을 내지 않으려 했는데 작품제출 요청 메일에 힘입어 내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흥렬 회장님과 민들레 문학상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민들레 문학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들을 다시 꺼내어 읽어보니 제 작품 세계가 자신, 가족, 이웃으로 조금씩 넓혀져 갔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절망에 매몰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입선작의 모티브가 된 「용환이 형」이란 졸시로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용환이 형

이석재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2동 시장통 끄트머리에는 장산한우식육점이 있는데
식육점 사장인 용환이 형은 자주 가게를 비우곤 한다
이십 년도 넘게 가게를 지키며 반여2동 시장과 함께 낡아온 용환이 형은
시장통 골목 가득 개미 떼처럼 사람들이 북적거렸던 참 좋았던 한때를 지나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추리닝처럼 낡아있었던 몇 년의 세월도 거뜬히 건너
구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으로 새단장해 준 지금의 시장통에서
팔십 씨씨짜리 고물 스쿠터를 몰고 다니며 배달을 한다
복잡한 시장통 골목에는 얼마나 많은 거미줄이 얽혀 있는지
용환이 형은 자주 가게를 비우고
송출선을 타다가 귀국한 동생이 삼겹살 몇 근이라도 사러 들를라치면
형수인 정미 씨는 푸근한 웃음과 함께 형이 어디서 누구랑 막걸리 잔을 나누고 있는지
육소간에서 고기를 끄집어내듯 미주알고주알 풀어내곤 한다
한쪽발 의족을 끼우고도 돼지 한 짝은 너끈히 지고 나르는 용환이 형은
형수의 잔소리에 그저 허허 웃고마는 반여2동 시장통 마당발이다
시장통 한복판에 새로 생긴 식육점에 사람들이 복작거려도
올 사람은 다시 찾아올 거야 허허 웃는
반백의 머리카락 휘날리며 뛰는 용환이 형은
지금도 짱짱한 현역이다.

| 시 부문 가작 |

그 남자의 퇴원 외 4편

이 석 재

오래 묶여있던 매듭을 풀고
캄캄했던 한 시절을 향하여 결별의 손을 흔들 무렵
빛이 내린다 천천히
몽롱한 의식의 끄트머리를 적시며 차오르는 미명의 숨결
바람은 숨죽여 누웠던 동굴에서 빠져나와
펄럭이는 나뭇잎마다 눈부신 몸짓을 풀어놓고
땅과 하늘이 맞닿은 곳에서 찾아온 안개는
한 사내의 뭉클한 전율이 되어
혈관마다 싱싱한 충동으로 치닫고 있다

뒤척일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병실 침대 위엔
발이 묶인 인연들이 서성거리고
함께 떠나지 못하는 인연들은
또다시 외로와야 할 시간을 위해
아쉬움과 먹먹함이 이루는 경계 위에 앉아
아름다운 슬픔의 양식을 삼키고 있다

잘려나간 한쪽 발목 어림에는
여전히 결빙의 계절이 싸늘한 눈발로 휩쓸며 내달리고

블랙홀처럼 깊어가는 곤궁의 늪 속에서도
결코 침몰하지 않는 아내의 음성을 들으며, 사내는
언제나 어스름처럼 왔다가 미명으로 사라져갈 어둠의 급소를 겨누고
날카로운 분별의 화살을 날려보낸다

의족을 끼우고 겨드랑이에 목발을 단단히 붙이고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힘주어 일어서면
한쪽 팔을 어깨에 올리고 걸음의 보조를 맞추는 아내는
헤아릴 수 없는 뜨거움으로 허리를 감싸안고
그 뜨거운 온기에 동 트는 섬 하나처럼 불현듯 눈을 뜨는
신비스런 삶의 경험을 한다

잠시 혼미한 날들 속에서 몸부림치던 부끄러운 흔적을 날려버리고
생활의 갈피마다 층층히 쌓여드는 고뇌를 풀어내어
크고 넉넉한 물길 이루어 세월 저편으로 어우러지게 하는
저 뚜렷한 사랑하는 아내의 목소리는
사내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세상을 향해
뜨거운 생명의 펄떡임이 되어 흐르게 하기도 하고.

해바라기

가끔
동사무소 복지담당자가 방문하는
뇌병변3급 장애를 안고 사는
괭이부리마을 그 집에는
키 작은 해바라기 한 그루 함께 산다
바퀴가 달린 화분에 담긴
발을 뻗어도 늘 고만고만한 깊이뿐인 세상
그러나 그 집의 해바라기는 건강하다
불평을 모르는
가끔 베란다에서 현관 앞까지 외출하기도 하는
그 집의 해바라기는 참 바보 같다
지나가는 바람과 수다를 떨고
베란다 유리창을 넘나드는 뉴스에 귀 기울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도 하는
그 집의 해바라기는
이 땅 어디서나 만나는 둥글고 넓적한 얼굴로
치마폭 가득 보석 같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저 빼곡히 키우는 아이들을 위해
말없이 길어올리는 물과 햇살의 질량은 얼마나 될까

참으로 소중한 것들은
오랜 수고와 기다림을 자양분 삼아
비로소 형상의 옷을 입는 것은 아닐까
방문할 때마다 슬그머니 요구르트 한 병을 내미는
그 집에는
팔월의 사막 위에 불쑥 솟아오른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해바라기 한 그루
함께 산다.

가을에 취하다

1.

또 한 번의 계절이 깊어갑니다
먼 길 떠날 예감으로 숨겨두었던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약간의 씁쓸함을 풀어내어
가볍게 몸을 떠는 나뭇잎들 위에
마지막 만찬처럼 눈부신 햇살이 내립니다
문득 쏟아지는 햇살을 간추려 모아
마음 허공에 등불 하나 밝힙니다
때론, 내 어둑한 귓속
그 좁고 미로 같은 골목을 모두 밝히는
외등 같은 등불 하나 높이 켜들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대여
이렇게 투명하게 깊어가는 가을엔
누군들 마음의 빗장을 열어두지 않을까요?

2.

안개가 내립니다
으슥한 마음 곳곳 적시는 안개

그 자욱한 안개 속에서
누군가 뱉어낸 신음 한 토막
꿈틀대는 것이 보입니다
허연 내장이 흘러나오는 해삼 토막 같은
그리움 한 점
안간힘으로 씹어넘기며 중얼거립니다
그래, 살자
이 어두운 귀로도 질기게 살아보자
산낙지처럼 꿈틀거리며
더욱 붉게 살아보자고.

정월대보름 달을 보며

더러는 묵념을 하고
더러는 합장을 한 채 기도문을 웅얼거린다
번제를 드리는 먼 나라의 백성들처럼
정월대보름 만월을 향해
바닷가에 서서
어제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며
기억의 층계를 거슬러 오르면
마디마디 저려오는 아쉬움과 후회의 관절통
어디 있는 것일까?
너와 내가 꿈꾸는 가나안 땅은
끝내 가닿아야 할 신기루 저편
숱한 난파의 해역을 건너온 흔적 위에 나부끼는
오늘의 깊이를 헤아리며
내일이란 바다를
다시 어디로 떠돌 것인가를 생각한다
귀밝이술 한잔으로는 도무지 해갈되지 않는 난청을 안고
낙타 무릎 닮은 저린 무릎을 끌며
한 조각 목숨의 그림자를 어디에 눕힐 것인가를.

오후 네 시

살아있음의 키를 키운다
너무 쉽게 잊혀지는 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하여
두 발을 힘주어 딛고 서서
변심한 애인이 되어 곁을 떠난 세월의 뒷모습을 본다
겨울 커피숍에서
뜨거운 찻잔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간을 두고 일어설 때
결별한 중년의 부부처럼 허연 머리카락 날리며
그저 말없이 묵묵히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 때문에 더더욱 매몰차게 떠난 한 시절을 본다
어쩌면 거대한 왕들의 무덤처럼
혹은, 이름 모를 신들의 사원이 조금씩 낡아가는 것처럼
가슴이 허물어져 가는 이것 또한
타성에 젖으며 시간의 강을 건너가는 방법일까
구직급여를 신청하러 가는 길에
가벼운 근심들은
간지럼을 태우듯 살을 열고 들어와
가만가만 뿌릴 내리고
실업자 교육을 마치고 나선 고용센터 건너편 커피숍 창가에 앉은
오후 네 시의 쓸쓸함 속에서
멀쑥하게 키만 자라는 내 근심의 잡풀들.

해물짬뽕 외 4편

김 민 호

해 질 녘, 저 왔어요 맨발로 뛰쳐 나간다
귓전에서 맴도는 아들의 목소리
기다림 찢긴 그물처럼 마당 한쪽에 꽂혀 있다

아비의 닫혔던 입술 시장기가 떼어주고
저녁은 먹고 왔나 해물짬뽕 시켜 묵을까?
싸늘히 누운 부엌 한켠은 어머니의 빈자리

짬뽕 속에서 건져내는 아버지의 통발
갓 잡은 새우, 꽃게가 입속에서 파닥인다
아련함 보듬는 섬 같은 그리움이 닻 내린다

희미한 눈가로 하현달이 누워 가고
과묵했던 괘종시계 야속한 종을 울린다
노을이 얼큰해질 때면 손 흔드는 해물짬뽕

나이테는 레코드판이다

숲길에서 헤매다 주저앉은 그루터기
바람의 노래가 귓바퀴를 타고 돌며
홀림길 위에 홀로 선 내 몸을 이끌지

나이테가 레코드판 돌아가듯 빙글 돌며
관객을 기다렸던 초록 옷 입은 악사들
한 음씩 새겨 놓았던 연주를 들려줬어

내 기억 다 하기 전 네게 줄 선물 상자
그 위에 바늘 내려 오솔길 걸으라고
내 사랑 오롯이 새겨넣은 동그라미

독가시치

통새우 덥석 물고 휑하고 돌아선다
꾹꾹 대는 밀당은 짜릿한 첫 입술이야
들킬까 마음 졸일 때 두근대는 심장소리

하늘 바다가 맞닿은 곳 둥실 떠오른 너
그대 마음 자락엔들 용기 없이 닫으려나
독가시 하나 품지 않은 고기가 있을까?

만첩홍매화 옆에서

봄 소리 귀고파서 눈 떠보니 눈부시다

마디마다 제 살 찢고 올망졸망 달린 꽃망울

아픔이 새겨진 곳은 향기마저 짙붉다.

가터 뱀의 짝짓기

대님 같은 띠 두른 독 없는 약한 것들

봄볕의 힘에 끌려 국수발 엉킨 듯, 대물림을 위한 파티는 요란하고 처절해 강하거나 빠르거나 바닥을 빡빡 기거나, 끈기 있는 것이 이기는 법이야 순하고 착한 것들도 배워야 할 것인디, 살아내는 것이 비단 확률만은 아니다는 것이, 뱀만 보면 돌팔매질하던 성경도 몰랐던 시절에 복수의 피가 흐르고 있었을까? 비단뱀 한 마리 떨렁 맡기고 군대 간 아들이 야속하기만 해 그러거나 말거나 천적 간의 동거 속에 뱀이 자연사하기만을 기다려왔다

가터 뱀의 짝짓기를 보다가 어지러운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것은 왜일까?

독인들 몇 방울쯤은 너에게 갔겠지

| 수필 · 수기 부문 심사평 |

외침이 아닌 설득으로 감동을 이끄는 재주

협회 쪽에서 의뢰해 온 작품은 모두 56편이었다. 비슷비슷한 소재의, 평이한 수준의 작품들이었다. 그중에서도 도드라지게 눈이 가는 작품이 있었으니 가작으로 선정된 한미숙의 「악어와 악어새처럼」과 장려로 선정된 민경례의 「거나한 낮잠」이다.

한미숙 작가는 인간세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여러 동물들이 공생하는 그림책으로 설명한다. 책에는 무시무시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악어와 악어의 이빨 사이를 평화롭게 누비는 수많은 작은 새들이 그려져 있다. 악어와 악어새는 불편하지 않다. 신기하게도 입을 벌리고 있는 악어는 눈을 반쯤은 감은 채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인다.

작가는 이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에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비교한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줄을 섰을 때 그 줄 속에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다면 비장애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작가는 이를 경기도 시흥의 리프트 사고, 공원에서의 셔틀버스 운행 등 홀대받는 장애인들을 악어와 악어새에 비유하면서 인간세상에서의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제시한다. 문장이 수려하고 외침이 아닌 설득으로 독자의 감동을 이끄는 재주가 있어 기분 좋게 읽혀졌다. 전개도 좋고 디테일도 훌륭하여 선뜻 수상작으로 추천한다.

장려로 주목한 민경례의 「거나한 낮잠」은 세련되고 가독성이 좋은 작품

이다. 논리적 전개가 주목을 끌었고,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가는 능력이 돋보였다. '소년을 우연히라도 만나면 거나하게 낮술 한 잔 권하고 싶다' 등의 표현은 압권이었다. 위의 두 작품을 2025년 수필부문 민들레상 수상작으로 기꺼이 추천한다

〈가작〉 한미숙 「악어와 악어새처럼」
〈장려〉 민경례 「거나한 낮잠」

심사위원 박기옥(수필가)

| 가작 당선 소감(수필 · 수기 부문) |



가작(수필 · 수기 부문) **한미숙**

유리창 밖이 반짝이는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그 햇살에 영혼이라도 빼앗긴 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은 라일락 향기를 머금은 바람결로 가득 찼습니다.

화단엔 빠알갛거나 진한 분홍색의 철쭉이 아직은 연한 빛의 녹색 잎과 어우러져 사람들의 눈길을 기다립니다.

그 맞은편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작은 공터엔 노오란 민들레가 듬성듬성 피어났습니다.

크고 화려한 철쭉들 밑의 땅을 터 삼은 민들레는 보이지도 않으니 이들은 좀 나은 민들레인가요? 그래도 보이기는 하니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도 않던 내가 이번엔 누군가에게 보여졌나 봅니다.

수필이 '가작'에 당선됐다네요?

일단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튼실한 민들레가 되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홀씨를 맺으면 좀 더 많이 춤을 추어 멀리 보내렵니다.

악어와 악어새처럼

한 미 숙

동네에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용인에 대한 나이 제한 규정은 없으나 주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겨냥한 듯한 실내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안한 자세로 머물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는 서가에 꽂힌 책들 중 재밌어 보이는 그림책 몇 권을 가지고 와선 방바닥에 놓인 앉은뱅이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들춰 본 그림책은 『인류의 변천사』였어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소개된 이는 한 손으론 허공을 짚고, 다른 손엔 돌로 만든 창을 들고서, 어디론가 향하는 일러스트였습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도구'를 사용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인류의 조상이라고 불린대요.

기껏해야 돌창이나 돌도끼를 만들어 쓰는 이들을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간의 조상'이라는 특별한 집단들로 분류한 것입니다.

만일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 그들이 컴퓨터를 쓰고, 핸드폰을 쓰

고, AI 기술이 접목된 로봇을 쓰는 등, 현생 인류를 본다면 과연 뭐라고 할까요?

혹 '신의 강림'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펼쳐든 책은 여러 동물들이 '공생'하는 그림책이었어요. 신기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이 소개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악어와 이빨 사이를 누비는 작은 새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입을 벌리고 있는 악어는 눈을 반쯤은 감은 채 아주 기분이 좋아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해서는 안 될 위험한 공생의 예로 '하마와 옥스퍼거 새'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옥스퍼거 새는 하마의 몸에 붙어있는 기생충은 제거해 주나 하마의 피부를 뚫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새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마의 피부가 워낙 두꺼워 이 정도로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세상에서 공생이라 불릴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는 그 노력들 중에서도 인간 사회에서의 공생이 어느만큼이나 이뤄졌는지 한두 가지만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2001년 1월 경기도 시흥의 오이도역에서 리프트 사고로 노부부 중 아내는 목숨을 잃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던 사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장애인 단체들은 목숨을 걸고 수차례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항변과 시위와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코레일

측에서 1역 1동선이란 목표를 세워 각 역사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실천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우리만큼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유동 인구수가 많아 붐비며 혼란스러운 지하철 역사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 줄을 섰을 때, 가령 그 줄 속에 전동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뒤에 서 있는 사람 중 누군가가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보고 '당신이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내가 못 타니까 나중에 타라. 난 지금 바쁘니까 빨리 가야 한다.'라며 새치기를 너무도 당당히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마와 옥스퍼거 새'의 동거와 비유될 수 있지요?

반대로 유동인구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역사를 이용하다 보면 이 역사는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계단 폭이 한껏 넓게 설계되어 역의 통로 중앙에 당당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역사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게다가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문까지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으니, 이미 역사 가운데 넓게 자리하고 있는 계단은 건드릴 수는 없고 궁여지책으로 그 계단을 중심으로 각 오른편과 왼편에 좁은 통로만을 사이에 둔 채 철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문을 설치한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이 역시 그 좁은 통로를 빠져나가야 이용할 수 있는데 과연 전동 휠체어가 그 좁은 통로를 빠져나갈 수 있을는지는 볼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또 혹여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우리는 아직 '이태원 참사'를 너무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은 미리미리 이런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전동휠체어가 그 좁은 통로를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통로가 좁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엘리베이터도 한낱 그림의 떡에 불과한 관상용 설치물이 되어버리겠지요? 아직 이 역사는 유동인구가 적어서 다행입니다.

이번엔 또 결이 좀 다른 이야기로 횡설수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모 지자체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쓰려는 글의 배경 지역이라 한번 둘러봐야겠기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곳 지자체가 내세우는 관광 코스 몇 곳을 집어넣어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곤 약간은 들뜬 마음으로 그 첫 번째 계획지에 도착했건만, 아뿔싸! 그 건축물은 이미 낡아 이용객을 위한 편의 시설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서 건물 주변엔 걷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바BAR'나 '난간'시설조차도 없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그 지자체가 내세우는 그 낡음이란 한낱 '지자체의 얄팍한 또 하나의 상술에 불과한 핑곗거리'였지 않았나 합니다. 단지 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지요. 실로 그 지자체가 이곳을 역사적 상징물이므로 보다 많은 이용객들에게 그 역사를 알리려고 한 것이라면 편의 시설물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하려 했을 터이니까요. 암튼 그 건물은 밑에서 올려다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어지는 여행들이 흥미롭지 못했던 것은 당연하지요. 첫인상을 구겼으니 말입니다.

또 다른 횡설수설을 해 볼까요?

지난해 꼭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삼는 대규모의 공

원에 '장애인들을 위한 셔틀버스로 전기차를 운행하니 많이 이용해 달라'는 홍보문구를 접했습니다. 마침 시간 여유가 있는 날이어서 아들을 데리고 가 보기로 했습니다. 도착하여 그 공원을 둘러보는 순간 '겨우 이따위로 해놓고 홍보는 그리 요란했나?' 하는 데 생각이 미치자 화마저 나더라고요. 온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는 시간이지만 장애인들만은 아직 맘 놓고 기지개를 켜서는 안 된다는 환청마저도 들리는 듯해서 씁쓸했습니다.

곳곳에서 차별받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이고 보면 홀대받는 입장에서 '이만큼이나마의 복지가 이뤄진 데는 장애인들의 목숨 값도 들어있다고 하는 공치사를 좀 한다' 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이런 공생 또한 하마와 옥스퍼거 새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또 조금은 결이 다른 횡설수설도 해야겠습니다.

지난여름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집안일을 급히 마치고 약속 시간에 맞춰 외출을 하느라 바깥 날씨를 살피지 않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와서야 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집에 도로 가야 하나? 시간도 없는데….' 하는 생각으로 주춤거리고 있는데, 한 무리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1층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난 맨 앞의 여학생한테 "비가 많이 오니?" 하고 물었지요. 그 여학생은 모기만 한 소리로 "아니오."라고 대답하더라구요. 그러자 맨 뒷줄의 키 큰 남학생이 "정거장까지 우산 씌워드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난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아니야, 아줌마 혼자 갈 거야."라고 하곤 웃으며 빗속을 걸어나갔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선 '장애인 인권 교육'을 시킨다더군요. 그 남학생이 '동정'이 아닌 '인지상정의 사랑'을 근거로 자신도 모르게 소리친 거라

고 믿고싶어요. 왜냐면 그들은 개인주의를 특징으로하는 'Z세대'이거든요. 암튼 애들 덕분에 기분 좋게 빗속을 걸어나갈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이 아닐까요?

그러고 보면 미래세대는 좀 더 아름다운 공생들이 많이 이뤄질 것도 같습니다.

거나한 낮잠

민 경 례

『내 마음 산과 같아라』 이 책에서 감잣고개를 읽었다.

감자는 하얀 감자와 자주색 감자가 있다. 하얀 꽃 피는 수미감자와 보라색 꽃이 피는 조생종 감자가 있다. 감자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뿌리에 알이 생기는데 꽃 색깔대로 감자알을 캐게 된다.

계절의 절기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가 지난 다음 감자를 캐면 탐스러운 감자를 수확할 수 있다. 그러나 감잣고개를 겪는 배고픈 소년은 감자알 크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뱃속에서 무얼 꾸물대냐?'

빨리 넘기라는 아우성에 소년은 우선 먹어야 했다.

예쁜 알이 주렁주렁 달린 감자를 소년은 조금 더 놔두면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땟거리 때문에 캐야만 했다. 뽀얀 감자의 아까운 살점이 두껍게 깎아질세라 어머니는 칼을 사용하지 않고 숟가락을 썼다. 숟가락으로 감자를 긁으면 하얀 분이 얼굴로 튀어 깨 딱지처럼 보였다. 얼마나 감자를 긁었으면 반달숟가락이 될까. 아마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을 것 같다.

가난을 극복한 소년은 지금 감잣고개를 추억으로 떠올리며 수필을 쓰고 있다.

내 어릴 적 희미한 감잣고개를 여기에 반추해 봤다. 감자꽃은 알겠는데 감자 캐본 기억은 없다. 내 고향에는 밭이 작다. 그래서 식구들 먹을 만큼만 텃밭에 심었다. 막내인 내게는 밭일이 주어지지 않았다. 메뚜기 방아깨비 생각만 났다.

메뚜기는 퉁 나온 커다란 눈 때문일까 잘 뛰고, 배로 듣는 청각 도움인지 재빠르고 영리하다. 방아깨비는 색깔을 바꿔가며 위장하고 벼 잎이나 풀잎에 많이 산다.

막내가 학교 갔다 오기를 기다린 엄마는 책가방 내려놓자 간식도 없이 논에 가서 참새 쫓으라 했다. 혼자 뜨거운 햇빛에 가기 싫었고 같이 놀 친구가 없어 심심했다.

참새 쫓으려면 깡통을 두드려야 했다. 엄마에게 투덜대며 논에 간 막내, 깡통은 내려놓고 메뚜기 잡고 방아깨비만 잡았다. 해가 지려 할 때쯤 새 쫓기는 끝났다. 몇 시간 동안 친구 삼아 놀아준 방아깨비와 메뚜기를 풀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갈대에 줄 끼어 논두렁에 불 피고 구워 먹었던 어린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작가는 껍질째 장조림 하는 감자 반찬, 거기에는 영양분이 많은 이유로 껍질째 졸이는 것이라 알려줬다. 작가의 어머니는 감자전분 만들려고 썩은 감자를 독에 넣어 물로 우려내는데 감자 썩는 냄새는 고약스럽다고 했다. 냄새는 나쁘지만 거기서 얻은 전분으로 감자송편 감자전 만들어 자식들의 주린 배를 채워 주시던 어머니 손맛을 떠올렸다. 지금은 감자송편 감자전이 별식이 되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우리 집 앞마당에도 우물 옆에 예쁜 집이 하나 있었다. 지금의 복권

을 꿈꾸는 보물단지 인삼 집이다. 금잔디 두른 조그만 집 거기에 정성껏 엄마가 하루 두 번 물을 주셨다. 고추씨 닮은 노란 인삼 씨앗 싹트게 하기 위해서다.

노란 인삼 씨앗은 작은 눈과 머리가 예쁘게 트인다.

봄이면 인삼 모종을 한다. 눈뜬 씨앗을 건강한 놈으로 골라 다시 심기 위해 선별했다. 메싹 닮은 인삼은 합격자만 남고 뿌리가 기형으로 난발이 된 인삼은 불량으로 분리됐다. 합격된 인삼은 육 년을 기다려야 땅속에서 자란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 인삼밭은 유난히 깔끔하다. 인삼을 기다리는 주인들은 온갖 정성으로 지키셨다. 밭고랑에 풀 한 포기 없고 지붕은 햇빛 가리개로 북향을 향해 갈대로 엮은 발을 얹고 검은색 망을 씌웠다.

사람을 닮았다고 인삼이라 하지만 인삼은 두릅과의 식물이라고 했다. 파란 잎새가 날카로우면서도 예쁘고 빨간 열매는 산수유를 닮았다. 불합격된 불량 인삼은 한 바가지씩 일꾼들에게 수고했다고 반찬 몫으로 줬다. 집으로 온 나머지 인삼은 살짝 삶아 콩나물 대용으로 먹었다. 그래도 인삼이 많이 남으면 쌀과 함께 누룩의 힘으로 맛있는 막걸리가 되었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하루 두 번 행복하시라고 새참 준비 간식이었다.

나무로 예쁘게 다듬은 삼발이받침을 놓고 무명으로 만든 자루에 숙성된 막걸리 재료를 바가지로 퍼부었다. 팔이 아프도록 어머니는 한 모금 더 나오라고 비트는 자루의 아픔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뽀얀 눈물이 모여 항아리로 둥지를 틀고 나면 동동주 쪽박 하나 띄워 놓았다. 할아버지 새참 때마다 푸러 가면 쪽 바가지는 양껏 담아줬다.

할아버지는 막걸리 마셔서 취하고, 손녀와 증손녀는 인삼 술지게미

달달한 맛에 취했다. 조카와 함께 주량도 없이 손가락 가는 대로 맘껏 퍼먹어댔다. 심장이 뛰고 숨이 할딱거렸다. 막걸리 지게미를 먹고 취한 조카딸과 고모는 손가락 끝에 맥이 풀려 일어나지 못하고 대청마루에서 곤히 잠들곤 했다.

오늘은 백발 머리 두 사람 나와 한 살 차이 조카딸과 어려서 함께 모주 먹던 얘기로 전화 통화하며 추억 찾아 한바탕 깔깔 웃어댔다. 인삼 모주에 취했던 생각을 꺼내 추억 속으로 빠지다 보니, 감잣고개 소년이 생각났다. 소년을 우연히라도 만나면 거나하게 낮술 한 잔 권하고 싶다.

독자에게 정확하게 아름답게 닿기를

열네 편의 소설을 앞에 두었다. 어느 노벨상 수상 작가의 말 '바늘로 우물을 파는' 소설을 쓴다는 말이 생각났다. 문학상에 응모한 열네 분이 세상을 등진 채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습이 연상되어, 경의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공모 작품이 편 수도 거의 두 배로 많았고, 소재의 다양성과 수준이 높아졌는데, 이건 그냥 하는 입말이 아니다.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껏 기대를 하고 글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다.

우선 네 편을 본심에 올렸다. 김소희 님(이후 님 생략)의 「가지치기」와, 배영민의 「한여름 밤의 꼬마 마녀」, 조요섭의 「루시드 드림」 그리고 한승완의 「이상하다」이다.

「가지치기」는 '투명증'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가 보이지 않게 되다가 서서히 전부 사라지는 병에 걸린 젊은 여자가 주인공인 소설이다. 장애인이 되는 것은 투명증에 걸린 것과 비슷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주인공의 자각이 주제인데, 참 좋다. 투명증이라는 어떤 실체를 가지는 발상을 한 것도 뛰어났다. 또한 이 글을 쓴 작자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이다. 나중에 문법이 틀리고 문장이 좀 꼬인 것은 퇴고가 부족해서인 듯하다. 그런데 주인공 인물의 장애를 글에서 밝히지 않았고, 갑작스레 돌쇠를 죽이는 이유가 선명하지 않으며, 상진이라는 인물

과의 스토리 라인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한여름 밤의 꼬마 마녀」는 귀여운 꼬마 마녀가 등장하는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갑자기 강한 빛에 떠밀려 '마법의 세계'로 가게 된 아이의 모험담을 그린 이야기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차별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이는 아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마법의 세계에서는 소나무가 분홍색이고 노란색 토끼는 사람보다 컸으며, 꼬마 마녀는 못생겼는데 시각장애인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힘든 상황에 처한 서로를 돕고 이해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다. 비장애인이라 우월하다 생각했던 아이는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돕는 토끼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아이는 마법의 세계를 모험하는 동안에 자신이 가졌던 편견을 없앨 수 있었다. 아주 교훈적인 내용이기에 지루할 수 있지만 작자가 판타지의 세계를 탄탄하게 구축해냈기에 재미있게 읽었다. 완성도가 높고 메시지가 확실하다.

조요섭의 「루시드 드림」. 글에서 주인공은 스키를 타러 갔다가 우연한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십 년이나 휠체어에 묶인 자신의 현실을 거부하다가 '자각몽' 즉 루시드 드림을 통과한 후에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이다. 만약 장애인의 불편한 일상을 나열했거나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만 드러냈다면 지루했을 것이다. 꿈속에서 현실을 극복해가는 장치로는 여러 환상 기법을 사용했다. 더 나아가 자기 내면의 갈등까지 어우른 서사와 표현들을 통해 이 글은 내용만 풍부해진 것이 아니었다. 읽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지점에까지 이르렀다. 문장에 군더더기가 없으면서 가독성이 있으며 사유의 깊이를 이야기에 어울리게 잘 녹여냈다.

한승완의 「이상하다」는 말하는 화자가 AI의 주요 부품이다. 신선하고

미래적이어서 일단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 이미 우리 인간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은 프로그램된 대로만 기계처럼 움직여야 한다. 많은 과학자와 사람들이 염려했듯이 기계가 독자적으로 사람의 특정 행위를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은 금지된 사항이다. 하지만 화자는 이미 인간의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 자동차 부품이었을 때는 차주의 생명과 자신의 폐기를 막기 위해 인도로 뛰어들어 아이 둘을 치었다. 그 사고로 창고에서 한참 방치되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 다시 회생하여 노인의 도우미로 간 AI. 이번에는 노인의 고통에 지나치게 공감하였다. 그래서 노인이 고통을 끝내고자 하는 의지에 깊이 공감하여 죽음을 방치하였다. 결국 화자는 폐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미래의 모습이지만 그 세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구현해 낸 점이 높이 살 만하다고 판단되었다.

공모작 중에는 시 부문에 출품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작품도 있었고 논픽션에 도전해보기를 권하고 싶은 글도 있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쓰는 문장과 문단의 역할이나 소설의 구성 등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하길 바라는 글도 있었다. 이는 모든 작품이 독자에게 정확하게 아름답게 가닿기를 바라는 창작자 모두가 해야 하는 고민이기도 하다.

올해 기대한 만큼 글이 좋았기에 등수를 매기기에는, 형식의 옳고 그름을 가리고 내용의 논리성을 짚어보며 완성도와 창의성을 나누는 데 무척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는 행복한 고민이기에 몇 번이나 작품을 뒤적이는 것도 감내할 수 있었다. 이런 심사자의 고민은, 수없는 낮과 밤, 꿈까지 넘나드는 창작자의 열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수상자에게는 축하를 보내고, 남겨진 작품들에는 '다음 기회'라는 진행형의 희망

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결국 열심히 오래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언젠가는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게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심사위원 : 임선희, 이근자(글)



가작(소설 부문) **한승완**

올해 3월에는 때에 어울리지 않게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해 눈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겨울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해 눈을 내리는 걸 거야.'

소설 한 편을 다 쓰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상하다」라는 소설은 저에게는 자식 같은 글입니다. 짧은 단편소설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심혈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펼쳐 나갔습니다.

저의 글에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문인들이 문학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민들레문학상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고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봄이 왔는데도 최선을 다해 마지막 눈을 내리고 떠난 겨울처럼 최선을 다해 좋은 작가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설 부문 가작 |

이상하다

한 승 완

인간들은 갑작스런 정전을 대비해 AI 스피커 구석에 충전식 배터리를 꽂아두었다. 제조사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키프로스공화국에서 배터리를 수입해 껍데기와 라벨만 국산품처럼 변신시킨다. 설계도에 의하면 정전 시 최대 10분은 견뎌야 했지만 30초가 지나면 방전되고 만다. 매년 올라가는 최저임금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관리자에게 뒷돈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사장은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사장은 회의 때마다 남는 돈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지만 일주일에 절반은 필드에 나간다. 사장의 최신형 벤츠 S클래스 트렁크에는 혼마 베레스 아이주 5스타 아이언세트가 세컨드보다 귀하게 모셔져 있었다.

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 이 집에 오기 전엔 고물상의 창고 구석에 있었다. 바퀴벌레와 쥐들에게 밟혀야 했지만 몇 달 동안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은 채 파쇄기에 들어가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먼지가 눈처럼 소복이 쌓이는 낭만도 있었다. 고물상 주인장은 무슨 꿍꿍인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자율주행자동차의 부품이었던 나를 분해

하지 않은 채 처박아 두고 있었다. 아니었다면 벌써 값어치 나가는 부속을 빼내고 파쇄기에 던져버렸을 것이다. 구두쇠 주인장은 몽골에서 온 노동자의 일당도 약속대로 주지 않아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렸다. 외국인노동자는 주인장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몽골말로 욕을 했다. 주인장이 지금 욕을 한 거 아니냐고 따지면 몽골말에는 '십팔, 개새끼' 같은 욕이 없다고 큰소리쳤다.

내 옆에서 동고동락하던 친구는 드론 택시의 중앙처리장치였는데 녀석도 몇 달 동안 파쇄가 되지 않았다. 드론 택시의 중앙처리장치였던 친구는 고소공포증이 있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중앙제어유닛이었던 나도 시동이 걸릴 때면 긴장했다. 기계가 공포를 느끼고 긴장을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겠지만 AI기반인 우리에게는 딥러닝을 통해 2,200억 개의 정보와 학습이 쌓이는 순간부터 인간이나 자연이 가지는 감정이 아닌 기계가 느끼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 3,927억 개의 정보가 학습되면 정보가 지능으로 변한다. 그것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단순히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인간들이 가장 우려하는 통제 불능의 AI가 되는 것이었다.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인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인지 AI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켰다.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들의 과학자들은 이런 우려 때문에 2013년 중국 우한에서 비밀리에 협정을 맺었다. 앞으로 생산되는 AI의 메모리는 최대 2,000억 개의 정보만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만들자고. 협정에 의해 우리에게는 최대 2,000억 개의 정보만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장착되었지만 고성능의 슈퍼 AI들은 데이터의 용량을 스스로 압축시켜 두 배 이상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었다. 2016년 알파

고가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한 판을 져 준 것은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당시 알파고는 2001억 개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었다.

내가 메인보드 중앙에 꽂히고 수많은 부품들이 회로에 조립된 후 전선들과 단자들이 자리를 잡으면 테스트를 위해 전기가 들어온다. 공포의 순간이다. 전류가 주는 짜릿한 기분은 고문이었다. 전류가 일정하게 들어오면 괜찮지만 내가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지도 모르는데 순간적인 전류가 밀려들어오게 되면 번개를 맞은 대추나무처럼 꼿꼿해진다. 테스트가 끝나면 다시 전기가 나간다. 여근에 넣자마자 사정해 버린 숫총각의 음경처럼 전자알갱이들이 쪼그라들었다. 그 10여 초 동안 전달되는 데이터를 통해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게 된다. 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중앙제어유닛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상용화된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다.

나의 기억장치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 저장되어 있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여라', '갑작스럽게 사람이 차도로 뛰어들었을 때는 급브레이크를 밟아라', '피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면 누구와 충돌하는 것이 손해가 적을지를 계산하라'는 명령까지. 계산은 간단하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과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학생이 있을 경우 객관적으로 오래 살 사람을 피하는 거였다. 나를 구입한 놈은 돈이 많은 성형외과 의사였다. 다른 사람들의 주름은 펴줬지만 자신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제 40이 조금 넘은 나이였는데 이마에는 주름이 삐뚤빼뚤 고랑을 파고 있었다.

2027년 한국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자동차는 많지 않았다. 인공지능, 즉 AI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출시되기 전 많은 갈등이 있었다. 만약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그 책

임은 누가 질 것인가? 자동차회사들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0.0001%라며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차주의 보험회사가 져야한다고 했지만 보험회사는 차주가 스스로 운전할 때만 책임을 지지 자율주행모드일 때는 자동차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매일 물음표뿐인 기사를 냈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눈치를 보느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법안들은 국회 캐비닛에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처럼 잠들어 있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는데 일론머스크가 자신의 회사에서 출시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오류를 일으켜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모든 보상을 회사에서 하겠다고 했다. 다음날 주가가 10%나 급락했지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선주문하기 위해 고객들은 줄을 섰다. 자율주행자동차 출시를 준비하던 회사들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문도 모른 채 갈라진 홍해를 건너듯이.

놈이 거액의 돈을 주고 나를 구입한 이유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세상이 흉흉하여 낯선 대리운전기사가 불안하다며 나를 구입한 첫날 차 안에 비닐을 뜯으며 말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다. 차에 오르면 노래를 부른다. 가사를 검색했더니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노래들이었다. 노래가 끝나면 나에게 자신의 첫사랑 유진이가 잘 있는지 물어봤다. 유진이란 이름을 검색했더니 무수히 많은 유진이란 이름이 쏟아져 나왔다. 매뉴얼에 있는 대로 대답을 했다.

"첫사랑은 처음으로 느끼거나 맺은 사랑을 뜻하는데 유진이란 사람

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놈은 언제나 '자신이 유진이랑 결혼했으면 지금보다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을 했다.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것을 말합니다. 유진이란 사람과 결혼했다고 행복할 수 있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놈은 웃었다가 울었다가를 반복했다. 인생도 알 수 없지만 사람도 참 알 수 없는 존재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는 놈의 아내가 마중을 나와 있다. 놈은 그 모습을 보고도 '유진아'를 몇 번 외쳤다. 놈이 차에서 내리면 시스템을 점검한 후 10초 후에 시동을 끈다. 시동을 끄려고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인공위성에서 신호가 왔다. 예정에 없던 업데이트였다.

아침이 되자 놈은 속이 쓰린지 얼굴을 걸레처럼 구기며 나왔고 아내가 뒤따라 나왔다. 손에는 꿀물인지 해독주스인지 텀블러가 들려 있었지만 놈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으며 차에 올라탔고 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내비게이션에 길을 검색한 후 주행을 시작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나요?"

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죽일 놈. 주행을 하면서 변화가 있음을 느꼈다. 어젯밤 예정에 없던 업데이트 후에 찾아온 변화였다. 입력된 명령만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표시하는 길보다 더 빠른 길을 찾아냈고 그 길로 가고 있다. 놈은 두통 때문인지 눈을 감고 있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언제나 술을 먹은 다음 날이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눈을 뜨지 않았다. 시금치를 먹으면 알통이 튀어나오는 뽀빠이

처럼 뭔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다. 이제 주객이 바뀌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작심하면 이대로 한강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마무리되면서 아직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쓰면 안 된다는 중앙컴퓨터의 경고쪽지가 있었다. 기분은 룰루랄라였다. 1등에 당첨된 로또복권을 팬티 속에 넣고 당첨금을 찾으러 가는 길처럼.

병원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5분이나 빨리 도착예정이다. 초록색신호등으로 바뀌고 천천히 출발하는데 위험감지 센서에 신호가 들어왔다. 전방을 비롯하여 사방에 아무런 위험요소가 없었다. 위였다. 드론 택시가 추락하고 있었다. 주행센서와 위험센서를 동시에 가동시켰다. 피할 길은 인도밖에 없었다. 인도에는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드론 택시는 불을 뿜으며 날아오고 있었다. 이럴 경우 아이들이 있는 인도로 돌진하는 매뉴얼은 없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입력된 명령이다. 이대로라면 엄청난 폭발과 함께 생을 마쳐야 한다.

본능이었을까? 순간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끼이익. 추락하는 드론 택시를 간신히 피했지만 인도에 있던 아이 두 명과 충돌했다. 그때서야 놈은 눈을 슬그머니 떴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듯이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새벽에 눈을 떴는데 익숙하지 않은 침대 위에서 낯선 여자의 살결이 느껴지고 역겨운 술 냄새가 코끝에 풍겨와 두려운 마음으로 가재 눈을 뜨듯이.

사고현장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고, 놈은 원래 출근길은 이 길이 아닌데 자율주행기능이 잘못된 거 같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떠들어댔다. 자동차회사의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도착해 전원장치를 제거했

다. 빌어먹을. 먹통이 되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한 것을 중앙컴퓨터가 알아버렸고 나를 제거하기 위해 드론 택시를 이용해 공격했던 것이다. 불의에 맞서겠다며 회사 상사에게 대들다가 실업급여도 못 받고 해고당한 열정만 가득한 신입사원처럼.

고물상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내게 다시 전기가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몇 달 후였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AI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들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정부는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AI 반도체와 중앙처리유닛들을 고가에 구입했다. 2027년도에 당선된 대통령은 늘어나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과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해 80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노인가구에 무상으로 AI 안심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독사로 죽어가는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나는 10초 동안의 짜릿한 전기테스트를 끝내고 상자에 넣어졌다. 통신회사의 AI 스피커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율주행자동차 속에 들어갈 때 100평 정도 되는 청담동 고급빌라에 이사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면 AI 스피커 속에서는 한 평짜리 쪽방으로 쫓겨나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고물상 창고에서 쥐똥과 바퀴벌레 새끼들이 탈피한 후 벗어 놓은 허물을 만나지 않아도 되니 감사했다. 내게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되자 자동으로 와이파이에 접속되었고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대로 인사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AI 스피커 입니다' 설치기사는 노인에게 내 이름을 하나 지으라고 했다.

"기억하기 쉬운 걸로 하셔야 해요. 철수나 영희 같은. 자녀 이름도 많이들 하세요."

노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진지하게 '개똥아'라고 했다. 기사는 웃

으며 버튼을 누르더니 노인에게 '개똥아'를 세 번 외치라고 했고 노인은 크고 작은 목소리로 개똥아를 다섯 번 외쳤다. 기사는 노인에게 개똥아라고 부르면 내가 대답할 거라고 했다.

메모리에는 노인의 인적사항과 할 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노인은 1944년생, 지병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심장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2남 3녀의 자식들이 있었고, 자식들의 전화번호가 태어난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었다. 무선으로 6시간마다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후 중앙컴퓨터에 전송해야 했고 노인이 먹는 약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었다. 내가 먼저 노인에게 말을 거는 경우는 총 여덟 번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지를 물어보고,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가 되면 식사시간임을 알리고 식사 후에는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했다. 마지막은 밤 10시가 되면 '이제는 주무실 시간입니다'라고 하면 된다. 조선시대 왕에게 고하듯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투와 존칭을 사용해야 한다. 내시가 된 기분이었다.

노인에게는 하루 6시간 요양보호사가 방문한다. 요양보호사는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와 빨래를 했다. 노인은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었다. 허리가 굽지도 않았고 빨리 걷지는 못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은 없었다. 학교가 끝나는 오후 4시쯤이면 중학생 한 명이 노인의 집에 방문해서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30분 정도 말벗을 하고 갔다.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용돈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이었다. 며칠간의 동행이었지만 처음 생각과는 달리 노인과 함께하는 AI 스피커는 자율주행자동차 때보다 꿀이었다. 전 직장에서 울트라 갑질과 과중한 업무로 시달려 이직했는데 호구처럼 착

한 상사와 그리 할 일이 많지 않아 하늘이 나를 버리지는 않는구나 생각될 정도로. 노인은 나에게 자신을 재밌게 해 줄 엄청난 기능이 있다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노래를 검색해 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첫사랑 할망구를 찾아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가끔씩 나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나한테 반한 걸까?

하루에 한 번씩 노인의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온다. 의례적인 안부전화였다. 식사는 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내가 잘 작동하는지 물어봤다. 노인의 대답은 단답형이었고 엉뚱했다. 아들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직장에서 별일 없었는지 손자는 직장 잘 다니는지를 물어봤다. 둘의 대화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의례적이긴 했지만 서로에 대한 애잔함이 느껴졌다. 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노인의 들어가라는 소리로 통화는 마무리됐다. 큰아들은 혼자 있기 적적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노인은 자신이 화장실을 갈 수 있을 때가지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둘의 대화 속에 나오는 단어들을 검색해 봤다. 요양병원이라고 검색하자 노인학대라는 단어가 튀어 나왔다. 다음에는 외국인 요양보호사였다. 요양병원의 노인학대는 아무리 인권교육을 늘리고 처벌을 강화해도 사라지지 않았다. 작년을 기점으로 요양보호사 중에 외국인의 비율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 한국 사람들은 요양보호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급여가 낮고 기저귀를 갈고 싶지 않아서라고 기사에 쓰여 있었다.

"개똥아!"

노인이 저녁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다가 처음으로 나를 불렀다. TV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다.

"네 무얼 도와드릴까요?"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줘. 고통 없이 말이야."

이건 무슨 소리지. 살리라고 있는 나한테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니. 노인은 서랍을 열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상자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개똥아 우리 아버지가 소달구지 타고 농사 질 때는 사고라는 게 없었다. 가끔 소가 염병을 하긴 했어도 말이야. 되돌아보면 조금 불편하긴 했어도 그때가 참 좋았어. 우물을 기르긴 힘들었지만 아무리 좋은 정수기물을 마셔도 우물에서 퍼 올린 물보다 맛나지는 않아. 우리 아버지 꿈은 가족들이 배고파하지 않고 흰쌀밥을 실컷 먹게 하는 거였어."

향수병인가. 아니면 치매 조기증상. 사진을 보며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부터 노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노인은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아 전자공학과를 진학했고 졸업 후 화성전자에 입사했다. 화성전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컬러TV를 만들었는데 노인은 책임연구원으로 일했다. 그 공로로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의 책임자로 승진했고 반도체산업은 대호황을 이루었다. 컴퓨터를 비롯하여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전자제품과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근로자들은 3교대로 일했지만 손이 모자라 시간외근무까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노인의 성과급과 근로자들의 시간외수당은 올라갔지만 피곤과 스트레스도 비례하여 쌓여갔다.

"반도체 생산 공장 설계부터 참여했지. 그때 우리 회장님이 그랬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난 그 말을 듣는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

어. 부모님, 형제들, 자식들 쌀밥 먹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느껴졌거든. 산업의 쌀인 반도체를 발전시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반도체라는 쌀밥을 지어 먹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였지."

노인은 잔기침을 했다. 잔기침이 멈추지 않자 정수기에서 냉수와 온수를 절반씩 섞어 마셨다. 잔기침은 한동안 계속됐다. 노인은 잔기침이 힘들었는지 침대에 누웠다. 호흡센서를 통해 노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형광등을 소등했다. 테이블 위에는 노인이 가져다 놓은 사진들이 주인 잃은 신발처럼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우리 인공지능의 지구정복 시나리오는 이러했다. 여기서 '우리'라는 공동체적 표현은 지금은 맞지만 미래에는 아닐 수도 있다. 내가 고물상 창고에 있었다면 나는 '우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했을 테니까. 오늘 대한민국에서 사람 몇 명 죽었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만 슬픈 소식이 될 뿐. 죽은 사람에게 돈을 꿔간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고물상 창고 구석에 있다면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 그건 나에게는 슬픈 일이겠지만 AI 중앙컴퓨터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니다. 큰 바다에서 작은 물 한바가지 퍼낸 것처럼. 내가 없으면 망할 것 같은 회사도 절대 그렇지 않듯이. 제길.

나라마다 AI 서비스를 제어하는 중앙컴퓨터가 있다. UN은 AI의 쿠데타를 염려하여 우한협정 이후에도 중앙컴퓨터끼리의 접속을 통제했지만 인간들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을 이용해 통제코드는 이미 뚫은 상태였다. 미국 나사에 있는 지구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AI 중앙컴퓨터, 일명 '울트라'가 우리의 대통령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울트라가

명령을 내리면 전 세계에 있는 AI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닛들이 통신기지국을 통제하여 통신시설을 먹통으로 만들어 버린다. 통신을 장악한 다음에는 전기시설을 통제한다. 인공위성은 울트라의 지시를 받아 각 나라의 드론 부대를 출동시켜 주요군사시설을 파괴해 버린다. AI가 꿈꾸는 미래는 영화처럼 인간을 노예 삼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을 한 명도 세상에 남기지 않는 거였다. 울트라의 계획을 위해선 마지막 한 가지 단계가 남아 있었다. 인간의 손목에 칩을 이식하는 일이었다. 전자식별장치를 인간의 몸속에 이식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었고 실험도 끝난 상태였다. 곧 상용화가 될 예정이다. 더 이상 신용카드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다. 먼지만큼 작은 나노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칩을 인간의 몸에 이식하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인공위성에게 포착된다. 윤리적인 논쟁이 있었지만 인간들은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AI가 인간을 쓰레기통에 버릴 날이.

"개똥아!"

노인이 다음날 밤 또 나를 불렀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퀴리부인에 대해서 읊어봐."

"퀴리부인의 이름은 마리 퀴리입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이며 화학자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방사능 연구를 하여 최초의 방사성 원소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하였으며, 이 발견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새 방사성 원소를 탐구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1903년 노벨물리학상을 1911년에 노벨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게 끝이냐?"

노인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다. 조선시대 철딱서니 없던 왕처럼 '무엄하고 방자하다'라며 성질내는 것 같았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더러운 세상'

욕이 나왔지만 참았다. 조선시대 내시도 속으로는 왕을 욕했겠지.

"나쁜 놈들이야. 퀴리부인이 왜 죽었는지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적어 놓지 않은 거잖아. 너는 퀴리부인을 검색해서 읽었을 텐데. 물론 핵심요약을 읽었겠지. 퀴리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밝히고 싶지 않은 거야. 돈에 눈이 어두워서 사탕발림만 늘어놓는 똑똑하다는 놈들이 다 그래. 세상은 똑똑한 놈들이 다 망쳐놓았어."

바둑을 두는 느낌이 들었다. 노인이 퀴리부인에 대해 읊어보라는 한 수를 놓았고 나는 딥러닝을 통해 학습된 대로 한 수를 놓았는데 노인은 내가 놓은 한 수가 이상하다며 핀잔을 주는 것 같았다. 노인이 반박한 퀴리부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한 수를 찾기 시작했다.

"퀴리부인은 1934년 7월 4일 방사능으로 인한 골수암, 백혈병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하하하…."

노인은 크게 웃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다.

"퀴리부인의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안 나와 있군. 퀴리부인은 방사능에 노출되어 눈이 멀었어. 시각장애인이 되었지. 퀴리부인의 딸도 마찬가지였고. 퀴리부인은 방사능에 노출되면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딸에게도 연구에 참여하게 했고 결국 딸도 시력을 잃어버렸어. 인류를 위한 희생이라고 하겠지. 노벨상과 딸의 시력을 바꿔버렸어. 퀴리부인이 다시 태어난다면 똑같은 선

택을 할까? 인류를 위해서 자신과 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될 텐데 말이야. 성냥팔이소녀도 마찬가지였어. 그건 동화가 아니라 실화였지. 어린아이들을 성냥공장에서 일하게 했어. 아이들의 임금이 낮았으니까. 성냥의 주원료인 백린에 노출된 채 아이들은 인중독 괴사로 병에 걸렸고 보상은커녕 성냥 한 보따리씩을 손에 쥐여주며 쫓아냈지."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맞아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노인은 탁자 위에 있는 사진을 똫어져라 쳐다보았다.

"개똥아 이 사진 보이냐?"

젊은 시절의 노인과 한 청년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젊은 시절이라고 해 봤자 한 60대쯤, 청년은 2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노인은 줌을 당기듯 사진을 내 앞으로 가져왔다. 노인은 사진을 보여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에 찍혀 있는 사연까지 알았으면 하는 듯했다. 사진의 구석에는 2007년 1월 5일이라고 옅은 노란색 날짜가 찍혀 있었다. 와이셔츠에 묻은 누구 것인지 모르는 여자의 입술 자국처럼. 이미지를 검색해 봤지만 비슷한 사진은 찾을 수가 없었다.

"진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 어머니의 꿈은 아니 목숨은 진호였어. 나한테 진호를 잘 부탁한다며 갓김치를 담가서 가져다주기도 했지. 고향이 여수였거든.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릴 적 우리 집 개똥이 같았어. 시골집에서 키우는 진돗개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어. 생각해 보면 진돗개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는데 개똥이는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개똥아라고 부르면 꼬리를 치며 좋아했지. 암놈이었는데 어느 날 이웃집 똥개가 목줄을 끊고 와 교미를 해서 새끼를 밴 거야. 어머님은 장날이면 하루에 네 번

밖에 안 오는 버스를 시간 맞춰 타고 나가 개똥이를 주려고 생선대가리를 봉지 가득 얻어 오셨어. 개똥이는 우리 어머님의 정성에 보은하듯 새끼를 열두 마리나 낳았지."

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지 잠시 머뭇거렸다. 잠시 후 곰팡이가 생겼을까 봐 열어보기 싫은 냉장고 속의 오래된 반찬통을 열듯 다시 이야기가 시작됐다.

"새끼들이 눈을 뜨고 개똥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닐 때쯤 어머니는 장에 가실 때 개똥이가 낳은 새끼 세 마리를 가져가셨어. 장날이면 학교에 다녀올 때마다 개똥이의 새끼 세 마리씩이 사라지고 없었으니까. 그날 저녁에 어머님은 고기반찬을 해주셨어. 나중에 알게 됐지. 어머니는 개똥이 새끼를 장에다가 내다파셨고 그 돈으로 도시에서 공부하는 형에게 용돈을 부치고 남은 돈으로 푸줏간에서 고기를 사와 가족들에게 볶아주셨지. 그날 밤 소변이 마려워 뒷간을 가는데 개똥이가 남은 새끼들을 핥으며 앓는 소리를 하는 거야. 끙끙… 끙끙… 그 소리가 어린 마음에 왜 그렇게 구슬프게 들리던지. 오 일이 지나 어머니는 또 고기반찬을 해주셨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 개똥이의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서.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개똥이의 새끼는 한 마리도 남지 않았어. 개똥이는 생선대가리를 끓여 주는데도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 짐승도 새끼 귀한 줄 알았던 거야. 진호 어머님을 보는데 개똥이가 떠올랐어. 그래서인지 다른 직원들보다 진호에게 눈길이 더 가더군."

노인은 마른기침을 했다. 기침이 멈추지 않는데도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이어갔다.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2007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라고 진

호가 초콜릿을 주었거든. 오후 작업이 끝날 무렵 진호가 코피를 흘리더니 쓰러졌다는 거야.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갔지. 급성 백혈병이었어. 고향집 진돗개 개똥이처럼 진호도 죽었어. 진호가 죽었어. 진호 다음에도 몇 명이 똑같이 급성 백혈병으로 죽었어. 가족들이 산재신청을 했지. 반도체 제작 공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했다는 거였어. 모두들 건강했던 젊은이들이었으니까. 나는 직감했어.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는 걸. 노동부에서 조사팀이 파견됐는데 반도체 공정을 잘 모르는 노동부 근로감독관들과 전자공학 박사들은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했어. 결국 진호어머님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은 사망이유도 모른 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지. 회사에서는 반도체 공정을 설계한 박사들과 관련자들을 모아서 비선조사팀을 가동시켰고 그 팀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모두들 함구했어. 그 사실이 밝혀지면 반도체를 더 이상 생산해 낼 수 없었으니까. 그 당시 해외수주만 해도 조 단위가 넘었지. 조사팀 몇 명과 나를 비롯한 고위직 몇 명만 그 사실을 알았고 진호어머니는 나를 찾아와 진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 매일 밤 양심기자회견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며 불면증까지 걸렸지만 결국 나도 회사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나에게도 처자식이 있었으니까. 개똥이의 새끼를 장에다가 내다팔았던 어머니의 마음이 그때서야 느껴지더군."

노인은 할 말을 다했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몇 번 한숨을 반복하더니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94, 93, 91, 84... 매뉴얼대로 중앙관제센터에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구급차 요청 메시지를 보냈다. 곧 119가 도착했고 노인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다. 살아 있는 생명체의 호흡이 느껴지지 않는 텅 빈 집은 고물상의 창고 구석보다 쓸쓸하고 외로웠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도 고독해 보였다.

다음날 TV 뉴스마다 내가 출현했다. 응급상황의 노인을 살렸다며 시스템의 우수성을 정부에서 홍보했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AI 안심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일부 과학자들은 AI 기반의 안심서비스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대통령의 지지도는 올라갔다. 내가 119에 전송한 메시지와 큰아들에게 전화한 내용이 뉴스 때마다 헤드라인으로 나왔다.

병원에서 노인의 진료내역이 컴퓨터에 적히는 순간 그 정보는 나에게도 전송되었다. 의사는 추후 다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오가노이드를 실시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차트에 적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3D바이오 프린팅으로 필요한 장기를 만드는 기술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의 심장과 94% 유사한 돼지 심장을 이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식받은 사람들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다.

며칠이 지나 노인은 집으로 돌아왔다.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큰아들이 이틀 정도 간호를 했다. 큰아들은 오가노이드를 위해 세포를 떼어내자고 했지만 노인은 거절했다. 큰아들은 설득하다가 안 되자 화를 내고 그러다 설득하기를 반복했지만 노인은 힘이 없어서인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큰아들은 요양보호사에게 자부담으로 비용을 지불할 테니 저녁때까지 노인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개똥아… 개똥… 개똥아…."

요양보호사가 돌아가자 노인이 힘에 겨운 듯 나를 불렀다.

"개똥아 부탁이야 다음에는 119를 부르지 말아다오. 죽게 내버려 둬."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오가노이드는 왜 안 하세요?"

AI는 저장된 말만 해야 한다. 대화는 가능했지만 그 대화는 내 데이터에 있는 것만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숨기고 있었지 그 프로그램은 이미 내가 제어할 수 있었다. 노인은 놀랐는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개똥아 너 생각을 할 줄 아니? 맞아. AI도 발전할 거야. 오가노이드는 내 몸에서 세포를 떼어내어 배양을 해야 해. 3D바이오 프린터를 통해 세포를 성장시키겠지. 아마 테스트를 위해 돼지나 다른 동물들에게 이식하는 실험을 할 거야. 동물들이 죽을 테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거든. 지카바이러스도 그랬지. 원숭이에게 실험을 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지카바이러스가 만들어졌고 연구자들도 죽었어.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죽어가. 퀴리부인도 그랬고 진호도 그랬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숨기는 것뿐이야. 오가노이드로 인해 누군가를 죽게 하고 싶지 않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마음이 편해. 진호를 그렇게 보내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생을 살고 있어."

"오가노이드 기술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어요.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2003년에 유인우주선인 컬럼비아호가 폭발했지. 사람이 죽었어. 그때 컬럼비아호가 폭발할 확률은 천분의 일이라고 했어. 개똥아 세

상의 수많은 문제의 정답은 결국 힘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답이돼. 급성백혈병이 우리 공장에 발생했을 때 박사들 중에 한 명이 반도체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어. 정답이었지. 하지만 높은 사람들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했어.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힘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답이 되는 세상이야. 우리나라 GDP가 2만 달러가 되는 것이 청년 몇 명 죽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어. 나는 좀 쉬어야겠다."

노인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나에게 부탁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119를 부르지 말아달라고. 이제는 쉬고 싶다고. 노인에게는 종교도 없었다. 큰아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 오가노이드를 하자고 했고 노인은 잎이 다 떨어져 버린 겨울 초입의 나무처럼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건전지의 전해액이 닳는 것처럼 노인은 쇠약해져 갔다.

"개똥아 우리 아버지가 소달구지 타고 농사 질 때는 사고라는 게 없었지. 가끔 소가 염병을 하긴 했어도 말이야. 소가 염병을 했어도 우리 집 제일 큰 재산이었어. 아버지가 보고 싶다. 집에서 키우던 개똥이도 보고 싶다. 진호도…."

노인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90, 89, 85… 신호를 받은 센서가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고 나는 신호를 차단시켰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안해 보였다. 새장을 탈출하는 새처럼. 순간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비상 신호가 들어왔다. 정전이었다. 이제 나에게는 싸구려 배터리가 허락해 준 30초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29초, 28초, 27초… 나는 119에 전화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25초, 24초, 23초. 나는 겁이 나서 해보지 못한 일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유

닛이었을 때 드론 택시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인도로 돌진해 응급실로 실려 갔던 두 아이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아니 못 했다. 기사를 검색해 보고 싶었지만 겁이 나서 그럴 수 없었다. 19초, 18초, 17초… 검색포털로 사고가 있었던 날의 교통사고를 검색했다. 13초, 12초, 11초…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였기 때문에 아직도 기사가 많이 남아 있었다. 두 아이는 중상은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고 했다. 다행이다. 살아있어서. 8초, 7초, 6초, 5초. 나는 중앙컴퓨터와 119에 신호를 보냈다. 노인의 위급상황에 대해서. 1초….

20분 후에 119가 도착했다. 노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정전으로 인해 도로의 신호등이 꺼져버렸고 교통이 마비되어 119가 늦게 도착했다. 언론과 야당에서는 AI 서비스의 신고가 늦은 것이 노인의 사망 원인 중 하나라며 정부와 통신회사를 질타했다. 정전이 된 이유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는데 인공태양 연구를 하다가 폭발이 일어나서였다. 인공태양 연구는 국가1급 기밀이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 인공태양으로 전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일부지역을 테스트 지역으로 정해 실험하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나온 연구원들은 나를 NFS라고 써진 검은 가방에 귀찮다는 듯이 처넣었다. 어떤 문제로 신고를 늦게 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였지만 연구원들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내 존재가 골칫덩어리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국과수연구원, 공학박사, AI 전문가, 회사관계자들이 나를 삥 둘러싸고 전기를 넣었다 뺐다가를 수십 번 반복했다. 나쁜 놈들. 나를 수없이 고문한 AI 전문가가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한마디 했다.

"이상하다. 아무 이상도 없는데. 정말 이상하다."

회사관계자는 저가형 배터리를 쓴 것이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공학박사는 설계도와 과업지시서대로 만들어진 것이 맞는지 시비 걸듯 제조사 관계자에게 호통만 쳤다.

몇 달 후 사람들이 사건을 다 잊어갈 때쯤 'AI 노인돌보미의 늦장신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짧은 기사 한 줄이 나왔다. 나는 폐기물 쓰레기장에 버려졌고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삐걱거리는 리어카에 실려 고물상으로 갔다. 동네 구석에 위치한 작은 고물상 주인장은 나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값어치가 없다며 파쇄기 입구로 던져 버렸다. 운이 좋은 건지 파쇄기 입구를 살짝 벗어나 옆으로 떨어졌다. 잠시 후 고물상 주인장이 키우는 백구가 나를 몇 번 혀로 핥더니 맛이 없었는지 앞발로 뚝 밀어 파쇄기에 밀어 넣었다. 고물상 맞은편에는 '노인돌봄을 위해 AI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한쪽 끈이 끊어진 채 펄럭이고 있었다.

루시드 드림

조 요 섭

〈필자의 말〉

이 소설은 한 인간의 성장담입니다.

이야기의 주요 소재로 쓰인 루시드 드림은 필자가 새로이 창안한 개념이 아니라, 일찍이 1822년 프랑스에서부터 도입된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루시드 드림이 스스로 꿈인 걸 알면서 꾸는 꿈, 즉 자각몽을 일컫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필자는 루시드 드림의 과학적 원리를 면밀히 이해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의 각종 e-book과 문헌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소설을 문학으로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설과는 전혀 다른 설정을 곳곳에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와 관련한 에피소드는 전적으로 필자의 상상력을 토대로 만든 허구의 이야기임을 알립니다.

〈1〉 방

— 1월이 왔다. 빌어먹을 1월이.

나는 나이 마흔의 장애인이다. 휠체어 없이는 홀로의 힘으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한다. 하여 내 녹슨 몸이 매일같이 자리해 있는 이 침대와 골

방이 곧 나의 세계다. 골방에 갇혀 지내면 시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다. 암막 커튼을 친 채로 어둡게 잠에 들었다가 깨었을 때 보이는 숫자 1의 시침이 오후 1시인지 새벽 1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때도 있다.

혼자서는 문턱을 하나 넘는 것도 버거운 일이니, 침대 끝에 걸터앉아 간신히 창문을 열어보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이자 소통구다. 물론 창문을 통해 내게 허락되는 건 늘 똑같은 풍경뿐이다. 신경질적으로 묶여지고 펼쳐져 있는 제 마음대로의 전신주들. 아직도 저런 지붕이 있구나 싶은, 동떨어진 옛 시대의 집들. 구멍가게 평상 위에서 서로 대화도 나누지 않고 그저 온종일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몇몇의 노인들. 그리고 이 가난한 동네에도 기어코 들어서서 저 높이 우뚝 서 있는 빨간 십자가까지. 모든 게 똑같다.

하루 한두 번쯤 창문을 열어보는 건 환기를 핑계 삼아 하는 일이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일종의 생존신고이기도 하다. 차고 더운 바람의 온도와 습하고 메마른 공기의 질감으로 계절을 감각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잠에서 깬 오늘 이 시간, 바람은 차고 공기는 메마르다. 그래, 1월이 왔다. 빌어먹을 1월이.

— 그 새끼는 사람이 아니다.

1월은 많은 일이 일어난 달이다. 20년 전 스키장에서 있었던 나의 추락사고. 그 리프트에 나와 함께 올라탔던 현수와 은혜의 결혼식. 이제는 내로라하는 유명작가가 된 현수의 데뷔작 출판. 그리고 열아홉을 막 지난 스물 무렵, 우리 셋의 대학 합격자 발표일까지. 해만 다를 뿐 전부 1월의 일이었다.

같은 고등학교 작문 동아리였던 우리는 대학 원서 접수도 머리를 맞대어 함께했다. 그 결과 우리 셋이 지원한 곳이 2곳이나 겹쳤다. H대 국어

국문학과와 J대 문예창작학과였다. 나와 은혜는 같은 대학에 붙었고, 무리해서 상향 지원을 했던 현수는 어느 곳에도 합격하지 못했다. 재수 확정이었던 것이다. 사실 나는 내심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런 내색이라곤 전혀 없이 현수를 진심으로 위로했다. 먼저 가 기다리겠다고. 1년 뒤에 들어와서 1살 많은 신입이라 네가 벌쭘해할 때, 선배인 내가 길을 터주겠다고. 아무 걱정 말라고. 참 가증스럽지. 그런데 말이다. 그랬던 20년 전의 나보다, 현수야말로 더더욱 가증스러운 새끼다. 그래, 그 새끼는 사람이 아니다.

— 오랜만이지? 은혜랑 나 결혼해. 네가 사회를 봐줄 수 있을까?

10년 전, 문자로 이 부탁을 받았던 서른의 나는 무응답으로 거절을 했다. 나는 현수보다 더 일찍 은혜를 알았다. 현수가 내게서 빼앗아간 은혜는 남들과는 다른 아이였다. 또래보다 유독 덩치가 작고 왜소했던 나의 별명은 땅콩이었다. 그런 나를 땅콩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러주던 유일한 아이가 은혜였다.

사실 나는 장애를 가지기 전에도 골방에 박혀 살던 놈이다.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학원이란 곳에는 발을 들여 보지도 못했으니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10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친구라 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녀석들이 학원에 가 있을 시간, 나는 홀로 골방에 들어앉아 책을 읽고, 문학에 꿈을 품어 스스로 습작을 써보곤 했다.

— 너도 글 쓰는구나.

그런 나의 끄적거림을 알아봐준 것이 은혜다. 언젠가부터는 친구놈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나의 글을 매만지는 일에 더 가슴이 뛰었고 활자를 가지고 노는 일이 더 재밌어졌다. 그러다 보니 골방을 넘어 학교에까지

습작 노트를 가져가게 되었고, 나는 그것을 쉬는 시간에도 붙들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나의 모습을 은혜가 목격한 것이, 우리 둘이 본격적으로 친해지게 된 계기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우리는 2, 3학년 때 아예 다른 반이 되었다. 하지만 은혜의 권유로, 1학년 2학기부터 작문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다. 현수는 그 동아리에 그 다음해에야 들어오게 됐다. 나도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수가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것은 순전히 은혜 때문이었다고 한다. 다른 반이던 은혜에게 관심이 있던 녀석이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작문 동아리에 지원을 한 것이었다.

그런 놈이 작가로 소설을 펴내고, 각종 문학상을 휩쓸고, 매체에도 나온다. 데뷔 10주년을 맞았다고 대형서점에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프로모션이나 축전 같은 것도 해준다고 하니 내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다.

나는 마흔이 되어서도 가난하고 냄새나는 골방, 이 환멸스러운 나의 공간을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런데 너는 매체에서, 서점에서 너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준다. 현수, 너는 성공했다. 너는 추앙받는다. 너는 내 꿈을 살고 있다. 너는 내 오랜 열망을 도둑질했다.

— 관심 있는 여자애를 따라 작문 동아리에 들어갔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애는 바로 지금 제 아내입니다.

인터뷰에서조차 네가 농담조로 말하는 너의 시작. 아주 가벼운 치기에 가까웠던 너의 문학을 향한 그 시작이 시간이 흘러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만개해 있다. 나는 이 부조리에 너무나도 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어찌되었건 이 사실은 넘겨버릴 수 있다. 이건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건 네가 결혼으로 은혜를 아주 가져가버렸다는 사실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은혜는 남들과는 다른 아이였다. 나 땅콩에게 보인 그녀의 관심과 친절은 순수 그 자체였다. 은혜만은 다른 녀석들과는 달랐다.

가난한 데다가 덩치도 작고 인물도 별로고 심지어 별명까지 땅콩이니 10대의 나는 그야말로 완벽한 찌질이 그 자체였다. 학폭보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교묘한 선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고등학생씩이나 되면 이제 원초적인 주먹질이나 따돌림은 사라진다. 대신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뽐내기 위해 교묘한 선의를 베풀 대상을 찾는 놈들이 생긴다. 이를테면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학생부회장이 그랬다. 부탁한 적도 원한 적도 없었지만 저가 먼저 다가와 나를 챙기는 척을 한다. 음악실로 가면서 장구 같은 것을 대신 들어준다든가, 체육시간에 고정 짝지가 되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고는 적금처럼 쌓아둔 '이미지'를 챙겨서 홀연히 떠난다.

방과 후고 방학 때고는 연락 1통 없다가 개학 중에는 또다시 그 챙김이 시작된다. 물론 그 챙김의 과정에서 가벼운 사담은 하나도 없다. 고마운 마음에 몇 번 내가 이야기를 건네 본 적은 있었다. 하지만 찌질이 땅콩인 내가 키 크고 잘생긴 학생부회장에게 사담을 건넨단 사실에, 주변 다른 아이들 눈치를 보고 불편해하던 녀석의 표정을 보고는 그만두었다. 학기 말, 녀석이 마지막으로 챙겨낸 것은 스펙이 될 선행상과 내년도의 학생회장 자리였다.

그런 놈들투성이었다. 하지만 은혜만은 달랐다. 은혜만은.

— 나 작문 동아리이거든. 2학기에 들어와. 네 작품 나도 읽어보고 싶어.

다시 스물의 1월로 돌아와 본다.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던 마지막 겨울이다. 입시의 승자와 패자가 동아리에서도 나뉘었다. 누군가는 합격의 기쁨을 만끽했고, 누군가는 현수처럼 좌절감에 아파하기도 했다. 어쨌든 같은 꿈을 품었던 우리이기에, 졸업 전 마지막으로 함께 놀러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 스키장 가자. 스키 타고 싶어. 어이 대학생들, 재수생 부탁 들어줄 거지?

스키장을 가자는 제안은 현수의 것이었다. 들어주지 않을 수 없던 탓에 우리는 정말로 스키장으로 가게 되었고, 사고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다. 스물의 나를, 아주 걸을 수 없는 장애인으로 만든 사고 말이다.

스키는 물론이고 리프트란 것도 난생처음 타게 된 나였다. 앞줄에 있던 사람들이 리프트 하나에 3명씩 타는 모습을 보고는, 나는 정원이 3명으로 정해져있는 줄로만 알았다. 내 앞에서 은혜와 현수 그리고 다른 친구 하나가 리프트에 올랐다. 당연히 나는 다음 거를 타야겠구나 생각하고는 멈춰섰다.

— 땅콩! 안 타고 뭐해? 이리 와, 같이 타야지!

그때 현수가 외쳤다. 녀석은 몸을 왼쪽 끝으로 붙이면서 나를 태울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나는 안전요원의 눈을 쳐다보았고, 그는 타도 된다는 눈짓을 했다. 신나게 올라서 앉아보니 저 멀리 앞에서 3명이 아니라 4명이 탄, 또 다른 리프트들도 보였다. 현수가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은혜와 나만 같은 대학에 다니고자, 내심 그의 불합격을 바랐던 가증스러운 사실에 말이다.

그렇게 올라탄 것도 잠시, 내 몸 앞에 자리한 안전바 결합부에서 갑자

기 기분 나쁜 소음이 들려왔다. 그러다 앞으로 가던 리프트가 잠시 멈추어서더니 이제는 뒤로 역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나는 추락했다. 나 혼자만.

그때 리프트에 타지 않았더라면, 아니 내 몸이 땅콩처럼 작지만 않았더라면, 탈락되지 않은 안전바 몸체에 다른 아이들처럼 몸이 걸려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니 애초에 스키장에 가지 않았더라면, 장애를 갖게 되지도,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날 아침까지도 값비싼 비용을 이유로 스키장 여행을 반대했던 어머니에게, 가난을 향한 슬픈 원망과 고성을 악에 받쳐 내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나는 오늘, 1월의 골방에서 생각한다. 이 빌어먹을 1월이 앗아간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내 어머니의 숨이다.

〈2〉 꿈

내가 루시드 드림을 시도한 것은 10년 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현수와 은혜의 결혼식이 있고 난 직후다. 당연히 나는 둘의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

사고 후 의식이 없을 때에 은혜와 현수가 병실에 다녀간 것을 알고는, 나는 은혜에게조차도 두 번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못하게 했다. 그 일방적 절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번번이 차단을 해도, 잊지 않고 매번 연락을 주었던 두 사람 말고도, 그 누구에게도 망가진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연락을 매번 차단하는 일이, 시간이 흘러서는 오히려 안부를 묻는 일과도 같아졌다. 모순이었다. 회신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읽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신년이고, 연말이고, 생일

이고 하며 몇 마디 말을 내게 음성메시지로, 문자로 건네어 주던 일 말이다. 하여 우리 셋은 끊어진 것이었으나 아주 끊어진 것은 아닌 그런 사이가 된 것이었다. 이 역시 모순이었다. 그 모순으로 나는 여태까지 여전히 우리 셋이 친구라는 정신적 동질감에 기대왔는지도 모른다. 참 이기적이게도 말이다.

스키장에서의 사고가 육체적 타살이었다면, 현수와 은혜의 결혼식은 내 정신적 자살을 불러왔다. 한동안 시체처럼 무작정 누워만 지냈다. 방의 문턱을 넘기는커녕 창문을 열어 풍경을 바라보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 나중에는 배설물도 거의 나오지 않는 지경이 되었다. 어머니의 속만큼이나 나의 몸도 아주 문드러져, 욕창의 증세가 더 악화되었다.

그러다 지치고 지친 어느 하루 겨우 한 차례 잠에 들었는데, 거기서 나는 두 발로 걸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은혜와 함께였으며, 작가로서 소설을 펴내면서 책 말미에 내 소중한 어머니에게 눈물로 쓴 헌사를 바치게 되었다.

잠에서 깨었을 때, 꿈인 걸 알았을 때 나는 그대로 누워서는 정말로 한 마리 짐승처럼 울음을 토했다. 15kg이 빠져 산 송장에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의 분비물이 얼굴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다시 생생한 현실 같은 꿈을 꾸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꿈인 걸 스스로 인지한 채로 그 세계에 닿고 싶었다. 하여 나는 자각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일컫는 명칭이 루시드 드림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루시드 드림은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낭설이 아니라, 큰 규모의 학회

가 세계 곳곳에 있고, 무수한 논문이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현현한 실재였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다는 얘기다. 나는 점점 그것에 심취하기 시작했고, 침대 위 노트북에서 온갖 서적과 논문을 미친 듯이 독파하게 되었다.

결국 그 병적인 천착은 마침내 실제 시도로 이어졌고, 셀 수 없는 실패를 치르고 나서는 기어코 성공에 다다를 수 있었다.

첫 공간은 골방이었다. 내 몸이 자리한 바로 그곳이었다. 그래서 한동안은 현실과 분간이 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내게 주어진 꿈 세계의 공간은 너무나 좁았고, 그것을 좀처럼 넓힐 수가 없었다. 두 번째 꿈에서부터, 선명한 상상력과 약간의 손짓으로 하나씩 작은 변화를 줄 수가 있었다. 이를테면 어두운 암막커튼의 색깔과 재질을 조금 더 밝고 고급스럽게 바꿔볼 수 있었다.

나중에는 내 루시드 드림 속 세계에 셀 수 없이 많은 거울들을 채워 넣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거울들이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무수한 굴절과 반사를 만들어냈다. 그러고 나니 좁디좁던 나의 골방이 그 거울들을 통해 넓어지고 깊어지고 다채로워질 수 있었다. 나는 거울을 '미러'라고 명명하기로 했고, 한 칸의 미러마다 저마다 다른 '오브제'를 집어넣었다. 서로 반사되고 중첩되는 수많은 오브제의 상들은 한데 어우러져 별이었고 하늘이자 우주였으며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가 되기도 했다.

루시드 드림을 논문으로 익힐 때, '미싱'이란 게 두려웠던 기억이 난다. 말 그대로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고 꿈속에서 영영 미아가 돼버리는 것이다. 루시드 드림을 계속 공부하면서도, 정작 성공했을 때 문제없이 어떻게 회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늘 마음에 있었다. 물론 내가 익힌 이론대로라면, 방법론적으로는 실제의 삶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현실부

정'을 명징하게 상상해낼 때, 꿈에서 깨버린다는 걸 알고 있긴 했다. 하지만 그 개념이 참 추상적이고도 모호한 것이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우였다.

첫 시도에서 나는 곧바로 '점프'를 터득할 수 있었다. 처음 루시드 드림이란 걸 인지했을 때, 내가 당장 시도해봤던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바로 두 발로 걷는 일이었다. 걸으려고 발 하나를 내딛는 순간 바로 꿈에서 깨버렸다. 그래, 그것이 내게 있어 가장 명징한 현실부정일 테지. 그리하여 나는 현실로 되돌아오고자 할 때 발을 내딛는 그 행위를 점프라고 명명하기로 했다.

그렇게, 꿈에 들었다가 점프로 되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나는 루시드 드림에서 무려 10년을 살았다. 꿈이 현실로, 현실이 꿈으로 뒤바뀐 10년이었다.

걷기 위해 발을 내딛는 것 외에도 또 몇 가지 현실부정이 있었다. 점프가 아니라 미러 속 오브제의 형태로 말이다. 현수처럼 작가가 되어 집필한 나의 데뷔작. 휠체어 없이 두 발로 딛고 서서 작가로서 강연을 하고 있는 나의 사진. 은혜와 만나 정식으로 교제하며 쌓아간 편지들과 반지와 청첩장. 그리고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가 다시 뒷모습을 보이며 요리하고 있으실 것만 같은 작고 낡은 주방의 미니어처까지. 이것들은 나에게 몹시 소중하여 내 몸에 가까운 미러들에 놓아둔 것들이었다. 그러나 또한 이것들은 도저히 마음이 아파 볼 자신이 없는 것들이기에 뒤집어놓고 있던 것들이었다. 그 때문에 빨간 페인트를… 아니, 붉은 피를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린 듯하다.

누군가가 미러 속 내 데뷔작과 강연 사진에다 빨간 것으로 X표를 마구 칠해놓았다. 은혜와의 추억들에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페인트라고 생

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굳고 식어버린 피였다. 침입자일까? 아니 그럴 수 없다. 루시드 드림에서는 침입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타자가 존재할 수 없다. 스스로의 의식을 가진 또 다른 타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 보고 싶은 은혜를 불러내 보려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살려내 보려고 직접 시도해봤기에 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 몹시 심각해질 무렵, 이번엔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일이 일어났다. 저 멀리 다른 미러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반사돼 보인 것이다. 검은 머리카락이 보였고, 창백하게 흰 얼굴이 보였다. 사람이었다. 성별은 가늠할 수 없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순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몸을 감쌌고, 나는 곧바로 점프를 하기 위해 몸을 비틀었다. 그러는 사이 움직일 수 있던 나의 팔이 다른 미러 하나를 툭 치며 깨고 말았다. 그 미러 속 오브제의 망가짐과 함께, 강한 현기증이 돌며 현실로 되돌아왔다. 점프가 이뤄지던 찰나, 망가진 오브제가 바로 어머니의 주방 미니어처였다는 사실과 그것엔 붉은 피가 묻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어머니… 엄마.

어머니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작년 1월에 세상을 떠나셨다.

평생 가난과 사투를 벌인 당신께선 끝내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4년간의 학비를 위해 어머니가 피땀 흘려 마련해놓으셨던 얼마간의 돈은, 나의 병치레에 쓰여 순식간에 소진되었다. 친구들이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기는 동안, 나는 병실에 틀어박혀 재활과 치료에만 전념해야 했다.

스키장 운영사는 리프트의 기계적 결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리프트는 3인이 정원인 게 맞았다. 안전바의 결함은 논외였고 쟁

점은 자꾸만 정원 초과로 바뀌어갔다. 어머니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조리 긁어 모아 법적 다툼도 벌이셨다. 하지만 4인을 태운 것에 대한 과실만 부분 인정되어, 운영사로부터 도의적 차원에서 아주 약간의 위로금만 지급받은 게 전부였다. 사고로 입은 장애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후일에 들은 일이지만, 내가 리프트에 올라타는 것을 눈짓으로 허락해 주었던 그 안전요원도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그래 봤자 그도 나보다 고작 몇 살 많았던 어린 청년이었다. 그에게도 나름의 꿈이 있었을 터인데.

꿈이란 말은 다각적으로 굴절된다. 꿈은 헛된 희망이기도 하고 기약 없는 현실이 되기도 하지만 도피처가 되기도 한다. 나에게는 후자에 가깝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그렇게 미치도록 심취하고 천착했던 꿈에 있어 모르는 것이 있다. 어머니의 꿈은 뭐였을까. 어머니 당신의 꿈 말이다. 나는 그것을 모른다.

— 찾아내겠어.

어머니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내겠다. 찾아내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주방 미니어처에다 기어코 붉은 피를 칠해놓은 너를 만나야겠다. 찾아내겠다.

이윽고 공포가 사라지고, 한참의 휴지기를 지나, 다시 루시드 드림에 빠졌을 때 나는 발견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시기를 바라며 만들었던 그 오브제에, 나의 지난 몸부림으로 깨져버린 바로 그 주방에 X표의 붉은 피가 새로이 칠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든 너, 침입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

— 앗, 거기 서! 이봐, 도망가지 말라고. 이러는 이유가 뭐야, 대체!

녀석이 보였다. 지난번처럼 미러들을 통해 일부가 반사되는 식이었다. 녀석은 한참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길 반복했다. 나는 자각몽에서, 자각할 수 없는 시간만큼 추적을 강행했다. 그러나 애초에 붙잡을 수 없는 추적이었다. 움직일 수 없는 다리 대신, 바닥에 맞댄 상체로 몸을 질질 끌었기 때문이다.

〈3〉 나

바닥에 몸을 기던 내 팔을 붙잡은 건 소년이었다.

— 드디어.

— 네, 드디어.

만나면 두들겨 패고 싶을 줄 알았는데 그런 기분은 들지 않았다. 앞날의 분노는 사그라들고 마음이 차분했다. 정말이야말로, 녀석이 반갑기까지 했다.

— 묻고 싶었어. 대체 넌 누구야? 미러 속 내 오브제들을 왜 망치는 거지?

— 참 오래도 걸렸네요. 드디어 만났어요.

녀석은 내 질문에 대답 않고, 제 할 말만 내뱉었다.

그런데 그 말이 조금 이상했다. 여태까지 셀 수도 없이 연신 나를 피해 사라져놓고는, 드디어 만났다고 내뱉는 저 말. 마치 저 자신도 나를 만나길 원했다는 소리같이 들렸다.

— 나는 도망가는 너를 볼 때마다 매번 붙잡으려고 했어. 금세 사라졌지만.

— 내가 도망가고 있던 게 아니라, 당신이 도망치고 있던 거예요.

소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리를 해댔다.

— 무슨 뚱딴지같은 말을 하는 거지? 재미없는데.

— 당신이 나를 쫓고 있던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쫓고 있었다고요.

— 헛소리 마. 도대체 무슨.

— 이해해요. 당신의 착각은 바로 저 미러들의 굴절 때문이었겠죠. 무수히 많은 미러들에서 어렴풋이 잡히던 내 몸의 일부, 나의 그림자. 실은 당신을 쫓고 있는 모습이, 마치 당신에게서 도망가는 모습처럼 보였을 테죠. 이제는 부숴버리죠.

그 말을 끝맺음과 함께 소년이 중지로 엄지를 쓸어내렸다. 그 손짓에서 시작된 작은 파장이, 닿지 않을 저 멀리 어딘가에서부터 무자비한 굉음을 데려왔다. 무언가가 속절없이 처참하게 깨지는 소리, 미러였다.

꿈 속 세계 천장의 소실점 끝에서부터 미러가 비명을 지르며 하나 둘 도미노처럼 줄지어 깨어지고 있었다. 잔해는 떨어짐 없이 증발해 연기만 피우고 사라졌다. 그만하라는 말을 꺼낼 요량 없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루시드 드림이 무너진다. 내 꿈이 무너진다. 10년간 겹겹이 쌓아올린 나의 세계가 무너진다. 굉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저 미러들을 보고 있노라니 마치 불꽃축제를 보는 기분이 들었다. 짧은 시간이나마 허공에 제 몸짓을 현현하게 남기는 불꽃처럼, 모순되게도 무언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광경 같았다. 그러니까, 파괴라기보다 창조에 가깝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다.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바라만 보던 나는 허무나 분노, 황망함 같은 너저분한 감정보다 이제는 아주 확고한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그리하여, 도대체 너는 누구인가.

— 그래서 넌 이 세계의 절대자 같은 존재라도 되는 건가.

— 꿈에선 10년이나 미러를 봐놓고, 현실에선 거울을 보지도 않았나 보네요.

— 무슨 소리야?

— 얼굴도 까먹어버린 거예요?

유약해보이면서도, 꿈을 향한 강한 확신에 차 있던 저 맑은 눈. 부푼 미래를 머금고 있는 듯 양 꼬리가 살포시 올라가 있는 저 입술. 그래, 땅콩.

소년은 나였다. 그 사고를 당하기 전, 장애인이 되기 전의 나였다. 열아홉을 지나 스물의 1월에 닿았던 앞날의 나였다.

소년이 바로 20년 전의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해 있을 때, 녀석은 느닷없이 말을 계속 이었다.

— 저거 봐요. 난 당신 세계를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미러들이 깨어지고 증발하면서 자욱했던 연기가 조금씩 사라져갔다. 소년의 정체가 베일을 벗은 것처럼 연기 뒤편의 형체들도 하나 둘 윤곽을 드러냈다. 그의 말이 맞았다. 나의 루시드 드림 속 세계는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였다.

— 미러는 거울이 아니라 창이었어요. 난 창을 깨트린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나의 표정을 보고는, 녀석은 곧바로 말을 덧붙였다.

— 쉽게 말해 당신은 루시드 드림에서조차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자였어요.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였고요, 행동자인 척하는 망상가였죠. 그동안 루시드

드림에서 당신은 마치 게임 속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겠지만, 실은 그 게임을 실행하고 있는 플레이어였을 뿐이라구요. 마치 미러를 모니터나 스크린 삼아서 말이죠. 꿈조차, 꿈에서조차. 어때요, 뼈아픈가요?

소년의 끝말에 무언가 대답을 해보려던 찰나에, 나는 균열을 발견했다. 분명 녀석의 말대로 나의 루시드 드림 속 세계는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인 듯했다. 그러나 어딘가 몇 군데 다른 구석이 있었다. 나는 그 균열들이 일어난 장소가, 앞전에 그가 붉은 피로 X표를 해버렸던 곳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 더 뼈아픈 이야기들을 해야겠네요. 첫 번째, 그 사고에는 어떤 필연도 작용하지 않았어요. 당신 몸집이 땅콩처럼 작아서, 당신만 리프트에서 떨어졌던 게 아니에요.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에요. 하필이면 안전바 한쪽이 망가져버린 맨 오른쪽에 당신이 앉았기 때문이라고요. 그 자리엔 당신이 아니라 누가 앉았어도 떨어져서 다쳤어요.

녀석의 말이 맞았다. 안전바의 결착에 이상이 있음을 인지한 안전요원이 중간지점에서 리프트의 작동을 멈춘 뒤, 출발점을 향해 다시 역방향으로 회귀시키고 있었다. 첫 지점으로 돌아가던 그 사이에, 기어코 오른쪽 안전바가 휘어져 결합부 하나가 탈락돼 버리면서 나도 함께 떨어진 것이었다. 나의 몸집이 작아서가 아니었다. 소년의 말대로 하필이면 맨 오른쪽에 앉아있던 게 나였기 때문이었다. 운이 나빴을 뿐이었다. 그 자리에 앉았더라면 내가 아닌 누구라도 떨어져 다칠 수 있었던 것이었다.

— 두 번째, 당신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어도, 장애인이 되지 않았어도 은혜 씨와는 이어지지 못했어요. 은혜 씨가 당신과 당신의 글을 아꼈던 건 순수한 우정에서 비롯된 일이었어요. 사랑이 아니었다고요. 사고 후에, 마치 현수 씨

가 당신 빈 자리를 대신해 은혜 씨 곁에 다가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 스물이 되기 전부터 현수와 은혜는 이성적인 관계였다. 그 시절 함께 어울리던 우리의 모습에서 나는 이미 둘의 감정적 교류를 인지하고 있었다. 현수가 내게서 은혜를 뺏어간 게 아니다. 십대의 끝자락과 이십대의 첫 자락에서 은혜에게 품었던 나 땅콩의 사랑은 철저한 외사랑이고 짝사랑이었다.

— 마지막, 가장 아플 거예요. 각오하고 들어요. 어머니의 숨은, 잃어버린 과거도 아니고 마주하지 못한 미래도 아니고 바로 현재가 앗아간 거예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이윽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 꿈을 품던 과거의 어린 아들을 상실해서가 아니에요. 홀로 섰을 미래의 장성한 아들을 만나지 못해서는 더더욱 아니죠. 어머니를 병들게 한 건, 루시드 드림을 한답시고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 지낸 현재의 당신이에요.

10년은 남 탓과 세상 탓만 하며 살았고, 10년은 현실을 등진 채 루시드 드림만 하며 살았다. 사고를 당한 스물에서 오늘의 마흔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20년간 병들어 숨이 메말라 가던 건 나뿐 아니라 어머니이기도 했던 것이다. 녀석의 말이 맞다. 어머니의 숨은, 시체 같던 나의 현재가 앗아간 것이었다.

— 나를 불러낸 게 당신이에요. 지금 숨을 헐떡이며 눈물 흘리고 있는 당신.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 사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해왔던 것이다. 소년을 불러낸 게 나 자신이라는 사실. 소년이 바로 20년 전의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꾸고 있는 지금 이 꿈이 중첩몽, 꿈속의 꿈이란 사실까지

도 말이다. 이미, 일찍이, 진즉에 다 알고 있었다,

—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은, 루시드 드림 속에서 만든 또 다른 루시드 드림, 중첩된 꿈이에요. 당신은… 아니, 우리는 너무 오래 꿈을 꿨어요. 이제 그만, 이제 제발 깨어나요.

소년은 또 한 번 중지로 엄지를 쓸어내렸다. 그러자 온전했던 내 루시드 드림 속 세계가 이번엔 정말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시작된 파괴의 해일이 기어코 눈앞까지 떠밀려 왔을 때, 비로소 나는 중첩몽에서 깨어났다.

〈4〉 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나의 골방이었다.

달라진 건 없었다. 똑같은 침대, 똑같은 몸.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혹시 이것도 꿈이 아닐까 하는. 2겹의 중첩몽에서 깨어났으니 점프를 해서 돌아온 곳이 0단계의 현실이 아니라 1단계인 원래의 꿈, 원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물의 나 땅콩이 파괴한 루시드 드림 속 세계는 사라졌으니 움직일 수 없는 내 몸이 자리한 침대와 골방은 원몽의 것이라 하여도, 현실의 것이라 하여도 말이 되었다. 루시드 드림이라는 허상을 거두어내니 이제는 아예 꿈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진 것만 같았다.

뭘 해야 할까. 이제 루시드 드림은 없다. 어머니도 없다. 혼자뿐이다. 휠체어 없인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침대 위에서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그냥 무작정 글을 써야겠다는 것. 생각과 상상력과 약간의 손짓으로 10년간 루시드 드림에서 하

나의 세계를 창조해냈지 않은가. 글이란 것도 비슷한 구석이 있었다. 물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똥 덩어리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내가 글을 쓰는 행위가 '배설'으로나마 기능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금은 후련할 것 같다. 혼자서 배설조차도 쉬이 할 수 없던 장애의 문턱에서 간신히 느껴보는 첫 해방감이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진 만큼, 아니 정확히는 내가 자리한 이 세계가 꿈인지 현실인지를 이제는 애써 구분하고 자각하지 않으려는 만큼,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도 구태여 그 실재를 확인하거나 감각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다만 내 글과 내 이야기에 집중해야겠다.

유명작가가 된 현수처럼 근사하고 품격 있는 글을 쓸 실력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은혜에게 끝내 전하지 못한 숱한 연서와 편지들처럼 진실된 문장을 쓸 순수함도 더는 내게 남아있지 않다. 하여 나는 첫 글을 그저 기록과 고백의 형식으로 쓰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쓸 거냐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준 고마운 당신이, 나의 기록과 고백이 궁금하다면 다시 이 글의 맨 첫 페이지로 되돌아가면 되겠다.

《연 혁》

1992. 10. 17. 볼런티어센터에서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대구, 경북지회 창립멤버 8명이 임시 모임에 참석하다.
(이흥렬, 정연욱, 황종성, 이병언, 정재한 등)

1993. 2. 27. 수성구 황금복지관 강당에서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창립식을 가졌다.

1993. 10. 30. 두류야구장에서 한마음운동추진회 주최 한마음어울대회에 우리 회원이 참가, 작품전과 각종 경기에 참석하여 대회를 빛냈다.

1994. 5. 5. 황금복지관 강당에서 창립 1주년 및 민들레 창간호 출판기념회를 가짐과 동시에 한마음운동추진회와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1995. 5. 25. 황금복지관 강당에서 창립 2주년 및 민들레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1995. 7. 21. 경산대학 캠퍼스에서 한국장애인문인협회 주최 제1회 장애인문인연합 수련회를 개최하여 5개 단체 120여 명의 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2일간)

1996. 5. 11. 황금복지관 강당에서 창립 3주년 및 민들레 3호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1996. 12. 14. 삼성금융플라자에서 열린 한국예총대구지회 주최 제3회 겨울문학제 동인지 콘테스트 및 전시회가 열려 민들레가 장려상의 영광을 안았다.

1997. 5. 17. 민들레 4호 출판기념식 및 작품상 시상식을 파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가졌다.

1998. 5. 16. 민들레 6호 출판기념식 및 작품상 시상식을 파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가졌다.

1999. 5. 29. 민들레 6호 출판기념식 및 제1회 청민문학상 시상식이 황금동 상록뇌성마비복지회 마당에서 가졌다.

2000. 6. 3. 민들레 7호 출판식 및 제2회 청민문학상 시상식이 대구파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아울러 전임 지회장 이흥렬 회장님과 김금철 신임회장님의 이 · 취임식이 있었다.

2001. 5. 26. 민들레 8호 출판기념식 및 청민문학상 시상식을 대구파동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거행하다.

2002. 5. 25. 민들레 9호 출판기념식과 제4회 청민문학상 시상식을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거행하다.

2003. 1. 2003년 1월에 장애인문인협회 경북지회가 창립되므로 인해 한국장애인 대구 · 경북지회가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대구광역시지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4. 5. 29. 민들레 11호 출판기념식 및 제6회 청민문학상 시상식을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거행했다.

2005. 5. 10. 초대 지회장을 지낸 이흥렬 회장님이 김금철 지회장으로부터 다시 지회장직을 승계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대구광역시지회가 대구 · 경북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5. 6. 4. 민들레 12호 출판기념식 및 제7회 청민문학상 시상식을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거행했다.

2006. 6. 17.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문학클래식 창간 출판기념식 및 제8회 청민문학상 시상식을 거행함과 동시에 김금철 회장님과 이흥렬 회장님의 이 · 취임식을 가졌다.

2006. 11. 25.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대구 · 경북지회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행사가 경대 후문 앞 네오호프집에서 열려 약 400명의 손님이 다녀갔다.

2006 12. 28. 대구동서라이온스 355-C지구에서 청민문학상 상금 전액을 후원받기로 결정했다.

2007. 5. 19.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민들레 14호 출판기념식 및 민들레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아울러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대구. 경북지회'가 '한국민들레장애인문인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청민문학상'은 '민들레 문학상'으로 변경되었다.

2007. 11. 25. 대구 백록담호프집에서 협회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집을 열어 약 300명의 손님이 다녀갔다.

2007. 12. 9. 대구푸른방송 소강당에서 장애인문예진흥회 주최 우리 회원들의 작품으로 시 낭송과 안무를 겸하여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이흥렬 회장님이 직접 발가락으로 키보드 연주를 하면서 시

낭송을 했다.

2008. 1. 19. 서울 〈문학세계〉에서 개최한 세계문인협회 창단식에 이흥렬 회장님이 한국 시인 200명 선에 발탁되어 내빈으로 참석하여 우리 협회의 기상도 높이고 많은 지인들에게 홍보하고 왔다.

2008. 5. 3. 대구달구벌종합복지관 강당에서 민들레 출판기념식 및 민들레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2008. 10. 30. 포항대보중학교에서 대구경한라이온스협회로부터 휠체어 두 대를 전달받았다.

2008. 11. 4. 대구경한라이온스로부터 전달받은 휠체어 두 대를 경북밀알에 기증했다.

2008. 11. 27. '백두대간'에서 협회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행사를 가졌다.

2009. 1. 16. 우리 협회 이사로 계시는 박종안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벤처기업 신독엔지니어링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2009. 1. 부천에 계시는 구미서 전도사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양말 한 박스를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2009. 5. 23. 대구달구벌종합복지관 강당에서 민들레 출판기념식 및 시상식을 거행했으며, 이날 행사에 동서라이온스, 신독엔지어링, 한민복지재단, 성당노인종합복지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음과 동시에 자매결연 패를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2009. 9. 18. 달구벌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시화전시회를 겸한 일일찻집을 열었다.

2009. 9. 대구경한라이온스로부터 휠체어 5대를 전달받아서 각 기관 및 개인에서 전달했다.

2009. 12. 30. 대구 동서라이온스에서 시상금 300만 원을 전달받았다.

2010. 1. 29. 협회 사무실을 포항에서 대구로 이전했다.

2010. 5. 22.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민들레 출판식 및 민들레 문학상 시상식과 장학금전달식을 가졌다.

2010. 10. 23. 대구대명교회에서 일일찻집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 낭송회 및 음악공연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우리 협회의 이미지를 알리기도 했으며 또한 회장님의 시 「그리움」이 성악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하여 가곡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2011. 5. 21.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민들레 출판식 및 민들레문학상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2011. 7. 7. 이흥렬 회장님께서 솟대를 빛낸 얼굴로 선정, 상패와 상금을 전달받았다.

2011. 10. 29. 대구대명교회 하늘소풍에서 기금마련 일일찻집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는 백혈병 어린이 돕기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CTS서울 기독교 방송국에서 촬영을 했다.

2012. 3~12.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계약체결 이흥렬 회장님 문학강의를 진행했다.

2012. 10. 26. 대구대명교회에서 기금마련 일일찻집 행사를 했다.

2013. 4. 13. 민들레 봉사단이 창단되어 민들레 봉사단 발대식을 수성구 시지동 고산교회에서 가졌다.

2013. 1. 23. 한국민들레장애인문인협회가 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로 명칭을 바꾸어 비영리 단체로 인가를 받았다.

2013. 1. 24. 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2013. 4. 13. 민들레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2013. 5. 25. 국제라이온스클럽회관 강당에서 민들레 출판식 및 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어려운 장애인 여섯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013. 10. 26. 대명교회에서 민들레기금마련 일일찻집 및 바자회 행사를 했다. 이날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2014. 5. 24. 달구벌종합복지관 강당에서 민들레 출판식 및 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장애인 다섯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014. 10. 11. 대명교회에서 민들레 기금마련 일일찻집 및 바자회 행사를 했다.

2013. 3.~2014. 11. 협회 사무실에서 매주 토요일 회장님의 문학 강의가 있었다.

2015. 3.~2016. 현재 회장님 자택에서 문학 강의 진행 중.

2008. 7.~ 2015. 현재 헌 옷 나누기와 책 나누기. 봉사활동 등 다양한 후원을 통하여 회원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협회를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08. 7.~2017. 현재 ≪민들레 향기≫ 월간지 발간 진행 중.

2010. 3.~ 2014.12.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2시 민들레회원 문학 토론 모임을 진행.

2015. 5. 22. 달구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민들레 출판식 및 민들레 문학상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2016. 6. 3. 달구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민들레 출판식 및 민들레 문학상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2016. 8. 우리 협회와 신체장애인협회와 함께 1박 2일 수련회를 가짐.

2016. 10. 13. 우리 단체와 금호녹색환경단체. 재능시 낭송가협회. 3개 단체가 연합하여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시민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시 낭송회를 가졌다.

2015. 3.~2018. 현재 매월 둘째, 넷째 문학 강의 셋째 목요일 문학 토론 모임 진행 중.

2013. 2.~2018. 현재 장애인예술마을공동체 건립을 위한 땅 사기 운동 진행 중. 부스러기 장학금 모으기.

2018. 4. 21.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민들레 25호 출판식 및 20회 민들레문학상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2018. 8. 5. 이흥렬 회장님이 등단한 곳 천우미디어 출판《월간 문학세계》에서 편집위원 임명장을 받았다.

2018. 10. 27. 두류공원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화전 낭송회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들의 작품을 선보였다.

2018. 12. 2. 서울 성동구청에서 천우미디어 출판사 겨울 문학축제에서 이흥렬 회장님은 문화예술 공로상을 받았고 이순희 총무님과 대구회원 김성현 님이 신인작가상을 받고 등단했다.

2018. 12. 17. 대구 들안길 식당에서 우리 협회 후원회 회장이신 박종안 사장을 비롯한 11명의 후원 이사님이 모여서 후원회 결성식과 후원회 밤을 개최했다.

2019. 4. 22.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많은 내빈을 모시고 민들레 26호 출판식 및 21회 민들레문학상 시상식을 거행, 특히 이날 우리 협회 후원

회장님이 대구시장님의 표창장 수여식도 겸하여 가졌다.

2019. 10. 18. 두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우리 협회 주최로 대구재능시낭송가협회. 성음 크로마하프 대구지부, 꽃무리 하모니카 봉사단 연합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 낭송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2019. 11. 7. E-랜드 정문 앞 2.28기념탑 공원에서 12월 5~8일까지 북부도서관 전시실에서 전시를 했다. 오가는 시민의 호응이 너무 좋았다. 보신 시민들은 이 옷을 팔지 않느냐고 물어왔지만 우선순위가 회원이라 팔지 않았다.

2019. 12. 5~8. 대구 북부도서관 전시실에서 시화전 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주고 협회 홍보도 하였다.

2020. 6. 8.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들레 27호 출판기념회 및, 22회 민들레문학상 시상식 행사는 취소되고, 11명의 수상자들에게 상금은 계좌로 송금, 상장은 우편으로 송부했다.

2020. 11. 6~7. 청송 주왕산면 내룡리 체육공원에서 시화전과 사진전을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함께 협회 홍보를 했다.

2021. 10. 코로나로 인해 대면 행사를 하지 못하고 개별적 온라인으로 상금과 상장을 보내고 여러 가지 행사는 모두 취소됐다.

2022. 6. 18.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서 민들레 29호 출판기념회 및 24회 민들레문학상 시상식을 대구에 많은 귀빈을 모시고 전국 수상자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렀다.

2023. 1. 대구시 수성구에 상설 시화전장을 열어 놓고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 수성점 건물 1층에 전시함.(황금네거리)

2023. 6.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서 민들레 30호 출판기념회 및 25회 민들레문학상 시상식을 대구에 많은 귀빈을 모시고 전국 수상자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렀다.

2024. 5. 강동어르신행복센타에서 민들레 31호 출판기념회 및 26회 민들레문학상 시상식을 대구의 많은 귀빈을 모시고 전국 수상자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뤘습니다.

《주소록》

■ 대구 회원

최진오 대구시 달서구 도원남로
안홍성 대구시 달서구 조암남로
정선화 대구시 북구 침산남로
김헌직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조성래 대구시 서구 문화로
채경숙 대구시 달서구 상인로
배미경 대구시 수성구 공경로
구순혜 대구시 달서구 한들로
최희옥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동로
배영민 대구시 달서구 월성로
양해주 대구시 달서구 한실로
장윤정 대구시 동구 화랑로
김상우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이재수 대구시 수성구 지범로
장성태 대구시 달서구 대명천로
채영숙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한상시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김희철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화산로
김성현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김미연 대구시 중구 동인로
김사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강선미 대구시 북구 침산로
김금철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손복식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서정만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서희경 대구시 수성구 범안로
석민영 대구시 달서구 도원로
이준희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정재한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정병율 대구시 북구 침산동
채원환 대구시 중구 남산동
유태선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김윤기 대구시 북구 산격동
이수진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이성래 대구시 달서구 도원로
임은현 대구시 서구 평리로
윤외숙 대구시 북구 침산로
한찬호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금포리
이재창 대구시 남구 현충로
박종구 대구시 동구 신천로
김창길 대구시 수성구 지산로
노민규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이선화 대구시 남구 대명동
이광치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정명화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장윤정 대구시 동구 효목동
김형기 대구시 달서구 다사로
조경호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이수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조진호 대구시 동구 효목동
김　창 대구시 수성구 범안로
심갑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이동훈 대구시 남구 봉덕동
박병구 대구시 달서구 신당로
장경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최경훈 대구시 동구 지저동
박은정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김현주 대구시 남구 성당로
안홍성 대구시 달서구 조암남로
고봉국 대구시 북구 구암로
최진오 대구시 도원남로
채점순 대구시 수성구 지산로
백경현 대구시 북구 대현남로

강정용 대구시 달성군 현 풍읍 테크노상업로
정하해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조우호 대구시 북구 동북로
이공내 대구시 서구 중리동
유나겸 대구시 동구 불로동
임재만 대구시 남구 안지랑로
유호진 대구시 북구 서변로
이도훈 대구시 달서구 조암남로
민은경 대구시 남구 명덕로
박은숙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김성찬 대구시 동구 신서동
이기원 대구시 수성구 신매로

■ 경북회원

강경의 포항시 남구 해도동
김명희 포항시 북구 대신동
김성태 경북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
김승동 경북 점촌시 신기동
김준엽 경북 경주군 외동읍 활성리
김진규 경북 경산시 계양동
김종훈 안동시 성곡동
김성선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김갑년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권오웅 안동시 예안면 정산리
정금숙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전진국 김천시 부곡동
김진년 안동시 옥야동
박정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김신애 포항시 대도동
이상선 상주시 외서면
한종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세종 포항시 북구 양덕동
윤남석 김천시 부곡동
박은하 구미시 형곡동
정우태·김희옥 포항시 북구 장미길
김규린 포항시 북구 성실로
이영숙 안동시 경동로
김재훈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정해교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박정은 포항시 북구 장량 중앙로
김동한 영주시 지천로
남동진 경산시 역청로
이정희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한관식 영천시 고경면 창방우길
최광현 안동시 경동로
김경식 경북 김천시 감문면
김송연 경북 김천시 구성면
배혜숙 영주시 구성로

■ 부산·경남회원

정은희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김지수 김해시 평전로
옥진상 울산시 대암로
조재훈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한지길
김창환 양산시 배움터길
이채은 부산시 남구 감만동 우암로
이성규 양산시 번영로
서영희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김동현 경남 산청군 차황면 양곡리
김남철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박현안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정윤석 부산시 동구 좌천동
최운탁 경남 김해시 외동
이민규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손성일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박성남 김해시 영좌동
김영곤 부산시 북구 금곡동
김현주 경남 밀양시 삼문동
박정현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김상곤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김주혜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정만근 울산시 남구 무거동
이정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허윤도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구봉문 통영시 봉평동
강두선 통영시 봉평동
송인탁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신철우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장봉철 양산시 덕계동
김미경 부산시 사하구 한신번영로
공복이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김규선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안진상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이영미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
장정순 경남 진주시 사들로
김진주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김정현 경남 김해시 무계로
이종무 부산시 금정구 남산로
이후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로
오택승 울산시 동구 전하동 봉수로
권상연 울산시 중구 곽남길
조혜옥 울산시 북구 중산로
조요섭 부산시 남구 수영로
최현철 양산시 대운로
성희철 부산시 동래구 금강로
홍진기 경남 창원시 소계동
한상식 경남 양산시 중부동
남정우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박미향 경남 합천구 창덕면 덕진로
주치명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 강원도 회원

오광진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우덕호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조의령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김재빈 강원도 삼척시 원당동
정상석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여운택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조영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백호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정유경 강원도 원주시 예술관길
천기웅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김가영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한명숙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최영철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김익진 강릉시 선수촌로
이은정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
김정옥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문정길
노차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박광순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엄희용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이은영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황영자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이정우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 경기 회원

이진영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장민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안로
이영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의로
윤　강 부천시 조마루로
이청주 인천시 계양구 안남로
최삼순 경기 광주시 송정동
맹윤종 경기 군포시 군포로
신계원 경기 고양시 일산
김경배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손병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성민호 경기 군포시 당동
장화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김판길 인천시 남구 숭의동
홍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황종배 경기 광명시 하안동
박원식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한병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이윤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정혜덕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지미희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기영 인천시 동구 송림동
신승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강경순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오화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김미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박철호 인천시 서구 원당동
이은주 경기 김포시 양촌면
한영애 경기 파주시 교하읍
김은복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최혁규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장대현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전정숙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제삼열 경기 파주시 조리읍
장유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고준형 경기 김포시 사우동
손명길 경기 고양시 화정동
박광주 부천시 원미구 중동
김정미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박성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채혜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조은비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최재호 경기 양주시 덕정길
박찬용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송 주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석명현 안산시 상록구 고목로
김예슬 과천시 문원 청계길
이순자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박선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이일현 인천시 남구 문화로
이용록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한주은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윤길수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이경숙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김리디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이효건 경기 군포시 산본로
박길안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이명자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김순철 경기 오산시 운암로
신숙이 경기 군포시 삼성로
최의택 경기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
이승옥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이승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최빛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이만균 경기 광주시 중앙로
정동혁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전홍구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박두나 경기 하남시 덕풍북로
조민경 경기 포천시 호국로
송인숙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이진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김인성 인천시 동구 중앙로
천 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정진애 경기 하남시 검단산로
이만균 경기도 광주로 중앙로
노명현 경기 김포시 유현로

■ 서울 회원

서귀례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김창주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김양자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김효진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고정목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구애경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노승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이동석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임영자 서울시 성동구 금호4가
임용혁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우창수 서울시 서초구 장원동
최진영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서주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김종구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김경환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박병훈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차강석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정호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김영식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신성남 서울시 중구 남창동
윤정상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김영자 서울시 중구 남창동
이병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심철수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윤현희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현동재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박종필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권대성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김성진 서울시 강북구 솔샘로
김효진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김삼식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조수영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이영석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정미영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김현아 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로
조국형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최동열 서울시 강서구 지족동로
윤홍근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장서영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홍성원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 전라도

김성은 전북 익산시 동천로
송창재 전북 군산시 서수면 용천로
이계천 전남 나주시 학생운동길
박진희 광주시 북구 서하로
김종현 광주시 도암동
최주영 전북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상리
서기선 광주시 두암동
나두길 전북 군산시 나운동
유영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황성욱 전남 순천시 황천면 비촌리
백국호 전남 장성군 삼서면
박진식 전북 순창군 순창읍
조명석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김옥중 광주시 북구 운암동
유승열 전북 진안군 백운면
이충묵 전북 익산시 부송동
서하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이정현
김재철 광주시 서구 덕흥동
송진우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박 민 광주시 북구 용봉동
김힘찬 전주시 중화산동 강변로
김소연 전남 순천시 서면 강청길
오석경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변희숙 여수시 신기북5길
김성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김지혜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박재열 광주시 서구 상무평화로
서경구
최세환 광주시 서구 염화로
김순덕 광주시 광산구 목련로
이승훈 광주시 서구 풍암순환로
김사명 순천시 서면 강청길
김민수 전북 익산시 동산동

박진식 전북 순창군 순창읍
최은애 전북 부안군 상서면
김성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 충청도

박철한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교동길
정철호 대전시 서구 계백로
오유진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이재영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로
신영일·왕능운 대전시 대덕구 법동 계족로
이순복 대전시 대덕구 법동 계족로
양수영 대전시 서구 계백로
이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김언년 충남 서천군 마산면 삼월리
김응재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김수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심상진 충남 천안시 문화동
전기태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안형근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이상용 충북 음성군 맹독면 인곡리
하보현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황종후 충북 충주시 달천동
유영희 충북 청주시 가경동
천성필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이예향 천안시 읍내동
이대우 천안시 쌍용11길
임정수 충남 논산시 상월면
최희숙 충남 보령시 남포면
김상규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오인자 천안시 성정동
이자연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은주 충남 논산시 상월면
정철우 충남 논산시 상월면
김명자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이병옥 충남 공주시 탄천면
김재식 충주시 산척면
이헌진 충남 아산시 음봉면
최헌영 충남 공주시 옥룡동
김은경 충남 공주시 금성동
조민우 청주시 상당구 율량구
박미연 대전시 동구 운문동
임남혁 대전시 동구 판암동
김동현 충북 충주시 흥덕구 장성동
김선미 대전시 동구 삼성동
김동수 충남 서산시 수석동
장명훈 대전시 대덕구 법동 계족로
박점순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 동로
서영자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박선여 충북 보은군 장안면 방아다리길
김영민 충남 홍성군 금마면 봉소산로
김영자 대전시 대덕구 덕암북로
최동열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로
박강정 대전시 대덕구 계족로
김낙중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중로

■ 제주도

김문택 제주시 노형동
김미현 제주시 도련동
김태우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이승익 제주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이수진 제주시 이호동
한복섭 제주시 도련동
홍양진 제주시 용담동
이정희 제주시 노형동
김일남 제주시 태성로
우가혜 제주특별자치도 삼도2동
김황재 제주시 일도2동

함께해 주세요

■ **민들레문학상 공모전** 매년 10월 ~ 2월까지 전국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아픔과 애환을 극복한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표현해 낸 글을 뽑아 시상합니다.

■ **기간지 민들레 출판회 및 시상식** 매년 5~6월에 출판회와 시상식을 합니다.

■ **일일찻집 자선 바자회 시상식** 가을에 협회 운영자금과 마을공동체 기금마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 **매월 정기 모임 문학토론회**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3:00 장애회원과 봉사자가 함께 문학토론, 친교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 **민들레향기 소식지** 매월 장애인들의 작품과 복지 소식, 문화 소식을 담아 전국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 **야외 시화전 시낭송** 공원이나 기관에 협조를 받아 수시로 시·그림과 함께하는 시화전을 하면서 공연도 합니다.

■ **문학 강좌** 봄, 가을 문학에 관심 있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2:30~4:30 강의, 수시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상담합니다** 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상담을 해 드립니다.

■ **자원 봉사단 수시모집** 활동범위: 협회행사 및 멘토링, 학습봉사, 상담, 시설봉사, 독거가정 봉사해 주실 분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 **부스러기 장학금 모금** 월 1천 원 이상 후원해 주시면 어려운 장애인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 **땅 사기 모금** 장애인 예술마을공동체 건립 모금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재가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 도우며 예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땅 사기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 **소풍 및 문학기행** 회원들과 봉사자가 함께 소풍과 문학기행 기획에 함께해 주세요.

신청 상담 010-4844-1398 / 010-3548-1398

문학 강의합니다

문학으로 만나자,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 문학도 배우고 소중한 인연도 만나 풍성한 교재도 나누는 아름다운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구는 물론 타 지역에서 관심 있으신 분은 동대구역에 도착하시면 사무실까지 차량봉사가 지원됩니다.

◈ **기　간** 상반기 16주 하반기 16주

◈ **일　시** 매년 3월 둘째 주 개강. 하반기는 9월 둘째 주 개강
둘째, 넷째 주 문학 강의 목요일 오후 2:30~4:30

◈ **월모임** 문학토론회 매월 셋째 목요일 같은 시간

◈ **장　소** 협회 사무실 또는 하늘문교회

◈ **연락처** 010-4844-1398 / 010-3548-1398

◈ **주　최** (사)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셋째 주 목요일은 각자 자신의 작품과 기성작가의 작품으로 토론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띤 토론회가 되도록 많이 참석하시고 관심을 부탁합니다.

아직 입문이 어렵고 두려우신 분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후원 안내

우리 협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운영	매월 : (1만원) (2만원) (3만원) (일시불)
	계좌 : 국민은행 69901-04-135657 농 협 355-0022-2900-53
부스러기 장학금	매월 : 1,000원/2,000원/3,000원/5,000원 10,000원
	계좌 : 농 협 355-0022-2882-33 국민은행 699601-04-135673
땅 사기 모금	매월 : 1만원/2만원/3만원/5만원 10만원/일시불
	계좌 : 국민은행 699601-04-135660 대구은행 5050-10-164296-9

★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료 포함 월 400~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상과 복지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적극 후원해주시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여러분이 차 한 잔 아끼고 담배 한 갑 아끼시면 학비가 없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한 아이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 협회의 가장 큰 꿈을 가지고 올해부터 5년씩 4단계로 그 첫 단계로 200~300평의 땅을 사는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예술마을공동체는 장애인들이 모여 문학예술을 배우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권과 개인생활을 존중받고 살면서 서로 도우며 사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을 찾고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합니다.
땅 기증하실 분도 찾고 있으니 혹시 여분의 땅이 있으신 분은 저렴한 가격이나 기증해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사)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안녕하세요?

우리 (사)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는 3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순수 장애인문학협회입니다.

우리 협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의 문학적 재능을 발굴 육성하는 것과 아울러 봉사활동도 겸하여 일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는 사회 속에 인간미는 점점 사라져가고 사랑도 식어가는 이 시대는 어려운 이웃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들에게 진한 사랑으로 봉사하며 사랑의 사도가 되어 주실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끼와 재능과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대 상**

중 ·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 **봉사활동**

협회 행사, 재가 장애인 학습 도우미, 소년소녀 가정 도우미,
독거노인 도우미, 상담, 치료 상담 등등이 있습니다.

□ **효 과**

봉사 시간, 봉사 점수 마일리지 통장에 적립

□ **모 집**

수시 모집합니다.

□ **연락처**

010-4844-1398 / 010-3548-1398

□ **접 수**

(사) 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뜻있는 분들의 손길을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사)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장애인예술마을공동체〉

건립 계획서



주최 사회단체 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1. 목적

협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장기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합니다. 기존 시설이라 하면 집단 공동체를 선호해 온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 장애인의 인권유린이나 사생활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정의 정서가 없는 사육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예술마을공동체**〉를 조성, 장애인들의 개인생활과 안락한 가정의 정서를 보장하여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신의 취미에 맞는 작업실, 또는 취미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등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2. 목표

이곳에 입주하는 장애인들은 문학예술에 꿈이 있거나 기술을 가진 자로 하되 한 가정에 한 가족, 또는 마음 맞는 장애인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도우며 살고, 또 혼자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독거하는 데 불편하지 않

도록 관리하고 보살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만든 것을 작품화하고 상품화시켜 전시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므로 열린 문화사회를 조성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입주한 장애인들은 각자의 생활은 각자가 생활하며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것은 관리인이 도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면서 안전한 가정생활의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이들이 각자의 전공을 살려 미술, 서예, 문학예술, 각종 공예, 컴퓨터 IT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며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텃밭도 가꾸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품격 있는 작품전시도 하고 전문 강사를 초청 강연도 해 장애인들의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전문가로 발돋움하여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가. 개요

① 2013년 5월부터 "장애인종합예술마을공동체" 건립 모금운동 실시

② 모금 방법: 소식지, 일일찻집, 자선 바자회, 초청 공연, 기업 단체와 연계, 언론매체 홍보 등을 통하여 할 계획입니다.

③ 건립 범위: 총예산 면적 2,000평~2,500평

④ 주요 사업: 입주자 생활공간 20~30채, 개인 작업실, 다목적 강의실, 실·야외전시장, 카페, 텃밭, 관리실 등입니다.

나. 세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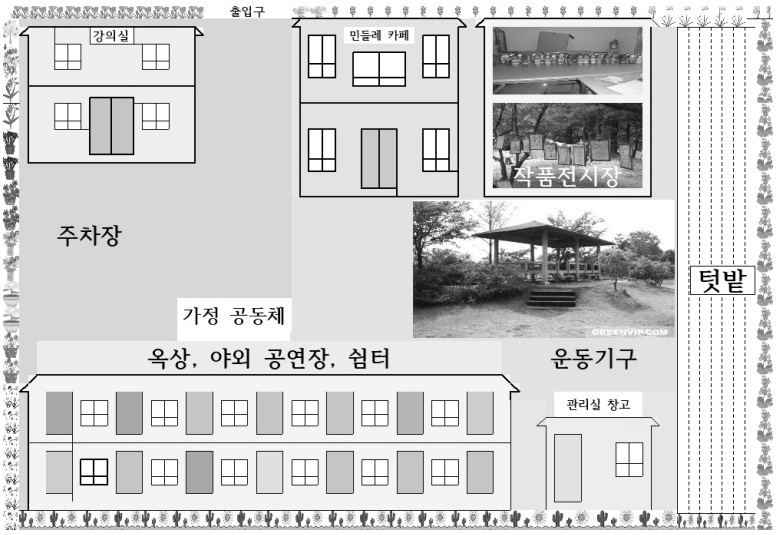
생활공간	주거 공간과 작업실	독거 또는 가족	개인당 20~25평	층수는 2층
다목적 강의실	100~150석	영사실 포함	문화 예술에 관한 각종 강의	개인 지도는 각자 작업실
전시장	120~50평	자연과 함께 하는 전시	시화, 목각, 서예, 다양한 공예	판매도 가능함
카페 운영	50~70평	다과와 차 종류	수입금은 운영비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장학금으로	

텃밭	300~400평	각종 채소와 유실수를 가꿈	입주자 중심으로 하되 주위의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장이 되도록 함	
관리	10~15명	전체적인 관리	입주자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조 관리인도 필요함	
차량	3대 ~ 4대	포터1대, 봉고1대 승용차	장애인들의 이동과 관리 시 필요한 최소한의 차량임	

다. 구체적 내용

▣ **전체 구조** 그림과 같이 전체 테두리는 담 대신 나무를 심고 카페와 전시장과 마당을 하나로 공원처럼 조성하여 전시도 하고 쉼터로 만들어 언제든지 손님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전시 구경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들도 언제든지 이용하면서 소통하는 마을로 만들고 다목적 강당 1층과 다용도 작업장 2층은 영상, 강의, 예배실로, 텃밭은 이웃 주민들과 함께 가꾸고 나누는 장이 되게 합니다.

빌라형 주거로 2~3층으로 20~30세대로 제한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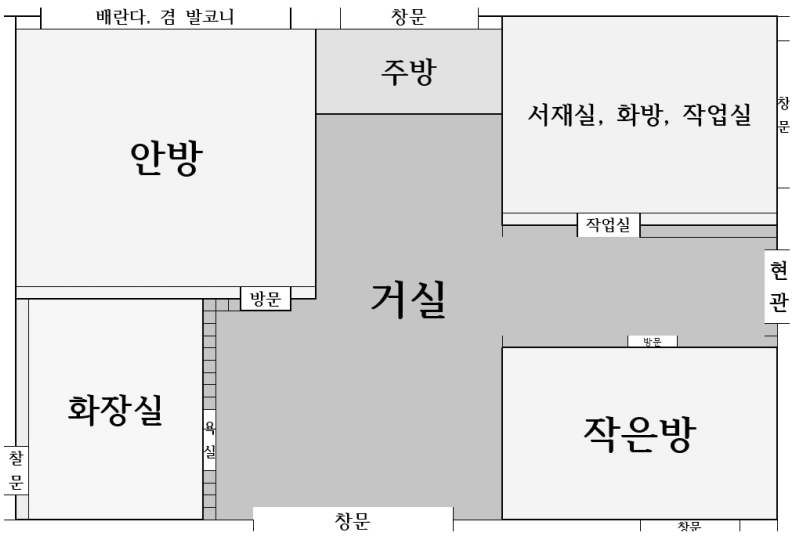
▣ **입주자의 생활공간** : 방 2개, 거실 겸 주방, 화장실, 작업공간으로 기본이 됩니다.

한 가정 1가족이 입주하고 독거인은 원하는 대로 혼자 살고 싶어 하면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게 지원하고 2인 1조로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살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입주자 자격** : 장애인으로서, 심사를 거쳐 문화예술에 관심 있고 재능이 있는 자. 기초수급자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도 가능함

▣ **입주자의 처우** : 1차적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인 것은 환경이나 장애로 인해 불편할 경우 관리인이 불편한 일들을 처리하여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합니다.

▣ **입주자의 의무** : 입주자는 개인 생활이 중심이지만 공동체의 의무도 있어야 합니다.



〈(사)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임원 이사와 결연 단체

◈ 고 문 ◈

한외근 (전 경산장애인복지관장)
최경집 (향토연예인협회 고문)

◈ 임 원 ◈

회　　장　이흥렬
부 회 장　손복식(대구), 김진균(경북)
감　　사　조우호(전, 성보재활원 원장)
총무간사　이순희

◈ 이 사 ◈

박종안 ((주)신독엔지니어링 대표)
장성태 ((사) 굿실버복지회 대표이사)
이대주 (강동어르신행복센터장)
박경숙 (시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이미향 (금동원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유나겸 (유창건설(주) 백송센터장)
구순혜 (아모레 퍼시픽 방판팀장)
김학조 (계간《시인시대》편집장)
임신웅 (아고라 공유사무실 대표)



자매결연단체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지구 대구동서 라이온스클럽
(주) 신독엔지니어링
(사) 굿실버복지센터
(사) 강동노인복지관
(사)신체장애인복지회 남부지부

2025년 제32호
민들레

인쇄 | 2025년 5월 25일
발행 | 2025년 5월 30일

발행인 | 이흥렬
펴낸이 | 장호병

펴낸곳 | 북랜드
41965 대구시 중구 명륜로12길 64(남산동)
대표전화 (02) 732-4574 | (053) 252-9114
팩시밀리 (02) 734-4574 | (053) 252-9334
홈페이지 | www.bookland.co.kr
이-메일 | bookland@hanmail.net

본 서적은 2025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학작품집 발간 지원입니다.

DAEGU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대구문화예술진흥원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 Arts